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9호 9월25일

평양 로동 신문사 발행 1954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잡지

제9호 (106)

1954년 9월 25일

내 용

당과 정부와 인민의 통일의 위대한 힘

조선 로동당은 조선 인민의 정치적 수령이며 지도자이며 따라서 조선 인민의 위대한 조직적, 고무적 력량이다. 김일성 동지에 의하여 창건 육성된 우리 당은 거대한 력량으로 장성 강화되였다. 그는 영광스러운 투쟁과 승리의 길을 걸어 왔으며 김일성 동지와 그의 전우들의 지도 하에 강철의 대오로 단련되였다. 맑쓰—레닌주의 혁명적 리론으로써 무장되고 인민과의 불가분리의 련계로써 강력한 우리 당은 어느 방향으로 인민을 인도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으며 또 성과적으로 그를 인도하고 있다. 당의 옳바른 지도에 의하여 조선 인민은 력사적인 거대한 승리들을 쟁취하였으며 새 생활 창조의 길로 자신있게 전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인민은 우리 당에 자기의 운명을 위탁하며 당과 정부의 정책에서 자기들의 희망의 구현을 보고 있는 것이다. 로동당은 인민들에 대한 헌신적 복무로써 근로 대중의 존경과 신망을 쟁취하였으며 그들의 숙망의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대렬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근로 대중은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리익보다 더 귀중하고 숭고한 것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인민에 대한 충직한 복무와 인민의 리익의 철저한 옹호—이것은 우리 당의 활동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다.

우리 공화국과 우리 인민이 걸어온 길은 우리 당 정책의 현명성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조국이 분렬되여 있으며 남조선을 지배하는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의 온갖 파괴 활동과 그들의 반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국 북반부에서 성과적으로 실시된 제반 민주 개혁과 계획 경제의 눈부신 발전, 조국 해방 전쟁에서의 『강대한』 침략자들에 대한 위대한 승리, 전후 경제 건설에서의 힘찬 전진—이 모든 전취물은 당과 정부의 현명한 정책의 결과에 이루어진 것이며 당과 정부와 수령의 주위에 굳게 단결된 조선 인민의 정치—도덕적 통일의 열매인 것이다.

조선 인민이 이미 쟁취하였으며 또 쟁취하고 있는 모든 력사적 승리는 맑쓰—레닌주의의 혁명적 학설에 의하

여 지도되며 쏘련 공산당의 고귀한 경험들을 자기 사업의 지침으로 삼는 우리 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오늘의 조선 인민, 김일성 시대의 조선 인민만이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의 조선 인민은 항상 영광과 승리에 빛나는 혁명적 로동당과 예견성 있게 인민을 승리에로 인도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가 그의 선두에 서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오늘의 조선 인민은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 로동당과 그의 수위에 서 있는 김일성 원수의 령도 하에 새 생활을 창조하는 새 시대의 인민이다.

김일성 동지는 오늘의 영웅적 조선 인민의 전투적, 혁명적 풍모를 과거 낡은 시대의 조선 사람들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선 인민들이 리조 五백년 시대의 갓쓰고 당나귀를 타며 량반의 자랑만 하고 다니던 아무러한 저항 능력도 없는 인민들과 같이 생각하였다…그러나 이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가장 어리석은 오산이였다』.

또한 그·므·말렌꼬브 동지는 오늘의 조선 사람을 가리켜 『오늘 조선 사람이란 말은 민족 정신의 위대성과 불굴성의 상징으로 되였으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의 위업에 대한 고상한 헌신적인 복무의 상징으로 되였다』 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조선 인민의 새로운 면모는 당과 정부와 수령의 주위에 굳게 집결된 인민들의 확고 부동한 정치—도덕적 통일과 불패의 단결의 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다.

당과 정부와 인민의 강철같은 통일은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 인민의 정치—도덕적 통일과 당과 수령에 대한 헌신성과 충직성은 우리 당 정책의 인민성에 그 근저를 두고 있다. 쏘련 무력에 의하여 조선이 일제 통치로부터 해방된 이후 우리 당과 정부가 실시한 정책은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인민의 리익에 복종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당과 정부의 활동이 대중의 지지와 창조력에 의거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해방 이후 평화적 건설 시기에 실시된 토지 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 개혁과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의 급속한 향상을 위한 우리 당의 모든 정책은 당과 정부와 인민과의 혈연적 련계를 강화하였다.

우리 조국이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직후 인민들 자신의 창의에 의하여 수립된 인민 정권은 전체 인민 대중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 나라 전체 경제 생활의 장래 방향을 규정하는 일련의 중요한 개혁들을 실시하였으며 계속하여 인민 경제를 계획적으로 성과있게 부흥 발전시켰다.

대 규모의 공장, 제조소들과 탄광, 광산, 철도 및 해상, 하천 운수, 체신, 은행 및 대 규모적 관개 시설들이 인민의 소유로 넘어 왔으며 대외 무역과 일체 교육, 문화, 보건 기관들이 국가의 관리 하로 넘어 왔다.

조선 농민의 세기적 숙망이였던 토지 개혁이 실시된 결과 七二만 여 호의 토지 없는 농민들과 토지 적은 농민들이 일본 략탈자들과 지주 및 민족 반역자들로부터 몰수한 약 一〇〇만 정보의 토지를 무상으로 분여 받았다.

당과 인민 정권은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의의를 가지며 조선 사회 발전의 거보로 되는 이 민주 개혁들을 인민 대중의 적극적 지지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성과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인민 경제를 계획적으로 부흥 발전시키는 기초 위에서 근로자들의 생활을 급격히 향상시켰다.

당과 정부는 전쟁 시기에 인민들의 생활 안정과 생명, 재산 보호에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 당은 전쟁의 승리에로 인민을 조직 동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불길 속에서도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온갖 수단과 가능성을 다 리용하였으며 이 사업에 대한 조그마한 무관심성과 안일성과도 타협없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오늘도 우리 당과 정부는 전후 건설 사업에 있어서 민주 기지 강화와 인민들의 증대되는 수요의 충족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당과 정부의 이 모든 정책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열쇠로, 그의 리익과 행복의 담보로 되였으며 또 되고 있다. 때문에 조선 인민이 한 사람같이 당과 정부의 정책을 자기의 정책으로 간주하며 인민군 장병들이 조국의 땅의 촌토를 사수하는 원쑤와의 결전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당과 수령을 부르면서 적 화구를 가슴으로 막으며 땅크 밑에 뛰여들어 자기의 목숨을 조국과 인민에게 바치는 숭고한 영웅성을 발휘한 것은 결코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자기의 목숨을 당과 조국에 바친 공화국 영웅이며 로동당원이던 신기철 동무는 자기의 수첩에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겼다.

『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장군의 충실한 아들이 되련다.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청춘의 생명과 피를 바치련다. 조국의 독립——이것은 인민의 희망이다.

전우들! 침략자들과 리승만 도당을 용서하지 말라. 만일 내가 죽으면 나의 피묻은 당증을 당 중앙 위원회에 잘 싸웠다고 전하여 달라!』.

또한 간호원 안영애 동무는 적들의 총, 포 사격과 적의 맹폭 속에서 수십명의 부상병을 구원하고 적의 총탄에 맞아 마지막 숨결을 쉬는 순간 정치부 중대장에게 자기의 당증과 돈 三백원을 맡기면서 『조선 로동당은 나를 길

려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조선 로동당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는 몇가지 당적 임무를 채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당비를 납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당증을 우리 당 중앙 위원회에 보내 주십시오。 내가 교양 주던 입당 청원자 두 동무를 나를 대신하여 교양주어 영예로운 우리 당 대렬에 받아 주십시오。 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완전 승리의 날까지 싸우지 못하고 죽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동무들! 끝까지 잘 싸워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전쟁 행정은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수령이 부르는 길에서 목숨을 바쳐 싸운 조선 인민의 영용한 의지의 불굴성을 뵈여 주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적들을 타승하고 반드시 승리하여야 한다는 한결같은 의지와 한결같은 투지와 한결같은 지향은 우리 인민을 지배하였다。 이것은 당과 정부와 수령의 주위에 집결된 인민들의 정치—도덕적 통일과 당과 인민의 리익의 공통성의 표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 사람이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며 당과 수령이 부르는 길로 자신있게 나가며 당과 정부의 정책에서 자기 희망의 구현을 보고 있는 그 리유는 당과 정부와 수령이 인민들 앞에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당과 정부의 정책이 인민의 리익에 복종되며 당과 정부의 활동의 최고 법칙이 인민들의 복리의 부단한 향상에 있으며 당과 수령이 령도하는 그 길에는 항상 영광과 승리가 있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당과 정부의 정책이 인민의 리익을 어떻게 반영하며 당과 정부가 인민에게 얼마나 충실하게 복무하고 있는가는 그가 전후 건설 시기에 실시하고 있는 제반 인민적 시책과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 법령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三개년 계획 법령에는 공업 생산 특히 인민들의 소비품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一九五六년에 이르러 경공업 생산은 약 二배로 전쟁전 一九四九년 수준을 릉가할 것이며 생활 필수품에 대한 주민들의 증대되는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영 및 협동 조합 상업을 현저히 발전시킬 것이며 전체 식료품과 공업품의 배급제를 철폐하고 자유 상업에로 이행하기 위한 온갖 필수 조건들을 조성할 것이 예견되여 있다。

정전과 관련하여 새로 조성된 조건 하에서 실시하는 당과 정부의 기본 정책은 우리 인민의 전체 력량을 총동원하여 전후 인민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을 급격히 향상시키며 조국의 통일 독립의 혁명적 기지를 더욱 철옹성같이 강화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는 데 있다。 이 정책은 조선 인민의 념원과 희망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의 대내、대외 정책과 관련되여 있으며

세계 평화와 제 인민 간의 친선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 시기의 당과 정부의 정책은 전체 조선 인민의 더욱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들의 창조력을 더 한층 발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제적 인민들의 새로운 강력한 정신적、경제적 지지와 원조를 받고 있는 것이다。

八·一五 해방 九주년을 경축하여 평양시 복구 건설장들을 비롯한 각 도시、농촌、공장、기업소들에서 힘차게 벌어진 광범한 군중적 증산 경쟁、로동 대중의 창의 고안 운동、로력 영웅들과 모범 로동자들의 배출、선진 기술 도입、생산 계획의 성과적 수행 등은 우리 나라 인민들이 당과 정부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가를 말하여 주고 있다。 평양시 복구 건설 제一 계단 사업 총화에서와 三개년 계획 첫 해인 一九五四년도 상반년 생산 계획 실행 총화에 대한 중앙 통계국의 보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가 쟁취한 성과는 거대하다。

당과 정부의 인민적 정책에 고무되는 전체 조선 인민은 지난 一년 동안에 있어서 전시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계속 견지하면서 평화적 건설과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한 거족적 투쟁에 궐기하였으며 이미 적지 않은 성과들을 쟁취하였다。 애국적 인민들의 헌신적인 로력에 의하여 공화국 북반부의 방방 곡곡에서는 파괴된 도시와 농촌들、공장과 제조소들이 폐허 속에서 일어서고 있으며 벌써 수다한 대규모적 공장、기업소들이 조업을 개시하였으며 농촌 경리는 복구되고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은 안정 향상되고 있다。 우리가 이미 쟁취한 성과들은、위대한 목적은 위대한 에네르기를 낳는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전후 시기에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 있는 위업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첫 걸음을 내여 디디였을 뿐이다。 당과 인민 앞에는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 및 초과 완수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 인민의 지혜와 력량을 총동원하는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당 단체들과 당 지도 일꾼들의 어깨에 부하되는 책임과 임무는 극히 중대하다。 당 단체들과 지도 일꾼들은 당 중앙 위원회 三월 전원 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에 기초하여 자기의 사업을 평화적 건설에 부합되도록 재편、개선하며 대중의 창조력과 적극성을 발양시키며 민주 기지 강화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위업 달성의 목적에 당 조직—정치 사업을 복종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당과 인민 앞에 제기되는 정치적 경제적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로농 동맹은 공화국의 생활적 기초

신 염

위대한 쏘련은 자기의 정의와 해방의 군대로써 우리 나라를 해방시키면서 우리 인민에게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조건을 주었다。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된 조선 인민은 자기 조국의 통일과 완전 독립과 인민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한 투쟁 행정에서 우리의 진정한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창건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남북반부의 총 선거를 통하여 자기들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 대표로 구성된 자기들의 최고 정권 기관과 통일적 중앙 정부를 가지게 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창건, 그것은 조국의 통일 독립과 자기들의 행복을 위하여 원쑤들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의 거대한 성과로서 八·一五의 해방과 함께 우리 인민의 반만년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력사적 사변이였다。 경애하는 수령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세기에 걸친 봉건 왕조들의 압제 하에서 빈천 무권리하였고 四〇 여년에 걸친 강도 일본 제국주의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 밑에서 신음하던 조선 인민이 이제는 자기들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하며 자기들의 행복한 생활의 창조와 무궁한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 담보로 되는 자체의 조국을 가지게 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수립은 또한 해방 이후 통일 독립 완성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력사에서도 빛나는 새 페지로 된다。 그것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야말로 조국의 통일 독립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의 남북 조선 전체 인민의 기치로 되여 이 투쟁의 최후 승리를 보장하는 가장 위력한 무기로, 담보로 되기 때문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그것은 조국의 통일 독립 완성과 새 사회 창건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투쟁의 무기요 성새로서, 혁명의 기관이며 인민의 원쑤들에

대한 독재의 기관인 동시에 우리 인민의 행복과 번영의 상징이다。

인민의 국가는 인민의 독재의 기관이니, 그것은 혁명을 무장하여 인민의 원쑤——반동에 대해서는 독재를 실시하는 동시에 인민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한다。 인민의 원쑤들에 대한 독재, 이것 없이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념원이며 우리 혁명의 과업인 조국의 통일과 완전 독립, 우리 사회의 경제적、문화적 개조, 우리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복리의 무궁한 향상은 쟁취할 수 없다。

혁명 및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맑쓰—레닌주의 리론과 쏘련에서의 그의 경험은 오늘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의 혁명 수행과 인민 민주주의 독재의 길을 밝혀 주고 있다。

혁명은 사회 발전의 요구, 인민 대중의 요구의 표현이며 생산 관계의 생산력의 성격에의 필수적 상응의 법칙의 표현이다。 낡은 생산 관계 하에서 낡은 계급은 자기의 계급적 지배의 무기로서의 국가 기계를 소유함으로써 새로운 생산력과 그것을 대표하는 선진적 계급들의 전진 운동을 억제한다。 때문에 혁명은 낡은 지배 계급의 국가 기계의 힘을 타도하고 그들의 반항을 분쇄할만한 력량을 조성함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의 장성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제국주의의 조건 하에서는 부르죠아지는 남아 있을 수 있는 봉건 세력과 야합하며 봉건적 요소들을 리용하여 프로레타리아트에 대한, 인민에 대한 압박과 착취를 가강한다。

이와 같은 제국주의의 부르죠아지와 그들의 국가 주권을 전복하며 주권을 쟁취한 후에는 전복된 계급들의 필사적 반항을 진압하고 혁명의 주권을 유지 강화하며 새로운 생산력의 성격에 상응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창설하며 그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프로레타리아트는 오직 주민의 절대 다수를 이루는 농민들과의 공고한 동맹에 의해서만 필요한 혁명 력량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쓰딸린은 『생산 관계의 생산력의 성격에의 필수적 상응에 관한 경제적 법칙…그 법칙이 아직(자본주의 사회에서——필자) 자기의 진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자유로운 활로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의 쇠망하는 세력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세력 즉 이 저항을 극복할 능력있는 사회적 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세력이 쏘련에서는 사회의 절대 다수를 이루는 로동계급과 농민들과의 동맹으로 표현되였다。…여기에 쏘베트 정권이 사회의 낡은 세력을 격파하는데 성공하였고 생산 관계의 생산력의 성격에의 필수적 상응에 관한 경제적 법칙이 쏘련에서 자유로운 활로를 얻게 된 비결이 있는 것이다』(쏘련에서의 사회주의의 경제적

제문제)라고 교시하였다。

자본주의와 부르죠아지는 자기 발전의 필연적 결과로서 스스로 자기의 매장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니, 제국주의 단계에서는 객관적으로 성숙되는 일정한 제 조건 하에서 필연적으로 혁명화하는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들과의 동맹이 반드시 부르죠아지의 세력을 타도할만큼 강대하여지는 날이 오고야 마는 것이다。

뜨로쯔끼의 『항구 혁명』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즉 로동 계급이 자본주의 하에서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경우는 실지에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로동 계급은 지배 계급인 부르죠아지를 타도하는 혁명에서 단독으로는 승리하기 불가능한만큼 그들에게는 언제나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피착취 계급인 농민과의 동맹이 혁명 승리의 필수 조건으로 되는바 이것은 이미 론박할 여지 없이 력사가 증명하고 있다。

다만 자본주의 하에서 농민들은 필연적으로 여러 층으로 분화하는만큼 혁명의 성격과 발전에 따라 로 농 동맹의 대상과 형태에 변화가 없을 수 없는 것도 맑쓰—레닌주의 리론과 력사는 가르쳐 주고 있다。

로 농 동맹의 힘은 낡은 계급의 주권을 타도하는 혁명의 공격력으로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낡은 주권이 일단 정복된다음에도 이러 저러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특히 국제부르죠아지와의 련계로 말미암아 그를 타도한 계급들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며 그래서 잃어버린 『왕국』을 회복하기 위하여 『一〇배나』 더한 힘으로써 반항하는 착취자들의 그 반항을 분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또 부르죠아 혁명에서와는 달리 사회주의 혁명에서는 낡은 생산 관계들을 청산하고 그 보다 비할바 없이 우월한 착취없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창설하며 그의 승리를 보장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도 혁명의 령도자 로동 계급은 역시 농민들의 지지와 신뢰와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상의 모든 것은 프로레타리아트가 혁명의 기본 문제인 주권을 전취하는데 있어서나 독재를 수립하고 그의 모든 과업들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 력량으로 되는 것은 로 농 동맹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레닌은 『독재의 최고 원칙 — 그것은 프로레타리아트가 지도적 역할과 국가 주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다』 (전집 제三二권 四六六페지)라고 가르쳤으며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쏘베트 공화국의 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 토대』 (쓰딸린)를 백방으로 강화할 것을 일상적으로 강조하였다。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서의 수백만 근로 농민들과의 동맹은 쏘련과 그리고 오늘 인민 민주주의 제국에서의 혁명 승리의 필수 조건으로, 프로레타리아 독재 또는 인민 민주주의 독재의 공고성의 기본 원칙

으로 되여 있다。

* * *

우리 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지도적, 향도적 력량인 우리 당의 령도 하에서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의 동맹에 기초하여 창건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반석같이 공고화되였으며 또 더욱 공고화되고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그 모든 빛나는 성과들을 쟁취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일제의 식민지였던 우리 나라에서의 로 농 동맹은 현대적 로동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한 이후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의 영향과 그에 따라 전파되기 시작한 맑쓰—레닌주의의 영향 하에서 전개되였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발전 행정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와 프로레타리아트의 발전은 일제 통치의 말기에 이르러 비로소 다소간 현저하게 되였으나 그러나 식민지 통치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자본주의적, 식민지적 및 봉건적 二중, 三중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던 우리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들은 그 처지의 공통성으로 말미암아 일제를 반대하는 민족 해방 투쟁의 지향에로 통일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비교적 예민하게 맑쓰—레닌주의 사상을 접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이 당시에 있어서 로 농 동맹 형성의 기초로, 조건으로 되였다。

김일성 동지에 의하여 조직 지도된 항일 빨찌산 투쟁과 조국 광복회 운동은 우리의 로 농 동맹을 현저히 장성시키는 동시에 그 주위에 광범한 애국적 인민층을 집결시켜 통일 전선의 기원을 이루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상기해야 할 것은 조국 광복회는 그 강령에서 이미 해방 투쟁의 귀결점으로서 오늘의 인민 민주주의적 공화국과 같은 조국 건설의 뚜렷한 목표를 주었다는 사실이다。

우리 나라 내부에서의 사회 경제 및 해방 투쟁의 발전이 우리의 로 농 동맹과 전체 애국적 인민층의 통일 전선의 장성에 의하여 우리 인민을 해방하는데 이르기 전에, 세계사 발전의 행정은 제二차 세계 대전에서의 세계 혁명의 기지이며 인류의 해방자인 위대한 쏘베트 국가의 세계사적 승리에 의하여 우리 나라가 해방되게끔 하였다。

八·一五 이후 김일성 동지에 의하여 지도되는 우리 당은 쏘련 군대에 의한 해방과 그들의 진주로 인하여 조성된 유리한 조건 하에서 급격히 장성하는 로동자, 농민들의 혁명 력량을 확고한 동맹에로 향도하였으며 그를 백방으로 강화하는 대책을 시종일관하게 실시하여 왔다。

로 농 동맹은 피착취자, 피압박자로서의 두 계급의 리해 관계의 기본적 일치에 기초하고는 있지마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농민층의 분산성과 그 비조직성

때문에 령도적 계급으로서의 로동 계급의 능동적, 적극적 역할이 없이는 의식적, 조직적으로 형성 발전될 수 없는바 로동 계급의 이러한 역할은 무엇보다도 이 계급의 선봉대이며 참모부인 당을 통하여 수행되는 것이다。우리 나라에서 일찌기 형성되기 시작하였던 로 농 동맹이 해방 이후 급격하고 위력하게 장성 발전하게 된 조건의 하나는, 다른 모든 것 이외에, 분명히, 해방 이후 비로소 새 형의 당으로서 완성된 우리 당의 령도적 역할이였다。

우리 당의 령도 하에 八·一五 해방의 혁명적 앙양 속에서 급격히 장성된 로 농 동맹은 우리의 혁명 수행, 새 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역할을 놀았으며 또 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은 쏘련에서와는 달라, 그리고 다수의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와 같이 다만 로 농 동맹에만 의거할 수는 없는바, 이것은 해방전 시기에 있어서부터 그러하였다。

해방 후 남조선에 진주한 미제의 침략——식민지화 정책과 그로 인한 조국의 인위적 분렬로부터 우리 조국을 완전히 해방하며 통일하여야 할 혁명의 과업, 혹은 그의 반 제국주의적, 민족 해방적 성격은 다시금 외래 제국주의의 노예로 되기를 원치 않는 일체의 애국적, 민주주의적 세력 즉 중 소 부르죠아지를 비롯한 각계 각층 인사들과 그루빠들을 혁명 력량으로서 로 농 동맹의 주위에 동원 집결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였으며 또 그것을 필수적인 것으로 하였다。때문에 우리 당은 해방 후 자기 활동의 첫날부터 미제——해방자의 가면 하에 우리 나라에 대한 노예화 정책을 감행하는——와 그 주구들인 친일파, 민족 반역자, 친미파들의 반동적 기도와 정체를 폭로함으로써 그들을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며 그들의 영향으로부터 일체의 량심적, 애국적 계층들과 인사들을 떼여내여 혁명의 기본 력량인 로 농 동맹의 주위에로 결속하는 통일 전선 정책을 자기의 기본 전략으로 삼았으며 오늘도 삼고 있다。

우리 인민의 향도적 력량이며 그의 리익의 대표자인 우리 당의 강령에서 표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인민의 한결 같은 념원과 최대의 리익——우리 혁명의 기본 과업은 인민 민주주의의 길을 따라 부강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데 있는바 이 과업 실천을 위한 투쟁은 복잡한 행정을 밟고 있다。

쏘베트 군대에 의한 해방과 그들의 사심없는 방조는 이 과업의 실현을 위한 모든 조건을 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를 교체하여 남조선에 진주한 미제의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예속화 정책의 실시는 우리 혁명의 완수를 위한 길을 저해하였다。

이러한 정세에 당면하여 우리 당의 현명한 전략적 지도는 조국의 통일 독립 완성, 부강한 자주 독립국가 건설, 혁명 완수의 최선의 물질적 담보로서 조국의

북반부를 혁명의 기지——민주 기지로 전변시키는 로선에로 우리 인민을 향도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민족 해방 혁명인 동시에 사회 혁명인 우리 혁명이 응당 나아가야 할 길을 북반부에서 먼저 그리고 신속히 나아감으로써, 다시말하면 봉건 잔재와 일제 및 예속 자본가들의 세력을 청산하고 우리 나라의 인민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할 토지 개혁, 중요 산업 국유화 등 혁명의 강령적 과업들을 북반부에서 먼저 실천하며 그에 기초하여 제반 민주 건설을 촉진하며 강력한 국방력을 조직함으로써 혁명의 궁극 목적인 인민의 자유와 물질적, 문화적 복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조국의 통일과 완전 독립, 부강한 인민 민주주의적 조국 건설을 위한 혁명 력량을 북반부에서 최대한으로 조성 축적하는 투쟁의 길에 들어섰던 것이다。

우리 인민은 이 길에서,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의 혁명적 동맹의 주위에 결속하여 우선 북반부에서 자체의 혁명적 정권——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 나중에 북조선 인민 위원회——을 수립하였다。창건된 혁명적 인민 정권은 전체 인민의 지지와 특히 혁명의 수령인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의 공고한 동맹에 기초함으로써 강력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 정권은 또한 이 로 농 동맹과 통일 전선에 의거하여 토지 개혁, 중요 산업 국유화 등 혁명의 기본적 과업들을 실천하였는바 그의 철저성과 신속성은 오직 이 혁명 력량의 강력성에 기인한 것이였다。

우리 당과 로동 계급은 농민들과의 동맹을 발전시키며 그에 의거함에 있어서 민족 해방적 혁명 성격의 요구에 순응하여 전체 근로 농민들과 동맹하면서 특히 빈농, 고농층에 굳게 의거하였던바 토지 개혁도 주로 이들에 의거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행정에서 로동자들은 우리 당의 령도 하에 농촌에 파견되여 이들의 혁명적 사업을 방조하였다。그리하여 토지를 분여받은 빈농들과 고농들이 거의 다 자기들의 물질적 생활 처지를 현저히 향상시켰으며 오늘도 로동 계급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로서 농촌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민 정권의 수립과 민주 개혁들의 실시——이것은 북반부에서 혁명의 기본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한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혁명 완수를 위한 민주 기지 건설의 근본 토대를 축성한 것을 의미한다。

인민 정권의 수립과 민주 개혁들의 혁명적 투쟁 행정은 로동자, 농민들, 특히 농민들의 계급적 각성과 혁명열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당과 인민 정권에 대한 그들의 지지와 신뢰를 강화하며 정치—사상적으로 로 농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로 되였다。그러나 그 보다도 민주 개혁들의 물질적 결과는 이 동맹을 지금까지의 정치적 동맹으로부터 정치 경제적 동맹으로 전변시킴으로써 그것이 확고한 물질—경제적 토대 위에서 더욱

결정적으로 강화 발전되게 하였다。

중요 산업 국유화와 토지 개혁은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착취자적 소유 관계를 청산하고 산업에서 『호상 협조적』 생산 관계를 창설하며 농촌 경리를 전적으로 『과도적』 (소경리적) 생산 관계에로 옮겨 놓은 미증유의 심각한 변혁이였다。 도시—산업에서의 착취 관계의 청산 (기본적인) 은 그 생산물을 전 인민의 소유로 되게 하였으며 따라서 도시와 농촌 간의 대립의 근원을 일소하였다。 이것은 농촌에서의 착취 관계의 청산, 현물세 제도의 설정과 아울러 로동 계급과 농민을 경제적으로 직접 련결시키게 되였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로 농 동맹을 도시 농촌 간의 확고한 경제적 련계 위에, 튼튼한 물질적 토대 위에 올려 놓았다。

이 시기에 한편 조국의 남반부에서는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의 동맹이 아직 경제적 토대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조국의 통일 독립 완성과 민주화를 위하여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길에서 그것은 사상—정치적으로 더욱 단련 강화되여 갔다。

로 농 동맹이, 북반부에서는 이미 확고한 물질적 토대 위에 섰고 남반부에서는 아직 그렇지는 못하였으나 그러나 그것은 남북을 통하여 유일한 목적 하에 정치—사상적으로 계속 장성의 길을 밟았다。 이 동맹과 이를 핵심으로 하여 장성하는 전체 조선의 애국적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은 다음 단계에 있어서 북반부에서의 인민 정권의 발전으로서 통일적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창건하는데 결정적 력량으로 되였다。

一九四八년 八월에 실시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을 위한 최고 인민 회의 선거에 북반부에서는 유권자 총수의 九九・九七%, 남반부에서는 그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七七・五二%가 참가하였다는 사실은 전체 조선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 단결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바 이 통일 단결의 핵심이 로 농 동맹이였던 것은 물론이다。

전술한바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공화국의 창건, 그것은 남북반부 전체 인민의 총의에 의한, 헌법과 남북 총 선거에 기초한 전국 통일적인 정부에로의 발전을 의미하였다。 그것은 또한 우리 조국의 통일 독립 완성을 위한 투쟁 행정에서의 거대한 승리, 결정적 승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은 최후 승리를 향하여 공화국의 기치 밑에로 전체 애국적 인민들의 통일 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로 농 동맹을 가일층 공고화하는 획기적 사변으로 되였다。

창건된 공화국의 청소한 정권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로 농 동맹을 계급적 기초로 하는 전체 조선 인민의 통일 단결의 장성은 초기의 남북「민전」들로부터 발전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의 결성에서 그 조직적 표현을 보았다。

로 농 동맹과 통일 전선의 힘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낡은 계급들의 숙청, 새로운 생산 관계의 설정, 새로운 국가 건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복된 계급들의 반항을 분쇄하며 특히 새로운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는 사업에서도 결정적 작용을 뵈여 주었다。

우리 당과 그리고 로동 계급에 의하여 령도되는 공화국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충실성에 표현되는 로 농 동맹과 특히 민주 개혁들의 결과로서 형성 발전되는 전체 인민의 정치 정신적 통일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또한 전쟁전 평화적 건설에서의 빛나는 성과들을 달성할 수 있었다。 즉 패망된 지주, 예속 자본가들의 잔당인 리승만 역도들과 그의 상전인 미제의, 우리의 민주 개혁들과 민주 건설을 반대하는 집요한 파괴 암해 등 활동을 능히 분쇄 극복하면서 우리 인민은 수차에 걸친 인민 경제 계획들을 성과적으로 완수, 초과 완수하여 폭풍과 같이 산업과 농업의 생산력을 장성시키고 교육 문화 보건 시설들을 확장 신설함으로써 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과 정부의 제반 시책 하에 자기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급격히 향상시켜 전쟁 전의 『황금 시대』를 이룩하였으며 강력한 국방력을 조성하였으니, 이로써 공화국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성새와 같이 공고화되였으며 조국의 북반부는 불패의 민주 기지로 전변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위대한 쓰딸린이 가르친 바와 같이 새로운 생산력이 자기의 성격에 상응한 새로운 생산 관계——새로운 활로를 획득하며 이 활로에서 생산력이 폭풍과 같이 장성 발전하게 되는 그 객관적 법칙이 로 농 동맹의 힘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구현된 것을 본다。 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법칙의 구현과 관련하여 우리의 인민 민주주의적 경제 발전이 우리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게 되는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의 작용도 보게 된다。 로 농 동맹의 힘에 의하여 전취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기초한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복리의 급속한 향상——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의 작용은 다시금 인민들을 당과 정부의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시키며 로 농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인민 민주주의적 혹은 사회주의적 혁명과 독재의 기본 동력이며 생활적 기초인 로 농 동맹과 그에 의하여 달성되며 전취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모든 성과들은 부단한 변증법적 호상 작용 속에서 서로 서로를 확대하며 강화하여 정지할 줄 모르는바, 이것은 사회주의 사회, 인민 민주주의 사회 발전의 내용으로 되고 있다。

력사상에는 부르죠아지들도 봉건 지배 계급을 타도

함에 있어서 농민의 궐기를 동맹군으로, 후비로 삼은 일이 있다。 그러나 주권의 전취로써 완결되는 그들의 혁명에서 이미 성숙된 부르죠아 제도를 확충 완성하며 봉건 지배 계급의 착취를 자기들의 착취로써 체대하는 데 불과하였던 부르죠아지들은 혁명의 전취물을 농민들과 나누려 하지 않았으며 또 나눌 수도 없었으며 혁명이 끝난 다음에는 그들과의 동맹을 계속 유지하려 하지 않았으며 또 유지할 수도 없었다。 승리한 부르죠아지 앞에서는 어제의 동맹자도 오늘은 벌써 새로운 착취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였다。 농민은 부르죠아지로부터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으며 또 얻지 못한다。 따라서 농민은 오직 프로레타리아트와의 동맹과 이들의 지도하에서만, 그리고 이들과 함께만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알 수 있다。

우리의 로 농 동맹과 전체 인민의 정치—정신적 통일의 공고성과 그에 기초하는 공화국과 인민 민주주의 제도와 민주 기지의 공고성이 우리 인민의 력사상 미증유의 시련이였던 조국 해방 전쟁에서 영광스러운 력사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한 기본 요인이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락후한 사람들에게는 신화와 같았던 미국의 『강대성』, 그들의 기술 기재와 유생 력량의 숫적 우세, 상식을 초월하는 그들의 비인간적 전쟁 수단과 방법,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그 첫날부터 그 결말에 이르기까지 적들과 세계의 반동 지배층들의 기대를 철저하게 분쇄하였다。

우리의 승리의 기본 원인의 하나는 물론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형제적 나라 인민들의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및 정치적 원조——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힘이였다。 그러나 만약 자기들의 행복의 상징이며 성새인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한사코 고수하려는 우리의 영웅적 로동 계급과 농민들과 전체 애국적 인민들의 준비된 확고한 정치—정신적 통일이 없었다면, 만약 당과 정부에 대한 그들의 끝 없는 충실성과 헌신성과 그리고 무비의 애국주의와 대중적 영웅주의로써 표현된 이 통일과 그의 핵심적 주도적 력량인 확고한 로 농 동맹의 힘이 없었다면, 그리고 정의의 위업에 대한 부동의 신념이 없었다면 그 무엇으로써 그렇게도 가혹하고도 어려운 조건 하에서 무궁 무진한 투쟁력을 창조해 낼 수 있었을 것인가?! 로동 계급의 선봉적, 령도적 역할과 농민들과의 공고한 친선 단결은 전선과 후방을 불패의 력량으로, 전국을 불발의 요새로 화하였던 것이다。 부패한 독점 자본의 국가, 강도적 침략자들이 지배하는 국가, 미국에는 이 모든 것이 없다。 그들의 패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 로 농 동맹은 주로 군사—정치적 동맹의 성격을 띠게 되였으며 더욱 불패의 력량으로 단련 강화되였다。

당과 정부는 전쟁의 어떠한 곤난한 시기에도 인민들 특히 농민들의 생명과 생활과 생산을 위한 배려와 시책을 주요 과업의 일부로 삼았으며 그들에 대한 애국주의적,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사상 교양을 강화하였다。 위대한 쏘련 인민과 중국 인민들을 비롯한 형제적 인민들이 보내 주는 육친적 원조는 또한 직접으로 우리 인민에 대한 고귀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교양자로 되였다。 이 모든 것은 농민들과 전체 인민의 애국적 열성과 헌신성을 더욱 더 제고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당과 정부와 로동 계급의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되게 하였으며 형제적 인민들에 대한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을 강화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함이 없이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도, 자기들의 행복도 있을 수 없다는 의식을 더욱 확고히 하게 하였다。

당과 정부는 해방 이래 우리의 로동 계급과 농민들과 전체 인민들을 지도하며 그들의 통일 단결을 장성시킴에 있어서 모든 물질—경제적 대책들과 함께 사상 교양 사업에 언제나 중대한 의의를 부여하여 왔으며 또 부여하고 있다。 사상 교양의 주되는 내용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그에 기초한 애국주의이며 일반적으로는 맑쓰—레닌주의 세계관과 혁명 의식이다。

사회의 혁명적 개조의 기본적 력량으로서의 로 농 동맹과 그를 근간으로 하는 전체 영웅적 조선 인민의 청소한 정치—정신적 통일은 현대 제국주의의 「최강자』와 그의 수다한 추종국들과 졸도들의 어떠한 힘으로써도 타승할 수 없는 강대한 력량으로 발전하였으니 조선 인민의 지도적, 향도적 력량으로서 해방 후 불과 수년 동안에 이와 같은 혁명적 력량을 길려낸 우리 당이 세계 혁명과 국제 로동 운동의 돌격대의 일원이라는 고상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사회의 혁명적 개조의 기본 력량으로서 공화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모든 활력의 기초로——생활적 기초로 되는 로 농 동맹의 힘은 지나간 시기의 모든 위업들——민주 개혁, 민주 건설, 조국 해방 전쟁——에서의 기본적 무기로, 승리의 담보로 된 바와 같이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과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새로운 발전 강화, 조국의 통일 독립 완성 등 앞으로의 모든 영광스러운 거대한 과업들의 승리적 수행을 위해서도 필수적 무기로 또 담보로 될 것은 명백한 일이다。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인민의 수중에 주권이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는 로 농 동맹은, 한편으로는 령도자인 로동 계급과 당과 정부측으로부터의 농민들에 대한 지도와 방조에, 다른 면으로는 농민들측으로부터의 당과 정부와 로동 계급의 정책에 대한 지지와 신뢰와 충실성에서 표현된다。 따라서 이 동맹의 힘의 작용과 그의 강화를 위한 작용은 계속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전후 시기에 있어서도 당과 정부와 수령은 조국의 통일 독립 완성을 위한 민주 기지 강화, 그를 위한 인민 경제의 급속한 복구 건설의 기본 과업을 제기하고 그의 성과적 실천을 위한 투쟁에로 전체 인민을 향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생활 안정, 특히 농민들의 생활 안정과 영농 조건 보장을 위하여, 로농 동맹의 계속 강화를 위하여 평화적 건설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만단의 배려와 적절한 대책들을 실시하여 왔다.

우리 로동 계급과 농민들과 전체 인민은 당과 정부의 인민적 정책에 고무되면서 경애하는 수령의 호소를 받들고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쳐 전시와 다름 없는 애국적 열성과 헌신성과 갖은 창발성들을 발휘하여 복구 건설에 착수한지 불과 반년 여에 조국의 무궁한 번영 발전의 토대로 될 방대한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실천에로 들어섰으며 정전 후 불과 一년 동안에 허다한 귀중한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우리의 영웅적 로동 계급은 대규모 공장들을 포함한 수다한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 건설하여 一九五四년 상반년에만해도 九〇개 이상의 기업소들이 조업을 개시하게 하였으며 一九五四년도 상반년 공업 총 생산량 계획을 一〇〇%로 완수하였는바 그중 중공업과 전기 공업은 각각 一〇七%로, 경공업은 一〇四%로 초과 완수하였다. 우리의 애국적 농민들은 당과 정부의 정책을 받들어 황폐했던 농경지들과 수리 시설들을 급속히 복구 정리하고 금년도 춘파 작물 파종 면적 계획을 一〇七%로 초과 완수하였다.

* * *

이의 성과들은 물론 거대하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 있는 거대한 과업들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이 투쟁의 길에는 수다한 난관과 애로들이 가로놓여 있으며 그것은 전체 인민의 더욱 무한한 애국적 적극성과 창발성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는바 이 적극성과 창발성은 오직 고도의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로 무장되고 부단히 장성하는 로농 동맹과 전 인민의 통일로부터만 솟아나올 수 있는 것이다.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의 일층 강고한 동맹과 그에 기초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의 강화는 우리의 승리의 담보로 되며 우리 당 앞에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업 중의 하나로 된다』고 김일성 동지는 교시하였다.

로농 동맹의 기본적 뉴대로 되는 도시 농촌 간의 물질—경제적 련계, 생산물 교류의 가일층 강화를 위하여 로동 계급은 우선 부단히 로동 생산성을 제고하며 특히 경공업 부문에서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되 농민의 수요와 기호를 깊이 연구하여 생산을 조직하며 원가를 저하시키며 수량상, 금액상으로 뿐만 아니라 품종별로 국가 계획을 완수, 초과 완수함으로써

농민들과 전체 인민에게 질좋은 생활 필수품과 농기구, 농기계들을 풍부히 공급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 방조 사업에 있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농민들의 협동 경리에로의 이행을 방조 촉진시키는 그것이다. 이것은 물론, 비단 로농 동맹의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규모 개인 경리가 가지는 빈약한 생산력을 가지고서는 농민들 자신을 락후하고 겸소한 생활로부터 종국적으로 해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로동 계급을 위시한 전체 인민에게 유족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며 전 인민적 소유에 기초한 도시—산업의 발전의 요구에 수응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만큼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은 호상 협조적, 선진적 생산 관계에 기초한 도시—산업에 발맞추어 농촌 경리와 농민들을 협동 경리의 방향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자체의 기본 과업의 하나로 삼는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해방 이후의 발전 행정, 특히 조국 해방 전쟁 행정을 통하여 준비된 농민들의 의식 상태와 객관적, 물질적 조건들에 기초하여 오늘 농민들의 협동 경리에로의 전환을 조직 지도하며 백방으로 방조하는 대책을 취하고 있다.

방금 출발한 이 사업에 있어서의 중요 고리는 협동 조합 운동의 제 원칙의 철저한 준수와 구체적 조건들에 잘 적응한 창발적 지도와 국가적 방조의 합리적 리용 등으로써 협동 경리의 우월성을 의심할 여지 없이 물질적으로 뵈여 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 농민들에 대한 선도적 모범으로, 집단주의의 훌륭한 학교로 되게끔 이 새로운 경리의 경제적, 조직적 장성을 지도 방조하는 데 있다.

농업 협동 조합 운동의 장성은 분산적인 소규모 경리를 협동화, 조직화, 대규모화하며 국가적 통제의 권내에 인입함으로써 그들의 농업 생산력을 급격히 제고시키며 그들의 생산을 계획화하게 하며 그들을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과 련결시켜 농촌에서의 착취자적 요소들——고리대, 모리간상배 등을 억제 배제할 수 있게 하며 이리함으로써 그들과 도시 로동 계급 간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로동 계급과 당과 정부측에 긴밀히 련결시킬 것이다.

당과 정부와 로동 계급의 농민에 대한 지도 방조 사업에서 농업 협동 조합의 일반적 문제와 함께 이와 관련하여 오늘 특히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령세 농민에 대한 그것이다. 토지는 받았으나 대부분 산간 지대와 해변 지대에서 적고 척박한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적지 않은 령세 농민들은 그 자연—조건의 불리와 전쟁의 피해로 말미암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당과 정부는 령세 농민들과 령세 어민들의 경제 형편 개선을 위하여 종래에, 공장 지대에로의 이주 조직, 부업 생산 협동 조합의 조직, 혹은 직접적인 각종 물질적 방조 등 여러가지 대책을 실시하여 왔는바 이제 우리 농 어촌들에서의 협동 경리의 일정한 발전과 관련하여 당과 정부는 산간 지대에서는 반농 반목축, 해변 지대에서는 반농 반어업 형태의 협동 조합들을 대대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으로써 앞으로 二—三년 내에 그들의 경제 형편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강구 실시하기로 되였다.

적지 않은 수효의 령세 농민들을 협동 경리의 길로 인도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개선 향상시키는 동시에 전체 인민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우리 농촌 경리 및 사회의 개조의 견지로 보나, 로농 동맹 강화의 견지로 보나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업으로 된다. 이 방면의 당, 국가 및 경제 기관 일꾼들은 이 사업의 중요한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당과 정부의 시책의 정확한 집행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아직도 우리 농업에는 개인 경리가 압도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만큼 그들의 경리 개선, 생산제고를 위한 지도와 방조에 당 및 국가 기관들과 그 지도 일꾼들은 부단히 높은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지도와 방조는 그 자체로서 당과 정부와 로동 계급에 대한 농민의 지지와 신뢰를 강화하는 것으로 되기는 하지마는 그 보다도 그의 목적이며 결과인 생산의 개선을 통하여 더 많이 로농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간접적으로 다소간 긴 기간을 두고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마는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인 것이다.

그런데 도시 농촌 간의 생산물 교류를 직접으로 담당하여 인민 생활과 혹은 경리 개선에, 따라서 로농 동맹의 강화에 더욱 직접적으로 이바지하는 것은 류통 부문 사업이다.

쏘련에서의 신 경제 정책의 첫 시기에 인민 경제 복구 특히 농촌 경리 복구의 진척에 따라 상품 폰드가 어느 정도 증대되였을 때 레닌은 상업—국가 상업—을 당과 국가의 사업의 중심 고리의 하나로 간주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국영 상업 및 협동 조합 상업은 반 국가적, 반 인민적인 모리 간상배들과 투쟁하면서 인민의 수요를 위하여 복무하며 도시 농촌 간의 련계를 강화하며 생산을 촉진하며 인민 생활 향상과 국가 자금 축적에 이바지함으로써 전체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촉진하며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최후 승리를 촉진하여야 할 중대한 정치 경제적 사명을 띠고 있다.

소비 협동 조합은 특히 농촌 방면에서 광범한 소비자 대중의 자원적인 조직인 협동 단체로서 도시와 농

촌 간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며 로농 동맹을 공고히 하는 원칙에서 농민들에게 공업 상품을 공급하며 로동자 부락들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상품 류통 사업을 조직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한다. 따라서 그것은 모리 간상배들의 중간 착취를 제거하고 조합원 대중의 물질적 생활을 향상시키며 소 생산자들을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의식적 건설자로 전환시켜야 할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후 시기에 당과 정부는 인민 생활의 급속한 안정 향상을 위한 제반 시책 중에서 국영 및 소비 조합 상업망들을 급속히 복구 정비하며 그 사업을 개선 확장하는데 많은 관심을 돌려 왔으며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에서는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의 상품 류통액을 一九五三년에 비하여 一九五六년에는 二·三배(대비 가격으로)로 증가시키며 이를 위하여 三년 간에 二、九二六개소의 국영 및 협동 단체의 상업망들을 증가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적지 않은 경우에 상술한 바와 같은 정치 경제적 임무의 수준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은 자기의 사명에 비추어 시급히 사업을 개진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수매 사업 분야에서 국가 기관의 해당한 부문들과 소비 조합들은 농민들의 잉여 생산물과 부업 생산물을 남김 없이 수매함으로써 중간 상인들과 간상배들로부터 생산자들과 그리고 소비자들의 리익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가격 정책에 있어서 우리는 쏘련 공산당 九월 전원 회의 결정 이후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의 농촌에 대한 수매 정책, 세금 정책들에 비추어 개인적 리익과 사회적 리익을 정당히 결합시키는 원칙에 굳게 립각함으로써 농민들의 로동의 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을 제고하며 그들의 생산 의욕에 자극을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판매 사업 분야에서는 우선 인민들 특히 농민들의 수요에 대한 세심한 연구가 없는 혹은 부족한 상품의 생산과 배정, 또는 기동성 없는 상품 배정 등으로 인한 상품의 체화, 편재, 불소화, 이에 따르는 상품의 부패, 변질, 자금 회전의 저해 등 참을 수 없는 현상들을 시급히 청산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적지 않은 소비 조합들은 그것이 조합원들의 자원적인 협동 단체임을 망각하고 마치 『상사 기관』과 같이 조합원들의 리익과 권리에 대한 고려, 그들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거나 혹은 불만족하게 함으로써 농민들, 소시민들에 대한 집단주의의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거의 놀지 못하거나 극히 불충분하게 놀고 있다. 소비 조합들은 이러한 결함들을 시급히 퇴치하는 동시에 산간 벽지에까지 침투하여 특히 령세 농 어민들에게까지 그 혜택을 미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류통 부문 일꾼들은 일반적으로 상업의 국가적

특히 정치적 의의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가짐으로써 사업에서의 상사 기관화의 경향을 퇴치하고 영예감과 책임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봉사성과 상업 기술, 상업 문화를 더욱 높임으로써 인민 생활 향상과 인민 경제 발전에 더 잘 복무하며 당과 정부와 로동 계급에 대한 농민들, 전체 인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더욱 공고화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로농 동맹의 가일층 강화를 위하여 우리는 또한 사상 교양 및 대중 정치 사업에 중대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당과 정부는 전후 시기에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과업에 적응하여 로동자, 기술자, 농민, 인테리들의 사상성을 제고하며 그들의 창발성을 더욱 발전시키며 무디여질 수 있는 경각성을 더욱 제고시키기 위해 조직적, 대중—정치적, 문화—교양적 사업의 모든 수단을 정비 확장하며 그 리용을 개선하는 대책들을 광범히 실시하고 있다. 사회의 개조, 이것은 의식적, 계획적, 조직적 사업이며 대중 자체의 적극적 참가와 창조적 노력으로써만 이루어진다. 때문에 사상 교양의 강화를 위한 사업은 언제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며 자연 생장성에의 방임은 침체와 퇴보를 의미한다.

오늘 일부 로동자들 속에 남아있는 소부르죠아적, 리기주의적 낡은 사상 잔재를 급속히 청산하며 프로레타리아적 규률을 확립하며 국가와 인민의 재산에 대한 애호 절약, 국가 법령의 모범적 준수의 정신을 확고히 배양하며 기술 기능을 제고하며 령도적 계급으로서의 긍지와 자질과 책임성과 경각성을 더 높이며 그들에게 당과 정부의 정책을 철저히 침투시키는 방향에서 애국주의적 사상 교양 사업, 군중 문화 사업들을 가강하여야 할 것인바 그것은 형식주의와 교조주의에서 벗어나 로동 대중의 생산 활동과 긴밀히 결부되여야 하며 그 성과는 대중의 경제적 성과 여하로써 평가되여야 할 것이다.

농촌에서의 사상 사업 방면에서는 오늘 농민들에 대한 집단주의 교양이 무엇보다도 첫 자리를 차지하여야 할 것이다. 레닌은 一九二三년에 자기의 『협동 조합론』에서 『우리 앞에는 획시기적인 두개의 주요 과업이 나서 있다. 첫째 과업은 우리들의 국가 기관…을 재 조직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둘째 과업은 농민들을 위한 문화 사업이다. 그런데 농민들 속에서의 문화 사업은 경제적 목적으로서 바로 협동 조합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만일 전체 농민들이 협동 조합에 조직된다면 우리는 벌써 두 다리를 사회주의적 기초 위에 뻗치고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면적 협동 조합화의 조건은 농민들(바로 압도적 대중으로서의)의 문명 정도, 즉 전면적 문화 혁명이 없이는 이 전면적 협동화가 불가능하게 될 그러한 문명 정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가르치였다.

레닌이 다른 기회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농민들이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모두 다 협동 조합

에 참가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에 참가하는 데서 얻는 온갖 리득을 료해할 수 있고 그 참가를 조직할 수 있을만큼 『문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명화는 선도적 모범에 의한 실물 교육 이외에 일반적 교양과 특히 맑쓰—레닌주의적 교양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달성될 것이다.

오늘 공화국 농촌들에는 정전 후의 당과 정부의 시책들에 의하여 민주 선전실을 비롯한 문화 시설들이 복구 정비되고 있으며 출판물, 기타 선전 선동 수단을 널리 리용할 수 있게 되였다. 사상 교양망과 문화 시설들은 계속 확충 정비될 것인바 여기서도 문제는 사상 교양 사업, 대중 정치 사업에서의 형식주의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이 사업을 농민들의 생산과 생활에 구체적으로 결부시키는 데 있다. 사업의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선동원들의 질적 구성과 책임성과 사업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상의 모든 것 이외에도 로농 동맹을 강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하는 문제가 있는바 그것은 당, 국가 및 경제 기관 일군들의 사업상, 령도상 작풍 문제이다. 김일성 동지의 력사적 二월 연설에서와 최근의 三월 전원 회의 보고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우리가 아직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관료주의 잔재의 발현은 직접 간접으로 대중을 당과 정부로부터 혹은 농민들을 로동 계급측으로부터 리탈시키는 엄중한 결과들을 가져오고 있다. 당 단체들과 그 일군들은 반관료주의 투쟁에서도 선봉적 역할을 놀므로써 이 폐풍의 청산을 기하며 이 길을 통해서도 인민 정권과 로농 동맹의 강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 ❄ ❄

오늘 우리는 로농 동맹 강화를 위한 수령의 교시들과 당과 정부의 시책들을 정확히 집행함으로써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생활적 기초이며 따라서 공화국의 생활적 기초인 로농 동맹과 그를 근간으로 하는 전 인민의 정치—정신적 통일을 백방으로 그리고 계속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조건 하에서만 우리는 전인민적 과업인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할 수 있으며 그를 통하여 우리 나라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며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복리를 고도로 향상시켜 조국의 북반부를 일대 락원으로 전변시키며 이와 관련하여 국방력을 고도로 강화하며 이로써 혁명의 기지를 반석과 같이 튼튼히 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전후 시기에 있어서의 우리 당의 경제 정책

박 정 호

전후 시기에 있어서 우리 당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전후 인민 경제 三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민 생활을 급속히 개선 향상시키며 우리 혁명의 근거지——민주 기지를 일층 강화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달성하는 그것이다。

지난 三년 간의 가혹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력사적 승리를 쟁취한 조선 인민은 정전이 실현된 후 전시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계속 견지하면서 평화적 건설과 조국 통일을 위한 거족적 투쟁에서 적지 않은 성과들을 거두었으며 또 거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도 국토가 량단된 채로 남아 있으며 우리 인민이 한결같이 념원하고 있는 국토 완정, 조국 통일의 위업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조국의 통일 독립의 완성——이것은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앞에 나서고 있는 최대의 임무이며 우리 혁명의 기본 과업이다。

우리 당은 우리 혁명의 이와 같은 기본 임무로부터 출발하여 그의 정치적 제 과업의 수행을 물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당의 정치적 제 과업과 경제 정책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그것은 호상 의존하며 호상 작용하면서 유기적으로 련결되고 있다。 더우기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사회 하에서는 정치와 경제의 유기적 통일과 그의 호상 작용은 더욱 명백히 표현된다。

어떠한 혁명을 막론하고 그의 물질적 토대인 혁명의 기지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그 혁명 과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혁명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혁명의 동력인 민주 력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으로 민주 기지를 강화하여야 하며 그와 반면에 정치적 력량이 강화되는 데서만 또한 혁명 기지의 경제적 토대를 강화하는 속도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은 우리 혁명의 기본 임무와 관련되여 있으며 우리 당의 정치적 제 과업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현 시기에 있

어서 우리 혁명의 중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 * *

위대한 쏘베트 국가의 무력에 의하여 해방된 조선 인민은 새 생활을 창조하는 투쟁에 들어서면서 낡은 방법으로 우리 조국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적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할 것을요구하였으며 자기 손으로 자기의 장래 운명을 개척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해방 직후 우리 나라 방방 곡곡에서는 각계 각층의 인민 대표들로써 구성된 지방 인민 위원회가 조직되였으며 그의 지도 하에 조선 인민은 우리 나라에서의 민주주의적 건설사업을 시작하였다。

우리 당은 조선 인민의 이와 같은 요구와 창의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에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일련의 민주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통일적, 민주주의적 조국 창건을 자기의 기본 과업으로 내세운 우리 당의 새 경제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적 경제 정책의 표현으로서 북반부에서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건설하며 나아가서는 강력한 민주기지를 창설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조성하는 투쟁이였다。

이에 있어서 우리 당은 우선 우리 나라에서 사회의 생산력 발전을 장애하고 있던 가장 중요한 질곡의 하나인 토지에 대한 봉건적 소유 관계를 숙청하는 토지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농촌에서 지주를 중심으로 한 반동의 지반을 박탈하였으며 조선 농촌의 일체의 봉건적 락후성을 퇴치하는 기본적 토대를 축성하였다。 따라서 밭갈이하는 농민들이 직접 토지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그들의 생활 형편이 현저히 개선 향상되였으며 농촌에서의 기아와 빈궁, 착취와 억압과 온갖 락후한 현상을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을 청산할 수 있게 되였다。

토지의 주인으로 된 농민들은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그들과 함께 인민 정권의 지주로 되였으며 도시와 농촌 간의 튼튼한 련계와 로농 동맹의 확고한 물질적 토대의 일면이 구축되였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우리 나라의 농업 생산은 급진적으로 장성하게 되였는바 그것은 우리 공업 발전에 자극을 주었으며 발전되는 우리 공업에 식료와 원료를 보장하는 기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 정권이 민주 기지 창설을 위한 투쟁에서의 민주주의적 변혁의 다른 하나는 중요 산업 국유화였다。 이 변혁의 수행은 우리 나라 력사 발전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이 변혁에 의하여 북조선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정치적 지배의 경제적 토대로 되여 있던 중요 산업이 인민의 수중에 장악되였으며 그들과 야합하고 있던 반동 부르죠아지의 경제적 지반이 파괴되였다。 그리하여 민족 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체 자원이 국가의 소유로

되여 인민의 복리 향상에 복무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지어주었으며 인민 경제의 지배적 부문들을 국가 수중에로 이행시킬 수 있게 하였다.

이 변혁 행정에서 북반부의 반동적 부르죠아지의 경제력을 파쇄한 것은 우리 나라의 인민 민주주의적 발전의 기본 조건으로 되였으며 인민 경제 발전을 계획적 기초 위에서 수립할만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이와 아울러 조국 건설의 주도적 계급인 로동 계급의 정치적 열성을 제고시켰으며 그들 속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생산 의욕을 고도로 앙양시키는 동시에 그들에게 로동에 대한 자각성과 새로운 태도를 배양시켰다.

김일성 동지의 령도 하에 우리 당의 옳바른 정책에 의하여 북조선에서 이와 같은 인민 민주주의적 사회 경제적 개혁이 실시된 결과 북조선의 사회 경제적 면모는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되였다. 즉 낡은 정치적 상부구조의 소탕과 함께 낡은 경제적 토대가 청산되고 그 대신에 새로운 경제적 토대가 형성 발전하게 되였다.

우리 당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미 쟁취한 제반 민주 개혁의 성과를 공고 발전시키며 그 기초 위에서 인민 경제를 부흥 발전시킴으로써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급진적으로 향상시키는 경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투쟁 행정에서 우리 당은 단순히 일제 통치의 악독한 결과의 청산과 일제가 파괴하고 간 민족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국영 경제 부문을 강화 발전시키고 자본주의적 부문을 통제 축소하는 방향에서 민족 경제를 부흥 발전시켰다. 즉 우리 나라의 경제의 국가적 부문과 조합적 부문과 개인적 부문의 발전을 도모하되 그것은 국가적 부문의 우세와 지배적 역할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그를 결합시키며 생산, 무역 및 금융에 대한 계획화와 국가적 관리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는 것을 자기의 경제 정책의 기초로 삼았던 것이다.

우리 당은 인민 경제의 부흥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인민들이 보다 유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그의 개선 향상을 위한 일련의 대책을 강구 실시하여 왔으며 또 하고 있다. 인민들의 증대되는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정책은 언제나 인민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는 인민 정권의 정책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은 전쟁전 평화적 건설 시기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 창설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그에 따르는 계획 경제에 의거하여 일제가 파괴하고 간 모든 산업 시설들을 복구 확장하며 락후 또는 결여된 부분들을 신설 확장함으로써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급격히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가의 경제적 토대를 일층 공고화하였으며 강력한 인민 군대의 장비를 보장함으로써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이와 같은 개혁과 건설의 행정에서 우리 인민 경제에서는 제 인민 민주주의 국가에서와 같이 경쟁 및 생산의 무정부성의 법칙은 폐절되고 그의 대립물로서 인민 경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 법칙이 작용하게 되였다. 더우기 지주와 반동적 자본가들을 청산함으로써 착취 제도를 기본적으로 청산하게 된 우리 인민 경제에서는 생산 관계의 생산력 성격에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의 명백한 작용을 보게 되였다.

중요 생산 수단이 인민의 소유로 되고 있는 공화국 경제에는 또한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 법칙으로 되는 부단히 장성하는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요구의 최대한의 충족의 법칙도 작용을 뵈여 주고 있다.

우리 당은 이와 같은 모든 경제 법칙의 작용과 사회 발전의 물질적 요구에 기초하여 생산력의 부단한 발전을 보장하여 생산을 계속 증대시킴으로써 장성하는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자기 경제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생산의 주인인 근로자들의 적극성과 창조적 로력과 애국적 열성의 비상한 앙양에 의해서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은 정치적 임무에 종속되면서 또한 그에 의하여 자기의 정책 수행을 보장 받고 있다.

오늘 조국 통일의 물질적 토대인 민주 기지를 강화하는 투쟁에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은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는 데 전체 인민들을 궐기시키면서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한 전체 인민의 사상 정치적 통일을 일층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정치적 과업을 보장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당의 경제 정책 수행을 정치적으로 보장하는 당의 정치적 임무는 사회 발전 법칙과 조성된 구체적 제 조건에 기초하여 인민 경제의 발전 속도와 범위를 규정하며 그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정치적 제 조건을 보장하여 주는 데 있다. 왜냐 하면 민주 력량의 강화는 광범한 인민들의 사상 정치적 통일을 강화하는 데서만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은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지 않고서는 기대할 수 없으며 인민의 사상 정치적 통일은 생산력 발전과 생산 장성을 촉진시키는 추동력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화적 건설 시기에 있어서나 전쟁 시기와 현 시기에 있어서 우리 당의 인민들의 복리 증진에 대한 부단한 배려는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인민 민주주의 제도와 자기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대한 불타는 사랑과 충성으로 무장시키며 결속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되였다.

만일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이 우리 나라의 경제 토대

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경주하지 않고 우리 인민들의 물질적 조건에 의한 결속을 보장하지 못하였다면 미제 무력 침범자들과 리승만 매국 역도들을 반대하는 조국 해방 전쟁에서 그렇게도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 당의 과학적인 경제 정책에 의하여 우리 인민 민주주의 경제 체계는 확고 부동한 기초를 축성하였으며 국가에 의한 통일적, 계획적 경제 운영을 보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이 전쟁을 도발하자 전체 인민 경제를 단시일 내에 전시 경제 체제로 개편하였으며 전쟁의 수요와 인민들의 생활 안정을 능히 보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제와 리승만 매국 역도들을 반대하는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우리 당은 모든 것을 전쟁 승리에 복종시키는 동시에 국가 계획에 의하여 생산력을 효과적으로 배치 활용하였으며 생산물을 합리적으로 분배 리용하였다。 그리하여 당은 조국의 운명을 자기 어깨에 걸머지고 인민의 선두에서 물 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였다。

전쟁은 비록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지만 당은 가렬한 전쟁의 불길 속에서 전선의 수요를 보장하고 인민 생활의 안정 향상에 대한 자기 정책을 꾸준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리익과 행복의 가장 철저한 대표자이며 옹호자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뵈여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들은 전쟁의 불길 속에서도 항상 당과 정부의 시책에서 자기들의 행복과 장래 희망을 찾았으며 수령에게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자기들의 지혜와 재능과 정력 등 모든 것을 전쟁 승리에 바쳤던 것이다。

조선 인민은 자기들의 이와 같은 애국적 충성과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위대한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형제적 제 국가 인민들의 고상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립각한 무한한 동정과 막대한 원조와 지지에 의하여 그 모든 곤난과 애로를 극복하고 전쟁 승리를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은 우리 조국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수호하였으며 이미 쟁취한 민주 개혁의 제 성과들과 민주 기지를 수호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우리 민주 기지에서 민주 혁명 력량을 계속 강화하며 조국의 완전 통일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출 수 있게 되였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 경제가 입은 상처는 심대하며 그를 더욱 훌륭하게 복구 건설하는 것은 어렵고도 복잡한 과업이다。 조선에서의 정전 실현과 관련하여 조성된 새로운 정세 하에서 우리 당은 전후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며 인민 경제를 더욱 높은 계단으로 계속 발전시킴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을 달성하

며 우리 인민의 무궁한 행복을 창조할 것을 자기의 기본 과업으로 내세웠다。

가렬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조선 인민을 승리에로 인도한 우리 당은 평화적 건설에 들어서면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六차 전원 회의에서 김일성 동지가 제시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의 기본 방향으로부터 출발하여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 경제의 각 부문을 복구 건설하며 공업 및 농업의 생산 수준과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 수준을 전전 수준에 끌어 올리며 그를 현저히 릉가할 것과 장래 우리 나라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할 것을 예견하는 인민 경제 三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의 성과적 수행을 조직 추동하고 있다。

원쑤들을 타승하고 력사적 승리를 쟁취한 조선 인민은 당과 정부의 인민적 시책에 고무되면서 지난 一년 동안에 평화적 건설과 조국 통일을 위한 전 인민적 투쟁에서 이미 적지 않은 성과를 쟁취하고 있다。 전후 인민 경제 三개년 계획 실천을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에서 우리 인민들의 창조적 로력에 의하여 공화국 북반부의 방방 곡곡에서는 파괴된 도시와 농촌들이 폐허 속에서 일어서고 있으며 우리 인민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 많은 대 규모적 공장, 기업소들이 벌써 조업을 개시하여 증산의 불길을 뿜고 있으며 농촌 경리는 복구되고 인민들의 생활은 날이 갈쑤록 안정 향상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평화적 건설이 눈부시게 진척되고 있으며 인민들의 창조적 새 생활이 들끓고 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민주 기지를 일층 강화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여야 할 거대한 임무가 서 있다。 더우기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방해하고 정전 협정을 란포하게 위반하는 도발 행동을 감행하면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 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우리 당과 전체 조선 인민에게 원쑤들에 대한 경각성을 더욱 제고하며 민주 기지 강화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전후 시기에 있어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은 조선에서의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며 우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정치적 제 과업에 전적으로 복종되며 그의 수행을 물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은 민주 기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건설과 생산 속도를 더욱 촉진시키며 인민 경제를 더욱 높은 계단으로 발전시키는 데 전 력량을 집중하고 있다。

조선에서의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체 조선 인민과 우리 나라의 민주 력량을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킴으로써 그들의 정치

도덕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것 없이는 우리는 민주 기지를 더욱 강화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 당과 정부와 인민의 불패의 통일——이것은 우리 당의 정치 경제적 제 과업의 수행을 보장하는 강력한 담보로 될 뿐만 아니라 현 시기에 있어서 우리 혁명의 기본 과업인 조국 통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으로 된다。 따라서 오늘 우리 앞에 가장 날카롭게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임무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일체 민주 력량을 더욱 굳게 결속시키며 전체 인민들의 사상 정치적 통일을 강화하는 그것이다。

김일성 동지는、당의 공고화와 인민 정권을 공고화하지 않고서는 조국 전선 사업을 강화할 수 없으며 따라서 민주 력량을 강화할 수 없다는 것을 루차 강조하였다。

우리 당은 력사적인 당 중앙 위원회 제四차、제五차 전원 회의를 통하여 당의 사상 통일과 의지의 통일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전체 당원들의 당성을 더욱 제고시킴으로써 조직적으로、사상적으로 더욱 강화되였다。 따라서 우리 당의 령도 하에 인민 정권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사회 단체 사업과 조국 전선 사업은 일층 강화되였다。

그러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미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정치적 방면에 있어서 민주 력량과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일층 강화하는 동시에 그의 물질적 토대로 되는 민주 기지를 경제적으로 강화하는 문제가 또한 중요한 것이다。 통일 단결된 우리의 민주 력량은 그의 물질적 기초를 철옹성같이 강화함으로써만 무궁무진한 원천에 기초한 더욱 더 불패의 력량으로 전변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떠한 혁명 사업에 있어서나 그의 물질적 근거지를 가지지 않고서는 그의 종국적 승리는 보장할 수 없다。 혁명의 동력인 민주 력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으로 민주 기지를 강화하여야 한다。 경제적 토대를 구축함이 없이 정치적 력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우리가 우리 혁명의 근거지인 공화국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인민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안정 향상시킨다는 것은 당과 정부와 인민의 불패의 통일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인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가일층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전후 시기에 있어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은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三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그 기초 위에서 제一차 五개년 계획을 달성할 것을 가장 중요한 당면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업

의 성과적 수행은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제 조건을 조성하여 준다。 왜냐 하면 공화국 북반부의 경제적 기초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풍부히 하며 공화국 북반부를 번영하는 일대 락원으로 전변시킨다면 우리의 민주 력량은 일층 강화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통일 독립 문제는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이와 같은 정치적 임무와 경제적 제 조건을 타산한 기초 위에서 인민 경제의 기초적 부문인 중공업과 더불어 경공업、농업 및 식료품 공업 등의 급속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인민들의 물질 문화 수준의 급속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승리적 수행을 위한 투쟁에 자기의 경제 정책을 총집중하고 있다。

중공업 특히 기계 공업의 발전은 우리 나라가 일제로부터 물려 받은 경제적、문화적 락후성을 청산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여 주며 우리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며 우리 혁명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논다。 따라서 우리 당은 전후 시기에 있어서 중공업의 복구 발전에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위대한 쏘련을 비롯한 형제적 제 국가 인민들이 주는 방대한 기술—경제적 원조와 우리 나라에 조성된 특수성과 객관적 조건들을 타산한 기초 위에서 우리 당은 중공업 부문과 함께 인민들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 필수품 생산 부문에도 높은 비중의 력량을 돌리고 있다。 그리하여 중공업과 경공업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전체 인민 경제의 기본 부문인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청소하였던 우리 공업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혹심하게 파괴를 당한 조건 하에서 그것의 복구만으로서는 우리 나라의 공업화의 기초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나라의 공업화란 산업의 단순한 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기초로 되는 중공업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공업의 심장인 기계 공업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한다는 것은 우리 공업에서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청산하며 다른 모든 산업과 농업에 생산 수단、기계、기계 설비 등을 공급하여 주며 또한 소비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부문의 창설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로 공업을 최신의 현대적 기술의 토대 위에서 복구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당은 머지 않은 장래에 인민 경제 전체 부문들에 현대적인 생산 수단을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적 기계 공업의 건설을 예견하면서 우선 그의 원료、동력적 토대로 되는 금속 공업、전력 공업、석탄 공업、화학 공업、건설 자재 공업 등을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고 있다。

인민 경제 三개년 계획 법령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과제들을 각 부문별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 과제의 완수 및 초과 완수는 우리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며 기술―경제적 면에서 자주성을 보장하며 조국의 통일 독립의 달성과 우리 나라의 번영 발전과 인민의 행복의 증진을 위한 물질적 기초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된다。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은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경제적 토대를 더욱 공고화하며 자본주의적 요소가 장성할 수 있는 원천을 억제하고 경제의 국가적 부문을 부단히 확대시킴으로써 인민의 복리를 더욱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인민 경제는 자본주의적 요소의 축소와 전 인민적 및 협동 단체적 부문의 장성과 공고화에 기초하여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인민 경제 전체 부문에서 국가적 부문과 협동 단체적 부문의 개인적 부문에 대한 우세와 지배적 역할을 보장하며 그를 부단히 제고하는 방향에서 발전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개인 기업과 개인 상업은 인민 민주주의 경제 체제 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한개의 경리 형태로서 인민 정권의 통제 지도 하에 전체 인민 경제의 발전에 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 자본주의적 경리 형태인만큼 자본주의적 요소를 장성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일부 간상배들의 모리의 온상으로 될 수 있는 비조직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과 정부는 공화국 북반부에 남아 있는 자본주의적 개인 경리가 우리 나라의 인민 민주주의적 발전에 협력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후 시기에 있어서 인민 생활의 안정 향상을 위한 생활 필수품 생산의 확장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그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영 경제 부문과 협동 단체적 부문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에서 그들의 자본주의적 요소의 원천을 통제 축소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인민 경제에서 국영 부문과 협동 단체 부문의 비중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대책과 인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한 당과 정부의 부단한 배려는 호상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호상 의존하면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에서 통일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생산의 목적은 자본주의 제 국가들의 생산과는 달리 리윤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복리 향상에 복무하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국영 및 협동 단체들의 생산의 질적 및 량적 장성은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한갖 지표로 되는 동시에 그를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된다。

그러므로 인민들의 복리 향상에 대한 당과 정부의 배려와 그의 결과로써 이루어지는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급격한 앙양은 광범한 근로 대중들의 생산에

대한 적극성과 개인적 및 집단적 창조력의 개화를 촉진하며 그들 속에 잠재하고 있는 재능과 천품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가능성을 조성함으로써 생산의 계속 장성을 보장하고 있다。

생산력의 부단한 장성과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생활의 계속적 장성――이것은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사회의 전진 운동의 기본 법칙이다。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은 이 법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로동에 대한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제고하며 그들의 생산에 대한 적극성과 그의 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을 자극함으로써 생산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며 그들 앞에 더욱 새로운 과업과 요구를 제기하며 그들의 전면적 발전을 축진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의 비상한 자각성을 전제로 하는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시키며 전체 사회 및 그의 개별적 성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된다。 때문에 객관적 경제 법칙에 의거하여 사회 발전의 요구를 고려하면서 인민들의 복리 증진에 부단한 배려를 돌리고 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생산 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온갖 조건과 모든 력량을 三개년 계획 완수 및 초과 완수에로 동원 집중시키고 있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와 생산 예비력의 철저한 동원 리용과 근로자들 속에서 광범히 전개되고 있는 증산 경쟁 운동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은 이것을 명백히 뵈여 주는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인민 경제를 복구 발전함에 있어서 중공업의 발전이 없이는 공업화의 기초는 축성될 수 없으며 경공업의 발전이 없이 인민 생활은 안정될 수 없으며 또한 공업에서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 나라 민족 공업의 균형적 발전은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에 있어서 그의 중심 고리는 공업을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는 그것이다。

그러나 일면 공업은 농업의 발전에 의존하며 또한 인민 생활의 급격한 향상을 위해서는 농업의 급속한 발전이 요구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 당은 공업의 복구 발전과 아울러 농업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자기 정책의 중심 과업의 하나로 삼고 있다。

당은 일찌기 전쟁 시기에 농촌 경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영 농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분산된 개인 농촌 경리를 점차적으로 협동 경리에로 전환시킬 것을 규정하고 이 방향에서 농촌 경리를 발전시킬 데 대한 제반 대책을 강구 실시하여 왔으며 또 하고 있다。 농촌 부문에서의 국영 농 목장의 확대 강화, 농업 생산 협동 조합의 조직 운영 등 일련의 대책들은 단순한 농업 생산의 증대를 위한 방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락후한 생

산 형태인 소농 경리를 선진적인 협동 경리에로 발전시킴으로써 공업 발전에 대한 농업 발전의 균형을 보장하며 인민 경제 전체 부문에 국가적 및 협동 단체적 부문을 장성시키는 동시에 앞으로 계속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인민 경제 발전의 근본적 대책의 하나로 되는 것이다。

농촌 부문에서의 이와 같은 대책의 실시는 인민 경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에 있어서 인민 경제 각 부문과 제 생산 과정의 모든 부문 간에 균형을 보장하며 인민 경제 각 부문 간의 발전을 련결 조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 당의 경제 정책에서 흘러 나오는 것이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 있어서 공업만이 계획 경제로 발전하고 농촌 경리가 개인 경리로 남아 있을 때에는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만일 농업이 공업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농업 자체의 발전에만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업 발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농업 발전에 있어서 분산된 소농 경리를 협동 경리에로 이행시키는 것은 인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농업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며 나아가서는 농촌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기초를 조성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六차 전원 회의는 전후 시기에 있어서 우리 당의 농촌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산된 개인 농업 경리를 점차적 방법에 의하여 협동 경리의 길로 이끌고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이것은 농업 발전에 대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의 한 측면으로서 전쟁의 불길 속에서 조직된 우리 국영 농 목축업의 발전 전망과 실물 교육에 의한 농민들의 협동 경리의 우월성에 대한 심각한 인식과 또한 많은 농민들의 협동 경리에의 자원적 진출 등 성숙된 제 조건을 타산한 기초 위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금후 우리 나라 농업 발전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되는 것이다。

물론 장구한 기간을 두고 계속하여 온 우리 나라에서의 개인 농촌 경리를 협동화한다는 것은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방조 하에 이미 조직 운영되고 있는 농업 협동 조합의 급속한 발전은 오직 이 길만이 우리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농민들을 행복과 문화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농업 협동 경리의 발전—이것은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며 인민 경제 및 기타 부면에 있어서 거대한 작용을 놀뿐만 아니라 농촌에서의 호상 협조 요소의 장성을 촉진시키며 앞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보장하는 기초로 될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농촌 경리는 당과 정부의 정확한 정책에 의하여 전쟁의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계속 발전하여 왔으며 따라서 농민들의 생활은 현저히 개선 향상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一년 동안에 전쟁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는 기본적으로 회복되였으며 농민들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에 소요되는 식량과 공업이 요구하는 원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수확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다。 산간 지대와 해변 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령세 농민들의 처지가 아직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는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六차 전원 회의에서는 우리 나라 전체 농민의 약 三〇%에 달하는 이 령세 농민들에 대한 문제를 최근 二—三년 내에 완전히 해결하며 이와 아울러 농업 협동 조합을 조직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전후 시기에 있어서의 우리 당의 농촌 정책에서 주되는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두가지 문제는 현 시기에 있어서의 우리 당의 농촌 정책에서의 결정적 고리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발전 및 전체 인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중요한 측면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 당은 이미 오래 전부터 령세 농민들의 생활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당과 정부는 일부 산간 지대에 거주하는 령세 농민들을 공장、 기업소들과 평야 지대에 진출시키는 한편 그들에게 자생 자립의 방향에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적 방조를 주었다。 그러나 산간 및 해변 지대에서 적고 척박한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이 령세 농민들은 력사적인 토지 개혁에 의하여 땅의 주인으로는 되였지만 그들의 경제 형편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이 령세 농민들의 문제를 앞으로 二—三년 내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산간 지대에는 반농、 반목축 형태의 협동 조합을 광범하게 조직하며 해변 지대에서는 반농、 반어업 형태의 협동 조합을 대대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을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평야 지대에서는 공업의 발전을 전제로 하는 농촌 경리 발전과 농촌 사회의 개조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농업 협동 조합을 조직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을 농촌 문제 해결의 기본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업 발전 및 농민들의 생활 개선 향상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은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인민 대중의 복리 향상에 대한 배려를 자기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우리 당의 기본 경제 정책과 유기적으로 련관되고 있으며 또한 그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 *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은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인민 민주주의 경제 체계를 더욱 공고화하며 공업과 농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개인 소농 경리를 협동화의 길로 인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과의 경제적 련계를 더욱 튼튼히 하며 그들의 동맹을 일층 강화하는 대책을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전체 인민의 사상 정치적 통일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전체 인민들과 일체 민주 력량을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보다 튼튼히 결속시킬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꾸준한 배려를 돌리고 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인민들의 생활은 날로 개선 향상되고 있으며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 경제 三개년 계획의 승리적 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전체 인민들은 애국적 열성과 창조적 로력을 발휘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당과 정부와 인민의 불패의 통일——이것은 우리 혁명의 근거지——민주 기지를 철옹성같이 강화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의 위업을 달성하는 강유력한 정치적 력량으로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의 무궁무진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창조하는 결정적 동력으로 된다.

전후 시기에 있어서의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은 이 정치적 력량의 물질적 기초를 일층 강화하는 데 객관적 가능성과 모든 조건을 현실성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자기 활동을 총 집중하고 있다.

정권 기관 내에서의 당 사업

고 봉 기

우리의 인민 정권은 위대한 쏘베트 무력이 일제의 장구한 식민지 통치로부터 우리 조선을 해방시킨 후 조선 인민이 처음으로 가지게 된 인민들 자신의 정권이다. 우리의 인민 정권 기관은 중앙 정권 기관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지방 정권 기관인 각급 인민 위원회들이다.

우리의 정권 기관은 당과 대중을 련결하는 인전대이며 「우리 당의 총 로선의 집행자이며 그 정책을 실시하는 수단이다」(김일성).

우리 당은 정권 기관을 통해서 기백만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유지 강화하며 우리 당의 정책을 그들 속에서 정확 민속하게 실현한다. 그러므로 당의 일상적 관심은 우리 혁명의 무기로서의 정권 기관들의 부단한 강화에로 돌려져 있다.

특히 현 시기에 있어서 우리 앞에 제기된 혁명의 제 과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권 기관들의 가일층의 강화를 요구하며 따라서 정권 기관들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정권 기관 내 당 단체들의 임무는 우리 혁명의 강력한 무기——정권 기관 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그의 기능을 가일층 제고시키기 위한 당적 지도를 일층 강화하는데 있다.

* * *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에 관한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실행을 위한 투쟁은 정권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 앞에 경제 조직자적 및 문화 교양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민 정권 기관들의 조직 지도 사업을 정치적 제 과업의 수준에까지 제고시킬 가장 중요한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앙 정권 기관의 각 부서들인 성 및 국들의 조직 지도 사업을 정치적 제 과업의 수준에까지 제고

시키는 문제는 곧 지방 정권 기관들의 지도 수준을 제고하며 당 및 정부 정책을 인민 대중 속에서 신속 정확히 실현시키는 중요한 관건으로 되는만큼 이 문제는 이 부서 내 당 단체들 앞에 항상 선차적인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당 단체들이 정권 기관들의 조직 지도 수준을 정치적 제고 과업의 수준에까지 제고한다는 것은 정권 기관들의 지도 사업에서 사무실적、관료주의적 방법을 퇴치하고 생생하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적 지도를 수립하며 개인의 책임성과 유일 관리제를 강화하며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검열이 그 기관 내의 지도 일꾼들의 중심적 과업으로 되도록 하며 사업상 결함들에 대하여 무자비한 비판과 자기 비판을 강력하게 전개하며 국가 법령과 결정들을 위반하는 현상과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권 기관 내 당 단체 사업의 중요한 내용이며 일상적인 투쟁 과업이다。

정권 기관에 대한 당적 지도는 그 기관 활동에 대한 결정적 력량으로 된다。

우리 당은 정권 기관 활동의 주되는 정책을 작성하며 정권 기관 내에서 사업하는 당원들에게 그 정책 실행에 대한 지도적 지시를 준다。

우리 당은 자기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정권 기관에 우수한 간부를 파견하며 당 및 정부의 지령 집행을 검열하며 정권 기관에서 사업하는 간부들에 대한 사상 정치 교양 사업을 강화하며 그들을 결함들과의 투쟁에로 궐기시키고 있다。 이 중요한 임무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정권 기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노는 것은 정권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이다。

일찌기 쓰딸린은 쏘베트 내 세포들의 과업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당 세포들은『쏘베트 기관들에서 쏘베트 질서의 엄수자로 되여야 하며 전 당의 생활로서 생활하여야 하며 당에게 쏘베트 및 경리 기관을 개선하며 더욱 간소화하며 주민과 접근시키는 것을 도와주며 그 기관을 성실하고 겸손한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권 기관 내 당 단체들은 정권 기관 내에 있는 자기 당원들을 통하여 기관 내 모든 활동을 일상적으로 당의 감시 하에 두며 정권 기관 사업을 적극 협조하여 주며 행정 사업을 꾸준히 개선 강화함에 노력할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정권 기관의 특수한 사업 조건들 때문에 생산 기업소들에서처럼 행정 관리 사업에 대한 당적 통제의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

물론 이것은 정권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이 해당 기관 내 사업 정형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든가

기관 각 부서 사업에서 발로되는 결함들을 묵과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또 부서들의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권 기관 내 당 단체들은 응당 기관 각 부서들의 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정권 기관 내 당 단체들은 행정 사업을 대행함이 없이 당 조직、정치 사업의 각종 방법으로 정권 기관 내 각 부서의 사업을 정치적으로 보장할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

김일성 동지는 당 단체들의 임무는 정권 기관들의 사업을 대행할 것이 아니라『그를 정치적으로 보장하여 주며 당의 력량을 적당히 포치하며 매개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조직함에 있다』라고 교시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타난 제반 사실들은 일부 정권 기관 내 당 단체들에서는 자기의 사업을 당적 원칙에서 옳게 조직 집행하지 못하고 행정 사업을 대행하고 있다는 것을 뵈여 주고 있다。 일부 국가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에서는 부서 사업들을 강화한다 하여 개별적 간부들을 무원칙하게 초급 당 위원회에 불러올리거나 심지어는 개별적 정무원들의 출장 보고를 일일히 받는 그러한 제도를 세우려고까지 시도하고 있다。

허용될 수 없는 다른 결함의 하나는 일부 국가 기관 내 초급 당 단체 회의들에서 채택된 결정들에 하부 기업소에 대한 자재 분배、인원 배치 등 행정적 분공들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권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일반적 호소로 되는 그러한 결정들만 채택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례를 들면 국가 기관 부서 내 질서가 문란하다 해서 초급 당 단체들이 결정서에 행정 책임자에게『질서를 세우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는 따위의 추상적 요구를 밝히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정권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이 기관의 활동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를 심의하든지를 막론하고 당 단체는 항상 기관의 기구와 전체 정무원、우선 당원들의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한 기초 위에서 분석적이며 실무적인 구체적 지도를 줄줄 아는데 있다。

그러기 위하여 정권 기관 내 당 단체들은 당 회의들에서 당과 정부의 지령을 실행함에 관한 기관(부서) 내 당원들의 과업들에 대한 기관 지도자의 보고를 청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고는 정권 기관 내 당 단체들과 당원들로 하여금 기관 전체 사업에 정통케 하며 기관 앞에 제기된 중요한 과업들의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한다。

정권 기관 내 당 단체들의 임무의 하나는 기관 활동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관 전체 혹은 개별적 부서들의 사업상 결함에 대하여 해당 상급 당 기관 또는 정권 기관 지도자들에게 정확한 신호를 주는데 있다。

그러나 일부 성 당 단체들의 사업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끔 대수롭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는 신호를 하지만 원칙적인 문제와 엄중한 결함들에 대해서는 그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당 단체들에서는 왕왕 결함들을 피상적으로 적발하는 데로부터 신호를 제때에 주지 못하거나 심중한 고려 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일들이 드물지 않게 있다。

기관의 사업상 결함에 대하여 신호한다는 것은 다른 방면으로는 기관 내에서 밑으로부터의 대중적 비판을 전개하며 실무적인 제의들을 지지하며 비판을 억제 억압하려는 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한다는 것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정권 기관들에서는 비판에 대담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책임 회피와 관료주의적 외곡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당 회의에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그러한 경향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일부 국가 기관 지도자들은 하부로부터의 비판에 대하여 꺼리며 그것을 기관 내에 불건전한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공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적지 않은 문제들을 비밀리에 해결하는 등으로서 비판의 활발한 전개를 방해하고 있다。 심지어 당 회의에서 비판에 대하여 「훌륭히」 접수하고도 후일에는 비판한 자에게 행정적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복수」하는 일까지 있다。

이러한 사실이 일부 성들에 있었는바 일부 당 및 행정 지도 일꾼들이 바로 그러하였다。 그들은 하부로부터의 비판을 간부들의 위신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비판하는 일꾼들을 당 및 행정적으로 추궁하였다。 이러한 공기는 기관 내 당원들로 하여금 현존한 결함과 관료주의의 온갖 발현들에 대한 투쟁을 장기간 전개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원들에 대한 옳바른 교양을 축진시킬 수 없게 하며 나아가서 상부에 대한 아첨을 조장시키리라는 것도 명백하다。 사실 어떤 간부들은 당 회의에서 기관 지도자를 비판하는 당원들을 중상하면서까지 기관 지도자에게 아첨을 부리며 기관 지도자의 『위신』을 추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성 당 단체는 세심한 주목을 돌리지 못하였다。

기관 내에서의 자기 비판 특히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정권 기관 내의 사업의 특수성을 구실로 비판자들을 억압하려는 이러 저러한 경향의 극히 사소한 기도일지라도 당 단체는 그를 결정적으로 배격 퇴치하여야 한다。 오직 기관 내에서 대담하고 원칙적인 비판을 고도로 전개하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만 사업상 결함들은 제때에 적발될 것이며 과오는 더욱 더 신속히 시정되며 사업은 보다 훌륭히 보장될 것이다。

기관 앞에 나서고 있는 주되는 과업들의 실행에로 당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며 각 부서 사업들에 깊이 파고 들어 내재하고 있는 결함들을 시정하는 것은 정

권 기관 내 당 단체들의 중요한 과업이다。

경험은 당 단체들이 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전체 활동과 부서 사업들을 파악하고 그의 기본 고리를 포착하며 내재하는 결함들과의 투쟁을 조직하며 기관 내에 비판이 강화되도록 당원들의 적극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는 그러한 곳에서는 기관 사업이 활기를 띤다는 것을 뵈여 주고 있다。

최근 평양 특별시 인민 위원회 각 부서 당 단체들에서는 一九五五년도 인민경제 계획 작성에 대한 문제, 행정 규률과 로동 규률 강화에 대한 문제, 정무원들의 실무 수준 제고에 관한 문제, 신소 청원에 관한 문제 등을 당 회의들에서 토의하고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이는 사업들을 조직하고 있으며 당 회의에서 당 및 국가 규률 위반자들과의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당 및 국가 규률을 일층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정권 기관 내 당 단체들은 기관 사업에서 발로되는 제반 결함들을 제때에 시정 퇴치하기 위한 투쟁을 대담하게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정권 기관 사업에는 엄중한 결함들이 계속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기관 내에는 여전히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들이 계속되여 인민 경제 계획 실행을 저해하며 사업을 재빠르게 제때에 문화적으로 처리할 대신에 굼뜨게 처리함으로써 정권 기관의 위신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사실이 드물지 않게 있다。

일부 국가 기관 내 초급 당 단체들은 적지 않은 일꾼들이 아직도 서류 작성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며 따라서 하부 기업소들에 대한 실무적이며 산 구체적인 지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을 근절시키지 않고 있다。 이리하여 빈번한 문서 왕래 때문에 국가 정무원들을 사무실에 얽매여 놓게 하는 한편 산하 기업소 일꾼들로 하여금 문서 처리 때문에 실지 생산 사업을 지도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일부 정권 기관들에는 아직도 근로자들의 요구와 청원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며 방문자들에 대하여 랭정한 취급을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당 단체들은 이러한 관료주의적 현상들을 근절하기 위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관료주의와의 투쟁은 다만 일반적 호소와 단순한 결의만으로 근절될 수는 없다。 그것은 또한 다만 문서 왕래를 감소시키거나 사람들을 친절히 응접하고 신소 편지에 대한 회답 송달 등을 제때에 하는 것으로서 근절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의 근절은 국가 기관 내 당 단체들이 계통적으로 완강하게 또 근기있게 결함의 구체적 표현들과 그 결함을 낳은 장본인들을 폭로하며 동시에 기관 부서 사업의 과학적 조직과 합리화, 결산과 통제, 집행 검열의 강화, 자기 비판과 특히는 밑으로부터의 비판의 강화 등의 방법으로 기관 사업을 강화하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하는 경우에라야만 가능하다。

례를 들어 인민들의 신소 청원 문제에 대하여 본다면 당 단체는 편지의 성격을 분석하며 편지에 서술된 결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밝혀 내며 기관 지도자들로 하여금 편지와 신소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며 그의 내용을 분석하며 정확한 정치적 평가를 내리여 충실하게 처리하도록 일꾼들을 교양하여야 한다。

진정한 인민 정권 기관으로서의 위신은 당의 지도에 의하여 인민 정권 기관 내에 새로운 인민적 질서와 규률을 확립함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일부 성내 부분적 부서 일꾼들은 자기의 협소한 개인 공명주의와 부서 본위 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국가 규률을 위반하고 있다。 일부 성의 지도에서의 무책임성으로 인하여 산하 일부 기업소들은 자기의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기업소들은 금액상 계획 실행을 구실로 품종별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여 타 기업소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또 허위적 계획 숫자를 조성하여 그의 숫자를 높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자재를 떼여 내여 예비를 두려하는 범죄적 사실, 혹은 성 기관 내에 제도와 질서가 확립되지 않음으로써 상 지시들을 개별적 국장들이 취소하고 자기의 지시를 내리는 등 사업에서의 무책임성과 책임 회피들이 발로되고 있는 사실, 그리하여 로동 규률은 문란하며 일부 일꾼들은 사상적 해이로부터 혁명적 경각성이 마비되는 데까지 이른 사실까지 발생시킨 것은 더욱 엄중하다。

기관 내에서의 이와 같은 무규률성과 무질서는 그 기관 내 당 단체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 당 단체에게는 무엇보다도 직무상 의무의 집행에 대한 당원들의 책임을 높이며 비당원 사무원들에 대한 그들의 영향을 강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기관 내 질서와 규률을 강화하며 전체 정무원들에게 당과 정부의 지령 또는 행정 기관의 명령 및 지시를 모범적으로 수행하며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창발성을 발휘하는 모범을 뵈여주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 과업은 당원들에 대한 당 단체의 영향이 강화되면 될쑤록, 매개 당원들을 당 단체 생활에 인입시키는 것이 더 잘 보장되면 될쑤록 더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국가 기관 내 당 단체들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는 국가 기관 내 일꾼들의 사상 정치 교양 사업의 강화이다。

옳게 조직된 맑쓰—레닌주의적 간부 양성은 국가 기관의 각 부분을 완비하며 당 및 정부의 정책의 성과적 수행을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정권 기관 내 당 단체들은 간부들의 맑쓰—레닌주의적 사상 리론적 교양 사업을 기관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직할 필요가 있다。

정권 기관 내에는 간부들의 수준의 차이와 그들의

각이한 직무들로 인하여 다양한 방법과 형식들로써 학습조를 조직하며 또 방조하게 된다。 즉 당원들을 당의 각급 교양망에서 학습시키며 선전원들을 위한 보충 강연과 쎄미나르 등을 조직하며 당 정책에 관한 문제들과 경제 리론의 중요한 문제들로서 강연회를 조직하고 여기에 권위있는 리론 간부들을 인입함으로써 일꾼들의 연구 사업에 방조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일부 당 단체들은 정무원들 속에서 맑쓰—레닌주의 사상 교양 사업과 경제 리론 학습을 원만하게 조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당 단체들에서는 정무원들의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들을 교양망에 망라시키고 있었는바 지난 학습 년도 기간에 발로된 바와 같이 이러한 당 단체들에서는 학습에 대한 당적 통제와 방조 사업도 미약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적지 않은 정무원들의 사상 의식의 장성을 돕지 못하고 있었다。

정권 기관 내 당 단체의 임무의 하나는 대중 정치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항상 주의를 돌리는데 있다。 정권 기관 내 당 단체들은 당면한 정치 문제, 자연 과학의 제 문제, 선진 국가들과 우리 나라의 문학 및 문화 예술 문제들에 관한 보고회와 강연회들을 조직하며 또 직맹 단체들에 의하여 조직되는 군중 문화 사업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지도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은 오늘 우리의 환경에서는 더욱 필요하다。 당 단체들이 그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계획적으로 훌륭히 진행한다면 전체 정무원들의 정신적, 문화적 요구를 보다 훌륭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 * *

정권 기관들에서의 당 사업의 개선은 시, 군 (구역) 당 위원회들의 지도에 크게 달려 있다。 시, 군 (구역) 당 위원회의 능숙한 지도는 정권 기관 내 당 단체들의 활동을 제고하며 그로서 그 기관 각 부서 사업을 현저히 개선하게 된다。

최근 평양시 당 위원회와 시내 각 구역 당 위원회들은 정권 기관 내 초급 당 단체 사업에 깊이 파고 들기 시작하였다。 준비된 시, 구역 당 간부들로서 지도 그루빠를 조직하고 일정한 기간을 통하여 검열 지도한 결과 긍정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동시에 시당 위원회는 성 당 단체의 사업 강화를 위하여 일정한 준비 밑에 성 당 위원회 위원장들을 위한 사업 경험 교환회를 조직하였는바 여기에서는 당 사업의 가일층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대책들이 강구되였다。

최근 성 당 단체들에서는 당원들의 학습 총화, 三월 전원 회의 문헌 연구, 당원들의 도덕적 품성 제고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시, 구역 당 위원회 책임 간부들의 직접 참가 하에 조직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기관 내

정무원들의 학습을 방조하기 위하여 시당 위원회는 유능하고 준비된 간부들로서 리론 문제에 관한 보충 강연, 쎄미나르 등을 계획적으로 조직 실시하고 있으며 맑쓰—레닌주의 야간 대학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 일련의 대책들은 성 당 단체들로 하여금 자기의 사업의 중심을 포착하고 기관 사업에 보다 능숙하게 접근하며 기관 내 당원들의 사상 정치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기관 내 전체 사업에 긍정적 작용을 주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 기관 내 당 단체들에 대한 지도 사업이 어디서나 다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구역 당 위원회들에서는 성, 중앙급 기관 내 당 단체 사업을 해당 기관 내 초급 당 위원회 위원장들에게만 위임하고 분세포들에 대한 필요한 지도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구역 당 위원회들에서는 이들 당 단체들은 「수준이 높은」 당 단체라는 일방적 견해로부터 성 당 위원회 사업에 대한 지도를 거의 방임하여 버리고 조직 문제나 제기되면 그것이나 처리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한 지도를 대치시키고 있다。

많은 경우에 구역 당 위원회들은 정권 기관 내 당 단체 실정과 수준에 알맞도록 당 단체 생활, 그의 강한 면과 약한 면, 그들의 결함, 그들의 축적한 경험들을 극히 세밀히 알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깊이 기관 내 사업에 파고 들어 가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형편들은 일부 초급 당 단체 책임자들로 하여금 아직도 당 사업 방법과 당 원칙들을 질지에 있어서 능숙하게 적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당원들의 사상 정치적 교양을 원만하게 조직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 군(구역) 당 위원회는 정권 기관 내 당 사업에 존재하는 약점과 결함들을 시급히 퇴치하며 정권 기관 내 초급 당 단체에 대한 계통적이며 보다 생생한 구체적 지도와 방조를 주도록 당 위원회의 지도 수준을 현저히 제고 하여야 한다。

시, 군(구역) 당 위원회들의 임무는 자기의 지도 자업을 정권 기관 내 당 단체들에게 접근시킴으로써 정권 기관 내 당 단체들의 사업 수준을 제고시키며 매개 당원들과 비당원 정무원들이 국가의 법령, 질서, 리익을 엄수하며 당과 정부의 결정들을 집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투쟁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는 데 있다。

당 정치 교양 사업의 개선 강화를 위하여

현 경 욱

조선 로동당은 새 형의 맑쓰—레닌주의 당이다。 맑쓰—레닌주의에 의하여 지도되는 우리 당은 사상 사업을 자기의 제一차적 과업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 당은 광범한 인민 대중 속에서 맑쓰—레닌주의 선전 사업을 일상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간부들과 전체 당원들의 사상—정치적 훈련과 맑쓰—레닌주의 교양에 심심한 배려를 돌리고 있다。

「만일 실무적 사업가들이 레닌주의를 연구하지 않고, 만일 그들이 레닌주의를 소유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만일 그들이 자기의 실제 사업을 필요한 리론적 준비와 련결시키려 하지 않는다면 어두운 밤에 손 내미는 격으로 사업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으로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 쓰딸린의 교시에 충실히 립각하면서 우리 당은 당원들의 정치 학습에 대하여 부단히 요구성을 높이고 있다。

당은 당원들의 맑쓰—레닌주의 정치 학습에 있어서 각급 교양망들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지도를 일상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당원들의 사상 정치적 리론 수준을 현저히 제고시키고 있으며 당을 조직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가일층 공고히 하고 있다。

* * *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사업은 우리 당 앞에 재롭고 방대한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이 과업의 성공적 수행과 우리 나라의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승리적 조건의 하나는 당 선전의 근본적 개선이며 그의 가일층의 강화이다。

당 단체들은 지난 학습 년도 기간에 당 선전을 개선하며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의 결정을 실행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지난 학습 년도 기간에 지방 당 단체들은

당원들의 정치 학습을 조직적으로 보장하였으며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 리론 학습에서 표현되는 형식주의적 경향들과 적극 투쟁함으로써 당 교양의 사상—리론적 수준 제고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 정치 교양 사업에는 아직도 수다한 결함들이 남아 있다. 많은 당 단체들은 아직도 당 교양에서 기본적 학습의 사상—리론적 내용에 대한 지도를 소홀히 하고 당 학습 지도를 단순히 선전원들에게만 일임한채 정치 학교와 크루쇼크들의 교수 사업 내용을 철저히 감독 및 검토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 단체들의 옳은 지도를 받지 못한 일부 정치 학교와 크루쇼크의 교수 사업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였으며 학습 제강은 산만하게 취급되며 당원들의 학습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심지어 당 단체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일부 선전원들은 교재의 내용을 외곡하며 학습 제강과 기본 참고서들의 본질적 내용에 엄격히 의거하지 않고 우연한 자료와 잡다한 내용들로써 교재를 일부 비속화하는 사실까지 있였다.

정치 학교와 크루쇼크의 교수 사업에서 발생된 이와 같은 현상들은 결국 당원들의 사상—리론적 장성에 있어서 더 거둘 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에게 당과 정부의 정책을 심오하게 체득할 수 있는 충분한 방조를 주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당 단체들은 교수 사업의 사상—리론적 수준을 제고할데 대하여 심중한 대책을 취하지 않았으며 당 회의들에서의 교양 사업 토의는 학습의 질에 대한 검토보다 외면상 문제에 치중하며 당 학습에 대한 당 기관들의 일상적 지도 사업도 주로 조직적 성격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귀착시키고 정치 학교와 크루쇼크의 교수 내용을 깊이 파고 들어가 구명하며 선전원들의 사업에 정당한 방향을 줄데 대하여서는 주의를 적게 돌리였다.

선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에 심중한 주의를 돌리지 않음으로써 적지 않은 당 기관들은 당 학습의 교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 조건의 하나인 선전원들과의 사업도 등한시하였으며 그들의 정치—리론적 수준 제고와 방법상 지식을 체득시키기 위한 선전원 쎄미나르 사업들도 개선하지 못하였다. 시, 군 당 위원회들의 선전원 쎄미나르들은 다수 경우에 형식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여기에서는 리론적 및 방법적 문제들에 대한 활발한 토론들이 전개되지 못하였으며 선전원들의 창조적 사업들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다.

다수 시, 군 당 위원회들의 선전원 쎄미나르에서는 교재를 연구하기 위한 강연들이 조잡하게 진행되였으며 그의 중심 사상들이 심오하게 해명되지 못하였으며 교재를 청강자들에게 해설할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설

명되지 못하였다. 선전원 쎄미나르에 대한 이와 같은 피상적 지도는 선전원들의 학습 지도에 대한 구체적 방조로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리론적 및 방법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며 결국은 선전원들의 학습 지도 사업을 개선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많은 시, 군 당 위원회들은 선전원 쎄미나르 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효과적인 대책들을 취하지 않았으며 쎄미나르 지도 사업들을 준비되지 못한 일꾼들에게 무책임하게 위임하였으며 당 위원회들은 쎄미나르 학습의 내용에 대한 지도를 등한히 하였다.

결함의 다른 하나는 당 단체들이 간부들과 자습 당원들의 맑쓰—레닌주의 리론 학습을 형식적으로 지도하였으며 그들에 대한 구체적 지도와 방조 사업들을 보장하지 못한 그것이다. 따라서 간부들과 자습 당원들의 맑쓰—레닌주의 리론 학습은 다수 경우에 형식적으로 진행되였는바 많은 자습 당원들은 일정한 체계와 구체적 계획도 없이 막연한 자습들을 이것 저것 진행하였으며 따라서 이러한 간부들은 현행 정치 문제들조차 정상적으로 학습하지 않았다.

맑쓰—레닌주의 리론 자습에서 나타난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일부 우리 간부들로 하여금 맑쓰—레닌주의 리론을 충분히 소유하지 못하고 일상적 실제 사업에서 그들이 리론에 의하여 지도될 줄 모르며 당의 대내 대외 정책을 충분히 리해 못하고 방향을 정할 줄 모르는 맹목적 사무주의자들로 전락되여 가게 하였다.

그러나 많은 당 단체들은 간부들과 자습 당원들의 맑쓰—레닌주의 리론 학습을 강화할데 대하여 심중한 고려를 돌리지 않았으며 이들의 자습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며 체계적으로 방조할 대신에 형식적인 일률적 취급과 관료주의적 독촉의 방법에 의하여 자습 당원들의 학습을 지도하려 하였다.

일부 당 기관들은 자습 당원들에 대한 방조 사업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개별적 꼰쑬따찌야와 같은 유효한 방법들을 전혀 무시하였으며 강연과 쎄미나르 사업들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지 않은 결과 이 사업들을 아주 불충분하게 조직하였다.

각급 당 단체들 앞에는 당 교양 사업에서 나타난 상술한 결함들을 시급히 시정 퇴치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들을 강구 실시함으로써 당 정치 교양 사업을 당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할 절실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 * *

당 선전에서 주되는 것은 그의 질——사상적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 교양의 사상적 내용과 학습의 질에 관한 당 단체들의 지도는 당 교양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그러나 약간의 당 단체들은 당 교양의 령역에서 일정한 조직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맑쓰—레닌주의적 교육을 본질적으로 잘 지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 교양의 질 제고를 위하여 응당 돌려야 할 주의를 돌리지 않고 있다.

정치 교양의 질을 제고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당 단체들이 당 정치 학습의 사상적 내용에 대한 배려를 표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일성 동지는 당 정치 학습의 사상적 내용을 강조하면서 맑쓰—레닌주의의 교양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은 맑쓰, 엥겔쓰, 레닌, 쓰딸린의 저서들을 맹목적으로 몇천권, 몇만권 읽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맑쓰—레닌주의의 교양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당원들에게 맑쓰—레닌주의적 사상 관점, 그의 방법 및 혁명적 실천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선진 혁명 당들의 경험을 소유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 정세에 부합되게 맑쓰—레닌주의를 적용할 줄 알게 하며 맑쓰—레닌주의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군사, 정치, 경제 정세들을 분석할 줄 알게 하며 분석에 기초하여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까지 예견할 줄 알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쳤다.

당 정치 학습이 오직 이러한 방향에서 진행되는 때에라야만 당원들과 간부들의 옳은 정치적 교양을 보장할 수 있다.

당 단체들과 선전원들은 다만 청강자들에게 일정한 지식 혹은 력사적 제 사실의 총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청강자들을 당과 정부의 정책을 심오하게 리해시키며 국제 국내 정세의 제 문제에 대한 훌륭한 방향을 잡아 주며 제기된 과업 수행에로 대중을 조직 동원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당원으로 준비시키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모든 당 단체들과 선전원들이 다 같이 이렇게 당 정치 교양 사업을 지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 중앙 위원회는 강연 선전, 콘쑬따찌야, 정치 학교 및 크루쇼크들에서의 학습들이 낮은 사상—리론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당사 연구 크루쇼크들과 자습 당원들의 학습에서 맑쓰—레닌주의의 고전 저서들에 대한 형식적인 학습 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당 교양망에서의 학습은 우리 앞에 제기된 과업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 활동과 반드시 결부되여야 하며 학습에서의 일체 형식주의, 교조주의, 독경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 선전 사업에서 흥미 있는 제마가 무미 건조하게 설명되며 선전원들이 단순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에 대하여 청강자들이 또한 단순하게 대답하는 것으로 학습을 대치하는 그러한 사실들은 당 정치 교양 사업에서 긴급히 청산하여야 할 중대한 결함이다.

청강자들에게 연구하는 저서의 사상적 내용을 습득하도록 할 대신에 왕왕 그들에게 주로 개별적 공식과 명제를 암송하며 수 많은 년대와 숫자를 기억할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선전원들이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선전원들은 많은 경우에 연구되는 리론적 문제들에 대한 산 담화와 창조적 토론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학습에서의 산 담화와 창조적 토론은 당원들로 하여금 정치 학습에서 흥미를 느끼게 하며 동시에 정치 학교들과 크루쇼크들에서의 학습의 질을 제고시킨다.

사실에 있어서 정치학습에 대한 당원들의 흥미를 일으킨다는 것, 이것은 곧 정치 학습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당 정치 학습에서의 흥미의 제고는 학습 지도에 대한 선전원들의 능숙한 수완없이는 보장될 수 없다.

다만 높은 사상적 수준에서와 산 담화, 그리고 창조적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내용있는 그러한 학습만이 당원들에게 학습에 대한 흥미와 리론에 대한 취미를 가지게 하며 학습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게 한다.

그러므로 당 교양망에서 당 단체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당의 모든 교양망들에서의 학습의 사상—리론적 수준의 가일층의 제고이다. 당 단체들은 일부 선전원들의 맑쓰—레닌주의 리론의 설명에 대한 독경식 독단적 태도를 근절하며 당원들이 맑쓰—레닌주의를 확고하고 심오하게 습득하게 하며 맑쓰—레닌주의의 리론에 대한 창조적 태도를 견지하도록 교양하며 맑쓰—레닌주의의 리론에 대한 온갖 외곡과 비속화에 대한 비타협적 정신으로 당원들과 간부들을 교양하여야 한다.

맑쓰—레닌주의를 학습하면서 당원들과 우리 간부들은 반드시 세계를 개혁하는 백전 백승의 맑쓰, 엥겔쓰, 레닌, 쓰딸린의 혁명적 학설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맑쓰주의의 고전적 명제들을 새로운 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하는바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당원들과 간부들이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을 지도할 수 없으며 혁명의 승리에 대한 신심과 전망을 가질 수 없다.

당 교양 령역에 있어서의 각급 당 위원회들과 당 단체들의 임무는 금후 정치 학교와 크루쇼크들에서 교수 사업에서의 일체 산만성과 무질서를 제거하며 제강과 교재의 중심 내용으로부터의 리탈 및 외곡 등 당 교양의 사상적 내용을 저해하는 온갖 현상들을 반대하여 무자비하게 투쟁함으로써 당원들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그들에게 맑쓰—레닌주의의 혁명적 사상의 본질을 파악케 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당 학습을 지도하는데 있다.

당 정치 학습의 고상한 사상적 내용과 수준은 선전원들에게 달려 있으며 맑쓰—레닌주의의 고전적 로작들의 명제에 대한 그들의 심오한 해명의 수완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단체들의 교양 사업 지도에 있어서 가장 주되는 임무의 하나는 선전원들의 선발과 교양이며 그들의 사업에 대한 일상적 통제와 리론 및 방법적 방조이다. 리론적으로 준비되고 당의 정책을 파악하고 맑쓰—레닌주의 사상 선전을 자기의 영예로운 사업으로, 고상한 의무로 간주하고 있는 당원들을 선전원 대렬에 인입 망라하여 그들과의 일상적 사업을 잘 전개하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만이 당 단체들은 교양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당 중앙 위원회는, 당 선전의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각급 당 위원회들은 금후 선전원들의 구성을 더욱 개선하며 당 선전 진영에 지도적 간부들을 광범히 망라시킬데 대하여 주저하는 그러한 경향들을 결정적으로 청산하며 금년 총화 기간에 전체 교양망들을 재검토하고 우수한 당 및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간부들, 교원들, 인테리들, 우리 당의 유력한 선전 지도 력량들을 계속 당 학습 지도에 최대한으로 인입시킬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지시하였다.

지난 기간에 일부 당 단체들은 선전원들과의 사업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않았으며 일부 시, 군 당 위원회들은 극히 준비되지 못한 당원들에게 학습 지도를 위임하였고 선전원들의 선발 배치와 같은 그러한 중요한 사업을 초급 당 단체들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방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전원들은 당의 사상 선전의 지주이다. 따라서 선전 사업은 반드시 당 단체의 우수한 력량들인 리론적으로 잘 준비되고 사상적 오류와 외곡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당원들에 의하여 수행되여야만 한다. 당 단체들에게는 선전원들의 리론 및 방법상 준비의 가일층의 향상에 대하여 백방으로 배려하며 방조할 의무가 있다.

선전원들의 준비와 그들에 대한 당 단체들의 방조의 기본 형태는 시, 군 당 위원회들에서 조직 진행하는 선전원 쎄미나르이다. 선전원 쎄미나르는 응당 창조적으로 진행되여야 하며 그의 기본 내용으로 되는 것은 학습 제목의 연구, 학습 제목 및 방법 문제에 대한 강연, 리론 및 방법적 문제들에 대한 활발한 토의와 경험 교환이다.

그러나 모든 쎄미나르가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많은 부분이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시, 군 당 위원회들은 선전원 쎄미나르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여야 할 당면 학습 제목에 대한 강연을 진행할 대신에 몇몇 선전원들이 작성하여 온 꼰쓰뻭트를 검열하거나 때로는 학습 제목에 대한 아무런 토론과 연구도 진행함이 없이 쎄미나르 지도자의 불충분한 강연 원고를 선전원들에게 기계적으로 전달 필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쎄미나르가 선전원들을 옳게 방조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쎄미나르에서의 결함들 특히는 그의 사상적 내용의 결여는 불피코 크루쇼크와 정치 학교에서의 학습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또한 초래하고 있다.

이 모든 결함은 무엇보다도 우선 일부 시, 군 당 위원회들이 아직도 선전원 쎄미나르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며 쎄미나르 지도를 준비된 당 간부들과 리론 간부들로 보장할 대책을 강구 실시하지 않는데 있다.

당 교양의 질과 사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 단체들은 특히 선전원 쎄미나르 사업을 가일층 개선하며 그의 수준을 부단히 제고할 필요가 있다. 쎄미나르에서는 교재 및 방법 문제에 대한 강연이 정상적으로 있어야 하는바 교재에 대한 강연에서는 앞으로 정치 학교와 크루쇼크에서 연구될 당면 학습 제목의 기본 사상과 내용을 심오하게 밝히며 학습 재료를 어떻게 현실과 그리고 당의 실천적 제 과업과 련결시켜 청강자들에게 파악시킬 것인가를 해명하며 그것을 또한 실제 자료로써 증시하며 가치 있는 방법상 조언을 주어야 한다.

쎄미나르 학습의 고상한 사상 수준을 보장함에 있어서와 선전원들의 교양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은 연구 제목에 대한 선전원 자신들의 충분한 준비이다. 따라서 당 단체들은 선전원들 자신이 쎄미나르 학습 제목에 대하여 심오하게 연구하며 정치 학교와 크루쇼크에서의 당면 학습을 충분히 준비하도록 그들을 구체적으로 방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라야만 쎄미나르 학습은 열성적으로 진행되며 리론과 방법 문제들에 대한 활발한 토론들이 있게 되며 쎄미나르 학습은 창조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선전원들의 쎄미나르에서는 선전원들의 학습 지도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담화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해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문학 예술 작품들과 직관물들을 어떻게 리용할 것인가 등등의 학습 방법 지도의 제 문제에 대한 강연들이 진행되여야 하며 선전원들의 우수한 학습 지도 경험과 방법들을 종합하며 또 보급하기 위한 경험 교환 사업도 진행되여야 한다. 당 단체들은 선전원들의 개인적 경험은 그것이 집단적 사업의 경험으로 검열되며 풍부히 되는 때에라야만 비로소 가치있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도, 시, 군(구역) 당 위원회들은 당 교양의 질과 사상 수준을 제고함에 보다 주의를 집중하면서 선전원들과의 사업에 존재하는 모든 결함들을 급속히 청산하기 위하여 책임 일꾼들을 쎄미나르 지도에 직접 참가시키며 현지에서 선전원들을 진실로 잘 방조하도록 그들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간부들의 맑쓰—레닌주의 사상 의식의 제고는 당 단체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그것은 어떤 일군을 막론하고 그들에 대한 당적 교양이 없이는 또 맑쓰—레닌주의 리론의 체계적인 소유 없이는 그가 맡은바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 중앙 위원회는 이미 간부들의 정치 리론 학습을 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매일 로동 시간 외에 두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학습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간부들을 위한 쎄미나르 학습을 정상적으로 실행할 것을 당 단체들에 위임하였다。

그러나 간부들의 정치 리론 학습과 그에 대한 당 단체들의 지도와 방조 사업은 어디서나 다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자기의 사상 리론 수준 제고에 노력하지 않으며 정치 리론 학습을 「포기」하는 그러한 일군들도 적지 않다。 자습 당원으로 자칭하는 이러한 일군들은 보통 당면한 사업이 바쁘다는 것을 구실로 삼고 자기 학습을 게을리 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의 사상적 장성과 무장、 그리고 정치적 단련에 무관심한 일군들은 불피코 맡은바 사업을 맑쓰—레닌주의 원칙에 립각하여 옳게 분석 평가하지 못할 것이며 일정한 정치적 주견이 없이 맹목적으로 사업하는 보잘것 없는 실무주의자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우리의 적지 않은 간부들은 학습을 형식적이며 또 교조식으로 진행하는 그러한 버릇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적지 않은 간부들이 일정한 리론적 체계와 학습 계획이 없이 이것 저것 닥치는대로 학습함으로써 어느 한권의 정치 및 리론 서적도 끝까지 연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는 리론을 현실과 결부시켜 창조적으로 학습할 대신에 단지 개개의 글줄을 송독하거나 명제를 암송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당 위원회들과 그 지도 일군들은 간부들의 학습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지 않고 방임하여 두고 있다。또 일련의 도、시、군 당 위원회들은 간부들의 학습에 대한 지도 방조 사업을 극히 표면적이며 관료주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부 시、군당 위원회들에서는 간부들에 대한 지도 방조를 단지 자습 계획서의 접수와 자습 제목 선택에 대한 일률적인 지시로써 국한시키고 있는바 그러한 례들이 그리 드물지 않다。 학습에 대한 당 위원회들과 그 지도 일군들의 이러한 무책임한 형식적、관료주의적 지도는 더는 허용될 수 없다。

간부들의 학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자습에 기초한 쎄미나르 학습이다。 그러나 실정은 적지 않은 당 단체들에서의 쎄미나르 학습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어 있으며 적지 않은 결함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간부들을 위한 쎄미나르 학습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자습한 내용을 더욱 심오하게 소유하도록 방조하며 그들의 학습 내용을 지도 검열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간부들을 위한 쎄미나르에서 중요한 것은 쎄미나르 참가자들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일상적인 자습의 강화이다。 당 단체들은 사전에 학습 제목을 간부들과 자습 당원들에게 예고하여 주며 그에 따르는 참고 문헌과 보충 자료를 제시하여 주어 매개 간부들과 자습 당원들이 충분한 준비 밑에 쎄미나르에 참가하도록 방조하여야 한다。

쎄미나르 학습의 성과는 쎄미나르 학습 제목의 선택에 적지 않게 관계된다。 쎄미나르 제목은 응당 간부들과 자습 당원들의 연구 제목과 련결되여야 하며 맑쓰—레닌주의 리론 문제들과 함께 당 정책 및 현행 정치 시사 문제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간부들과 자습 당원들의 학습의 개선 강화는 이 사업에 대한 당 위원회와 그 책임 일군들의 배려와 간부들 자신의 노력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모든 간부들은 례외 없이 자기의 사상 정치 수준 제고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당 단체들은 금후 간부들과 자습 당원들에 대한 지도 사업에서 그들의 자습을 저해하는 일률적 취급 방법과 온갖 형식적、관료주의적 방책들을 결정적으로 근절하며 매개 자습 당원들의 수준과 요구를 참작하여 그들에 대한 개별적 지도를 보장하며 그들의 자습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조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도、시、군 당 위원회들에게는 당 도서실의 역할을 제고하여 자습 당원들을 위한 꼰쑬따찌야와 강연 쎄미나르 및 담화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그의 질과 사상 리론적 내용을 더욱 개선할 의무가 있다。

도、시、군 당 위원회들은 금후 강연 선전 사업의 규모를 더욱 확장하며 당원 대중 속에서 맑쓰—레닌주의 리론 문제들과 당의 대내 외 정책 문제들에 대한 강연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간부들과 당원들의 장성하는 리론적 및 정치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강연 선전의 내용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강연 선전의 사상—리론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 기관들은 금후 강연의 사상적 내용에 대한 당적 감독을 실시하며 직외 강사들의 구성을 질적으로 개선하며 그들과의 일상적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 * *

당 단체들 앞에는 당 교양 령역에서의 새 학습 년도가 박두하였다。 따라서 당 단체들 앞에는 새 학습 년도 준비 사업에 만전을 기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새 학습 년도에는 국어 학습 크루쇼크에 망라되였던 당원들의 다수가 정치 학교에서、일부는 당 강령 규약 연구 크루쇼크에서 학습하게 될 것이다。

당 강령 규약 연구 크루쇼크에 망라되였던 비당원 민청원들은 새 학습 년도부터 민청 교양망에서 학습하게 될 것이며 당원인 청강자들의 대다수가 크루쇼크에서 기본 교재(당 강령 규약 연구 크루쇼크용 참고 자료)에 대한 학습을 완필함과 관련하여 새 학습 년도에 정치 학교에서 학습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당 중앙 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생산 직장 및 사무 직장들에서는 민청 생활에 참가하지 않는 일부 비당원 열성자들이 당 교양망에의 참가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들을 적당한 교양망에 망라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당 단체들은 개별적 청강자들의 준비 정도와 구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그들의 체계적 학습이 보장되도록 류의하면서 이들을 해당한 교양망에서 학습하도록 하는 사업을 무엇보다 심중히 진행하여야 한다.

새 학습 년도에 당 정치 교양 사업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당 단체들은 선전원들을 일제히 재 검토하여야 하며 준비되지 못한 일부 선전원들을 당과 국가 기관의 지도 간부들과 준비된 교원들, 당원 인테리들, 즉 우리 당의 가장 자격있는 선전 간부들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도, 시, 군 당 위원회들은 선전원들의 재 교양을 위한 사업들을 옳게 조직하여야 하며 당 도서실들에서는 직외 강사들과 꼰쑬딴트들의 경험 교환회와 함께 자습 당원들의 학습 경험 교환회도 성과있게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당 교양 체계에 있어서 새 학습 년도 준비 사업의 성과적 진행은 당 선전 사업의 가일층의 강화와 우리 간부들과 모든 당원들의 정치적 및 리론적 준비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며 당 정치 교양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게 할 것이다.

* * *

당을 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상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상 사업은 우리 당 사업에 있어서 언제든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은 또한 우리 당의 관심의 중심으로 되고 있다.

사상 사업의 중요한 목적은 김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근로자들에게 맑쓰-레닌주의적 혁명 의식을 배양시키는 것이다』. 맑쓰-레닌주의 사상은 오늘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발전되고 강화되고 있으며 그것은 전 세계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사상으로 되고 있다.

지구상에서 사회주의적-의식의 장성과 맑쓰-레닌주의 사상의 승리적 진출은 죽어가는 자본주의 설유자들의 야수적 발악을 환기시키고 있다. 민주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자본주의의 사상적 투쟁이 오늘과 같은 그러한 가혹한 성질을 띠여 본 때는 일찌기 없었다.

사상 사업의 강화가 당의 전면에 나선 현 시기에 있어서 우리 앞에는 사상 사업을 과소 평가하며 그것을 차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려는 그러한 유해한 현상들을 근절하며 사상적 오류에 대한 무관심한 그러한 경향들과의 결정적 투쟁을 전개하며 우리 일꾼들의 사상 정치적 수준을 현저히 제고시켜야 할 중대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의 과업은 사상 사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함들을 시정 퇴치하고 사상 사업을 정세가 요구하는 정치적 임무의 수준에까지 제고시킬 것을 요구한다.

오늘 우리 앞에 제기되는 과업은 방대하며 그 규모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다. 이 거대한 과업의 실현은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의 사상적 준비 여하에 달려 있으며 당 단체들의 사상 사업 강화에 달려 있다.

『국가 사업과 당 사업의 어떤 부문이나 할 것 없이 그 일꾼들의 정치 수준과 맑쓰-레닌주의적 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업 자체가 더 높아지고 성과적이며 사업의 결과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될 것이요, 그와 반대로 일꾼들의 정치적 수준과 맑쓰-레닌주의적 의식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업에서 파탄되고 실패할 수 있으며 일꾼 자신들이 천박해지고 인색한 안전리익의 사무주의자로 타락할 수 있으며 변질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쓰딸린)을 당 단체들과 당원들은 더욱 명심할 필요가 있다.

맑쓰-레닌주의 앞에는 극복못할 요새가 없다. 그것은 우리의 온갖 투쟁에서의 승리의 힘의 원천이다.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이 맑쓰-레닌주의를 철저히 소유하는 한 우리는 자기 앞에 나선 여하한 난관과 애로라도 극복하지 못할 것은 없다. 오직 맑쓰-레닌주의의 철저한 소유, 당과 정부 정책의 옳바른 리해—이것만이 우리 당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의 정치-정신적 통일을 가강히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승리를 보다 튼튼히 담보할 수 있다.

기본 건설장 내 초급 당 단체

김 형 섭

오늘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와 전체 인민 앞에는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며 국방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며 공화국의 민주 기지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의 위업을 달성하는 력사적인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전후 우리 앞에 제기된 이 방대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과업을 실천함에 있어서 인민 경제에서의 기본 건설 부문 사업은 현 계단에 있어서 선차적인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의 기본 건설은 생산성, 류통성, 소비성을 띤 인민 경제의 각 부문의 고정 재산의 증가이며 재생산이다. 고정 재산의 재생산은 고정 재산의 신축, 개조, 보수 및 복구 등을 포함하는바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고정 재산을 복구 및 확장하는 방대한 기본 건설 사업의 성과적 진행 여부는 우리의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의 성과 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최근 二—三년 기간에 수백억 원의 자금을 기본 건설 부문에 투자할 것을 예견하고 있으며 우리 당은 이 부문에 심중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 * *

기본 건설의 임무는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및 국방 등 각 방면의 건설 임무와 호상 밀접히 련결된다. 기본 건설의 가장 일반적인 임무는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고정 재산의 확대 재 생산을 보장하며 인민 경제 고정 재산의 새로운 균형을 조성하며 고정 재산의 기술 수준을 제고하는 데 있다. 기본 건설은 그가 가지는 자체의 이 중요한 임무로부터 출발하여 항상 우리 앞에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였으며 또 되고 있다.

우리들은 해방 후 일제가 파괴하여 놓은 수풍 발전부를 비롯한 수 많은 산업 운수 시설들을 복구 건설하였으며 평양 방직 공장, 남포 유리 공장을 비롯한 수 많은 공장들을 신설 확장하였으며 모란봉 극장, 종합 병원, 김일성 종합 대학을 비롯한 수 많은 웅대한 건물들을 건축하였으며 조국 해방 전쟁 기간에 있어서도 회천 자동차 부속품 제작 공장을 비롯한 기타 수 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건설하여 전선과 후방의 수요를 보장하였다.

전후에 있어서는 금년 상반년만 하여도 황해 제철소, 성진 제강소, 흥남 비료 공장, 본궁 화학 공장, 남포 유리 공장, 남포 제련소, 평양 방직 공장, 회천 기계 제작 공장, 회천 자동차 부속품 제작 공장, 승호리 쎄멘트 공장 등을 비롯하여 九〇개소 이상의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 혹은 신설하여 벌써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모란봉 극장, 종합 병원을 비롯한 수 많은 건물들을 신축 또는 복구하였으며 평양시를 비롯한 수 많은 도시와 농촌들에서 새로운 시설들과 주택들을 건설하였다. 이와 같이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본 건설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에게는 기본 건설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또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객관적 조건과 가능성들이 있었으며 또 있다. 즉 당과 정부와 수령의 정확한 령도, 근로 대중의 애국적 열성, 기본 건설에서의 고귀한 경험, 형제적 국가들의 물질—기술적 방조, 기타 우리의 풍부한 자연 부원 등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업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기본 건설 사업에 있어서도 그 성과 여부는 건설 기관들과 그 부문 내 매개 당 단체들과 그 지도 일군들이 『국가의 주인답게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 모든 유리한 조건들과 가능성들을 어떻게 잘, 어떻게 신속하게 우리 국가 인민 생활의 현실성으로 전변시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김일성).

특히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은 건설 기관들의 기능을 백방으로 제고하며 트레스트들의 사업을 최단 기간 내에 현저히 개선 제고하며 건설장들에서 근로 대중의 적극성과 열의를 발양시키며 그를 실지 사업에 조직 동원할 중요한 임무들을 지니고 있는 것만큼 기본 건설장들에서 경제 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 보장하는 당 단체들의 조직 동원적 기능의 가일층의 강화가 요구되는바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의 정치적 지도 여하는 곧 우리의 건설 사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초급 당 단체들은 거의 모든 트레스트들과 건설 관리소들에 조직되여 있으며 당원들의 수효도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당 단체들이 조직적, 사상적으로 강화되고 그의 전투력도 현저히 제고되였다.

이 일련의 건설장들의 당 단체들은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을 능숙하게 결부시키면서 현재 자기 앞에 제기된 긴급한 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관리 측 활동에 대한 당적 통제의 기능을 더욱 더 충분히 발휘하고 있으며 건설 계획의 실현과 그것을 위한 공고한 생산—기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기본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은 당 조직 사업과 당 정치 사업의 강화, 건설에 대한 경제적 지도 수준의 제고, 생산 예비력들의 충분한 리용, 대중적 증산 경쟁 운동의 전개 등 건설 계획의 제반 당면한 임무들을 완수할 데 대한 응당한 지도를 원만히 주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본 건설 사업에서 허다한 결함들을 발생시켜 건설의 속도와 질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인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에 막대한 지장과 손실을 주고 있다.

기본 건설 사업에서의 이 일련의 엄중한 결함들은 김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기본 건설 부문에서 청부식 사업 작풍과 무질서한 상태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건설 부문 일군들이 건설 속도를 보장함에 있어서 관심이 매우 희박한데서 발생되고있다.

이러한 실정은 특히 기본 건설장들에서 사업하는 당 단체들 앞에 최단 시일 내에 이러한 결함들을 시정 퇴치하고 건설의 속도와 그의 질을 보장하여야 할 절박한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건설의 속도와 그의 질을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은 기본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의 중요한 과업이다. 건설장들에서의 건설의 속도와 시공의 질적 보장은 당 단체들이 건설장들에서 우선 해당한 설계 예산 문건에 의거하여 시공을 계획적으로 정확히 보장하도록 현장 관리 일군들과 전체 로동자들에게 요구성을 높이며 건설 행정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지도 검열을 강화하는 데서 달성된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 규모적 공사들은 현존하는 모든 력량과 가능성을 총 동원하며 건설비의 저하, 계획의 량적 및 질적 지수의 완수, 건설 속도의 현저한 촉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만큼 당 단체들의 일상적 지도와 방조와 통제 없이는 건설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은 일부 건설 일군들이 시공을 설계 없이 주먹치기로 진행하거나 또한 설계가 있어도 『시공 기일이 급하다』느니, 『자재와 로력이 부족하다』는 등 이런 또는 저런 구실로 설계 및 시공 규정을 란포하게 위반하고 공사의 질을 고려함이 없이 날림식으로 시공을 진행하여 건물의 영구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제때에 적발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얼마 전에 국가 건설 위원회 산하 중앙 제三 건설 트레스트 당 단체들에서는 건설장에서 일부 현장 관리 일군들이 설계를 무시하고 트라스 공사를 자의대

로 변경시킨 사실을 제때에 적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중앙 제一 건설 트레스트 당 단체는 건설 일군들이 벽돌 축조를 날림식으로 진행한 결과 일부 구조를 재시공하지 않으면 안될 엄중한 현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때에 적발 시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무책임하고도 날림식인 시공은 중공업성을 비롯한 일부 성(국)들의 기본 건설 사업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되였던 것이다.

기타 적지 않은 건설 기관들과 트레스트들에서는 주밀한 시공 계획이 없이 사소한 문제에만 구애되여 사무실에 앉아서 닥치는대로 일하며 시공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로동자들의 작업 조건과 기술적 대책은 강구하지도 않고 작업의 량으로써 공사를 보장하려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함들은 건설장들에서 사업하는 당 단체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경제 사업을 지도 보장하려 하며 건설 일군들이 하자는대로 하는 데서 적지 않게 발생되였던 것이다.

건설장 내 당 단체 사업은 건설 현장에서의 사업이다. 건설장들에서 전개되는 모든 창조적 활동들은 당 단체들의 중요한 관심사로 되여야 한다. 당 단체들은 건설의 속도와 그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 건설의 공정 계획 작성에 당적 주목을 돌려야 한다. 당 단체들은 건설 일군들에게 공정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트레스트의 력량을 구체적으로 료해한 기초 위에서 예견성 있게 전반적 공정 순위를 설정하며 현존 력량을 계획적으로 호상 긴밀한 련계 밑에 유효 적절하게 동원하여 로력, 자재, 자금의 절약을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공정 계획은 건설 공사의 전반적인 순위를 제시하며 그의 방향과 진도를 예견하는 것만큼 이것 없이는 건설의 질과 속도를 보장할 수 없으며 공사 진행에 대하여 정확한 지도를 줄 수 없다. 공정 계획의 정확한 작성에 대한 지도와 그의 구체적인 파악은 건설장 내 당 단체들과 그 지도 일군들에게 공사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를 줄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그러나 일부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은 건설의 정확한 공정 계획 작성에는 심중한 고려를 돌림이 없이, 또 공정 계획에는 관계 없이 건설의 기간 단축에만 몰두한 남아지 목전의 말초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사업함으로써 귀중한 로력과 자금과 자재를 랑비하며 공사의 파동성을 조성하며 나아가서 건설의 질과 속도를 보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련의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은 건설장들에서 지도 일군들이 공정 계획이 없이 시공한 결과 기본적인 건설 대상에 건설 력량을 집중적으로 동원할 대신에 차요적인 건설 작업에 력량을 분산시킴으로써 어느 하나의 건설 대상도 성과 있게 건설하지 못하며 또 능

히할 수 있는 기계화도 예견하지 못하는 데서 작업에서 비조직적이며 비능률적인 결과를 발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은 이러한 결함들을 시급히 시정 퇴치하고 시공의 진도를 촉진시키며 그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 일군들에게 응당 설계와 설비 기자재들을 공급 보장케 하며 그러한 기초 위에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공정 그라휘크를 작성케 하여야 하는바 당 단체들은 공사 진도를 세밀하게 장악하고 계획 집행을 강력히 통제하여야 한다。설계의 정확한 실현을 위하여 당 단체들은 반드시 시공에 대한 엄격한 검열과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 도중 검열 사업을 계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기본 건설의 속도를 촉진시키며 건설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는 기본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의 중요한 과업이다。건설 속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로동 생산 능률을 부단히 제고하여야 한다。그러나 일부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은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함으로써 건설의 속도를 촉진시킬 데 대하여 적게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당 단체들이 사업하는 건설장들에서는 왕왕 시간외 로동과 지나친 로동 강도의 제고로써 건설의 속도를 촉진시키려 하고 있으며 따라서 로동자들의 힘드는 로동을 경감해 주지 못하고 있다。

만일 건설장 내 당 단체들과 그 지도 일군들이 건설 현장과 로동자들 속에 진정으로 침투되여 있고 건설 사업에 대하여 심각하게 책임을 느끼며 시공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한다면 건설장들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할 수 있는 온갖 가능성과 제의와 발기들을 능히 포착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다。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건설 속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조건은 건설장들에서의 작업의 기계화, 설비 리용률의 최대한의 제고, 높은 로동 정량의 창설과 그에 기초한 정확한 도급 임금 제도의 실시, 로력 조직의 합리화와 증산 경쟁 운동의 전개, 선진 과학 기술의 도입과 선진 작업 방법의 적용, 전반적 일군들의 기술 수준의 제고,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과 전체 일군들의 책임성의 제고 등이다。

그러나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이러한 조건들은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의 조직 동원적 역할이 없이는 충분히 현실성으로 전변될 수 없다。

특히 건설장 내 일부 현장 관리 일군들과 낡은 기술 일군들이 실현 가능한 로동의 간단한 기계화를 태공하며 낡은 로동 정량과 낡은 기술을 고집하며 설비 리용률의 최대한의 제고와 기자재 공급과 애호 절약을 소홀히 하며 적용하기 곤난하다는 구실 밑에 정확한 도급 임금제와 증산 경쟁 실시를 태공하며 건설의

질과 속도를 날림식과 청부식으로 보장하려는 무책임한 그러한 경향들을 지속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는 더욱 당 단체들의 조직 동원적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다。대부분의 경우에 건설장들에서의 이러한 결함들은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이 이러한 문제를 자기의 시야 밖에 두고 있을 때, 즉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함으로써 건설의 질과 속도를 보장하려 할 대신에 주먹치기로 구호와 만세로써 로동자들을 냅다 모는 그러한 때에 발생되며 또 지속되는 것이다。

물론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이 로동 생산 능률 제고 문제에 관심을 두고 조직적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그러나 왕왕 당 단체들은 시공이 급하다는 구실 밑에 일부 기술 일군들과 현장 관리 일군들이 닥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제 방법과 대책들을 소홀히 하는 그러한 경향들에 추종하거나 또는 그러한 경향들과 융화하고 마는 사실들이 적지 않다。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은 이러한·제 결함들을 시급히 시정하고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를 위하여 응당 현장 관리 일군들에게 요구성을 높이는 동시에 당 및 근로 단체들과 행정 회의들에 이러한 문제들을 중요한 토의 대상으로서 상정시키며 또 결정된 문제의 집행 정형을 정상적으로 정확히 총화 검토하며 새로운 발기와 제의들을 적극 지지 보급하며 일체 락후한 현상들을 근절하기 위한 대중적 비판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의 다른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건설의 질적 수준의 제고와 그의 보장을 위한 당적 지도이다。건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당적 지도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는 건설장들에서 일부 현장 관리 일군들과 기술 일군들이 설계 규정과 시공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공명심에 사로잡혀 공사 기간 단축을 구실로 계획의 량적 보장에만 급급한 남아지 시공에서의 조잡성과 날림식과 청부식을 허용하고 있는 사실과의 투쟁이다。

기본 건설 사업에서의 조잡성과 날림식과 청부식은 비단 구조물의 수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시공 도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구조물을 재 시공하게 되므로 거액의 국가 재산과 로력을 랑비하며 공사 원가를 등귀시키며 공사 기간을 지연시키며 나아가서는 구조물과 설비들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

시공에서의 이와 같은 무책임성은 허용될 수 없다。이와 같은 무책임성은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이 대 규모적인 시공을 지도 보장할만한 충분한 실무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와 시공에 대한 당적 통제를 미약하게 보장한 데서 왕왕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공에 대한 실무 능력을 제고하며 동시에

일부 일꾼들의 청부식 사업 작풍과의 날카로운 사상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의 전투적 과업으로 된다. 청부식 사업 작풍과의 투쟁은 일대 사상 개조 운동이다. 물론 이러한 투쟁은 짧은 기간 내에 아주 순조롭게 성과를 거둘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건설장들에서 이러한 투쟁을 잠시라도 정지하거나 또 당 단체들이 이러한 투쟁을 자기 시야밖에 두어서는 결코 안된다.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은 응당 건설의 높은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체 일꾼들의 책임성과 특히는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제고하며 시공 도중의 검열을 강화하며 계절에 적응한 작업 조건을 보장하며 청부식 사업 작풍이 추호도 용허되지 않도록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며 건설 일꾼들에게 건설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수치스러운 범죄라는 인식을 견지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은 당 중앙 위원회 三월 전원 회의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건설 트레스트들을 질적으로 강화하며 그의 기능을 높이는 데 또한 자기의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건설 트레스트를 강화하며 그의 기능을 제고하는 문제는 건설외 질을 보장하는 강력한 담보로 된다. 트레스트의 강화, 그의 기능의 제고는 곧 트레스트 지도 일꾼들의 책임성의 제고와 유일 관리제의 강화로써 트레스트 내에 존재하는 산만 무질서한 현상을 퇴치하고 엄격한 질적 표준을 목표로 한 기술 관리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시공의 질을 정확히 보장할 수 있게 한다.

시공의 질을 보장함에 있어서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은 건설 재료의 확보, 재질의 분석, 재료 규격의 검토에 집중한 당적 주의를 돌려야 한다. 재료의 정확한 선택과 확보 없이는 건설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은 건설 재료의 정확한 선택과 확보는 당 단체들이 관심할 바가 아니라는 그러한 태도로부터 일부 재료 공급 일꾼들의 사업에는 주의를 돌리지 않고 방임하였던 결과 불합격품 건재를 사용하여 건설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 실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은 경제 사업에 대한 세부에 이르는 당적 지도와 통제를 마치도 행정 사업에 대한 무원칙한 간섭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사업에 대한 정치적 지도는 결코 경제 사업에 대한 세부에 이르는 당적 지도와 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경험은 만일 당 단체들이 건설장들에서 세부에까지 파고 들어가 지도를 주지 않고 사무실에서 다만 사업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주는 데만 관습된다면 불피코 건설 사업에서 오작 시공이 발생되여 건설의 속도와 질을 저하시키며 막대한 로력과 자재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을 뵈여 주고 있다.

비근한 실례로 얼마 전에 일부 트레스트 당 단체들은 일부 자재 공급 일꾼들이 무책임하게 오작 벽돌을 인수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또 그로 말미암아 벽돌 축조에서 건물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 그러한 현상을 제때에 감축 적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당 단체들에서는 축조한 오작 벽돌들이 중하에 이기지 못해 부숴져 시공을 그 이상 더 계속할 수 없었을 때 비로소 그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재 시공에 있어서도 많은 로력과 자재와 시간을 랑비하였던 것이다.

이밖에 시공을 날림식으로 진행한 결과 그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 실례도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즉 남포 제련소에서는 대 연도와 송풍 장치, 구내 운반선, 콤베야 등을 날림식으로 조잡하게 시공하여 그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으므로 재 시공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던 것이다.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은 이와 같이 일부 건설장들에서 건설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 경험을 자체의 실정에 비추어 심각히 검토하여 거기에서 교훈을 찾는 허심한 태도를 견지하며 시공에 있어서 제반 기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며 특히 건설에서 무책임한 날림식, 청부식 사업 작풍들과 견결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일체 오작 시공을 근절하는 것을 자기의 주되는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

트레스트들에서의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며 건설 재료를 절약하며 재정 규률을 엄격히 확립하는 문제는 트레스트 내 당 단체들의 중요한 관심사로 되여야 한다.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은 시공에 있어서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 원가를 저하시키며 건설 원가의 저하를 위하여 재정적 통제를 강화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기본 건설에 있어서 재정적 통제는 계획 규률과 재정 규률의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며 일체 비생산적 소비를 근절하고 경제 절약과 소비 절약을 보장하며 나아가서 기업소의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게 한다.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은 건설 원가를 저하시키기 위하여 내부 원천을 동원 리용하며 자재와 자금의 소비를 절약하는 데 일상적 관심을 돌려야 한다. 자재와 자금의 절약을 위하여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은 자재의 기술적 소비 기준의 정확한 수립과 그의 정확한 집행을 통제하며 무원칙한 고률 임금의 지불, 탐오, 랑비, 기자재의 분실과 사장을 미연에 적발 방지하며 일상적으로 기업 관리 운영에 대하여 연구하며 자재와 자금의 리용 정형에 정통하고 있어야 한다.

❋ ❋ ❋

건설장 내 당 단체들 앞에는 건설의 속도와 질적 보장, 트레스트의 질적 강화와 그의 기능의 제고, 자재와 자금의 절약 등을 위한 중대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이 중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는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이 자기의 조직 동원자적 기능을 능숙히 수행하며 지도 일꾼들의 지도 수준을 제고하며 로동자들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김일성 동지는 당 중앙 위원회 三월 전원 회의에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에 대한 거대한 과업을 승리적으로 실행하려면 경제 기관들의 능숙한 지도와 로동자들의 자각성과 창발성이 완전히 결합되여야 하며 오직 그렇게 되는 때에라야만 우리의 기업소들의 사업은 상당한 발전과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로동자들의 자각성과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희박한 그러한 곳에서는 높은 애국적 운동은 기대할 수 없다』고 교시하였다。

로동자들의 자각성과 창발성과 애국적 열성을 불러 일으킴에 있어서 대중 정치 사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대중 정치 사업은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대중의 정치적, 문화적 수준과 그의 자각적 열성을 제고하며 당과 국가 앞에 제기된 정치 경제적 제 과업들의 성과적 해결에로 대중을 조직하며 동원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특히 건설장들에서의 대중 정치 사업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건설 로동자들의 대부분이 로동 생활 년한이 짧고 단련이 부족하며 또 오랜 숙련 로동자들이라 할찌라도 건설 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집단적 규률로 단련되지 못한 실정은 그들 속에서 대중 정치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낡은 관념과 의식을 씻어 버리고 자각적인 프로레타리아적 규률을 확립할 필요성을 절박하게 제기한다。

전후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은 대중 정치 사업을 현저히 개선 강화하고 있으며 그의 수준도 상당한 정도로 제고시키고 있다。 특히 지적할 것은 당 단체들의 대중 정치 사업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였으며 선동원들의 활동이 점차 제고되고 대중 정치 사업에서 적지 않은 경험들을 축적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건설장들에서의 대중 정치 사업은 아직 당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대중 정치 사업이 왕왕 협소한 범위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며 로동자들의 실생활과 밀접히 결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의 큰 결함이며 부족점이다。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은 대중 정치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 대중 정치 사업에서의 형식주의적 경향을 퇴치하고 그의 고상한 사상 정치적 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중 정치 사업에서의 형식주의적 경향은 우선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이 당과 정부 결정, 지시들을 군중 속에 해설 선전하는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 평양시 제一건설 트레스트 당 단체들에서는 당 중앙 위원회 三월 전원 회의 문헌과 三개년 인민 경

제 계획에 관한 법령을 해석 선전함에 있어서 로동자 총수의 三분의 一도 못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二—三회 정도의 강연회를 조직하는 데 그친 결과 많은 로동자들은 이 중요한 문헌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형편에서는 로동자들이 제때에 당과 정부의 결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그의 실행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을 발휘할 수 없다。 대중 정치 사업에서의 결함인 형식주의적 경향은 시간과 대상을 고려하지 않는 데서와 대중 정치 사업을 기동성 없이 진행하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중 정치 사업을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다른 중요한 한가지 문제는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이 대중 정치 사업을 로동자들의 생활과 긴밀히 또 구체적으로 결부시켜 진행하는 문제이다。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은 호상 분리되여 진행될 수 없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일부 건설장들에는 정치 사업을 과소 평가하거나 그를 차요시하면서 경제 사업에만 몰두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드물지 않게 있다。

정치 사업을 등한시하는 건설장들에서는 로동자들의 자각성과 창발성과 열성에 의거하여 건설의 속도와 질을 보장하려 할 대신에 명령과 호령, 시간외 로동과 지나친 로동 강도의 제고로써 시공을 보장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장들에서 사업하는 당 단체들은 대중 정치 사업이 경제적 성과를 담보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되며 당 사업은 사람들과의 사업이며 따라서 정치 사업이며 창조적 사업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으며 대중 속에서의 정치 사업의 사명을 부지부식간에 외곡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장들에서의 대중 정치 사업은 로동자, 기술자, 관리 일꾼들을 건설 계획의 초과 완수에로 조직 동원하며 엄격한 절약 제도를 실시하며 건설의 질과 속도를 보장하며 건설 원가를 저하시키며 내부 원천을 동원하며 로동 규률을 강화하며 높은 생산 문화의 창조와 건설에서의 선진 경험의 광범한 도입을 촉진시킬 사명을 띠고 있다。 따라서 대중 정치 사업은 생산과 분리되여 진행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은 생산과 결부된 대중 정치 사업을 조직 진행할 대신에 많은 경우에 그와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그를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생산에서 로동자들의 로동에 대한 영예감과 계획 완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으며 창발적 운동을 고무 추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 질서와 규률을 확립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이 대중 정치 사업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로동자들에게 주택, 문화 시설 등 생활 조건을, 제때에 지어 주는 동시에 로

동자들 속에서 자체의 모든 로력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자체 생활을 개선하는 군중적 사업을 진행하게 하며 국가 재산과 공공 시설들을 애호하는 문화—도덕적 품성을 소유하도록 선전 교양하는 그것이다.

로동자들이 생활에 안착됨이 없이는 높은 생산 능률을 보장할 수 없으며 로동자들의 문화—도덕적 품성의 제고 없이는 건설장들에서 국가 재산의 애호 절약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동시에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은 대중 정치 사업을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각종 선동 수단들과 기재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대중 정치 사업의 유력한 부문을 차지하는 군중 문화 사업 개선과 선동원들의 선발 배치와 그들의 수준 제고에도 심중한 당적 주목을 돌려야 한다.

* * *

기본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은 자기 앞에 제기된 영광스러운 과업을 수행하는 행정에서 일정한 경험들을 축적하고 있으며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당 단체들은 시공에서 체득한 경험과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더욱 자기 사업을 연구 검토하며 일정한 결론을 지어야 한다. 당 단체들은 일체 자만자족과 투쟁하면서 시공의 질과 속도의 보장을 장애하는 청부식, 날림식 시공 작풍을 근절하기 위하여 트레스트의 질을 제고하는 데 온갖 방조를 주며 건설장들에서 당 조직 정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당과 정부와 수령과 전체 인민들은 기본 건설 사업에 거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 건설장 내 당 단체들은 이 전 인민적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자기의 조직 동원자적 기능을 백방으로 제고함으로써 건설의 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과업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보다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인민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의 로동

남 춘 화

어떠한 사회 제도 하에서를 막론하고 로동은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인간의 목적 의식적 활동이다. 인간은 로동을 통하여 자기의 물질적 및 문화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연을 변경시키며 그를 자기 수요에 적응시킨다. 인간의 로동 과정의 중요한 특징은 로동 도구의 제작과 그의 사용인바 이 로동 도구의 변화, 발전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작용 범위를 확대시키며 자연을 변경, 적응시키는 인간의 힘을 강화한다.

인간은 로동 과정에서 다만 자연을 변경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화, 발전시킨다. 인간 신체의 각 부분의 발전, 언어의 발생, 인간의 사유, 인식 능력의 발달 등은 로동 과정의 산물이다. 따라서 과학과 예술의 발전은 인간의 생산 활동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으며 인류의 력사는 근로 대중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일찌기 쓰딸린은, 사회 발전의 력사는 동시에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 생산자 자체의 력사이며 생산 과정의 기본적 력량인, 그리고 물질적 부의 생산을 실현하는 근로 대중의 력사라고 교시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동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항구적인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로동의 성격과 그의 구체적, 사회적 형태는 각이한 사회 구성에 의하여 각이하게 결정되는 것이다. 인간은 로동 과정에서 다만 자연에 대하여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인간 상호간에 일정한 관계를 맺는다. 이리하여 인간의 생산 활동—로동은 필연적으로 일정한 구체적 사회적 성격과 사회—력사적 형태를 가진다.

매개 사회에서 로동의 성격과 형태는 그 사회의 지배적인 생산 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에 기초한 계급 사회에서의 로동은 착취 계급을 위하여서는 치부와 향락의 수단으로 되며 피착취 대중에게는 중하로 된다. 이와 같은 계급 사회에서는 물질적 부의 직접적인 생산자——근로자들이 빈궁화되며 사회적 천대를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서 로동은 천한 것, 싫은 것으로 된다. 때

문에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하여 영예감과 자각적 태도를 가질 수 없고 다만 경제외적 강제나 기아의 위협에 의해서만 일하게 된다.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로동의 성격은 이전의 모든 사회 하에서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정권이 인민의 수중에 장악되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 생활 수준의 계통적 향상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경제 제도가 수립된 조건 하에서만 로동은 자유로운 것, 영예로운 것으로 된다. 따라서 근로 대중의 로동에 대한 자각적 열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는 이러한 사회 하에서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평화적 건설 시기에 있어서나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있어서나 또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장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현 시기에 있어서 발휘하고 있는 애국적 열성은 우리 나라에 수립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기초하는 로동에 대한 새로운 태도의 구체적 표현이다.

* * *

위대한 쏘베트 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우리 나라가 해방된 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인민 정권이 수립되고 토지 개혁 및 중요 산업 국유화 등 제반 민주 개혁이 실시된 결과 외래 독점 자본가, 지주 및 예속 자본가들의 착취 체제가 숙청되였다.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 체계로부터 리탈하여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 기타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와 더불어 민주주의, 사회주의 진영 경제 체계의 한 부분을 형성하게 되였다.

이와 같은 력사적 변혁은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에서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근절하였고 소상품 생산이 새로운 길, 즉 협동 경리의 길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였으며 자본주의적 경제 부문을 일정한 범위 내에 제한 통제하게 되였는바 우리 나라에서의 로동의 성격은 이러한 조건 하에서 자본주의 하에서와는 판이하게 다른 물질적 기초를 가지게 되였다.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에서 생산 수단이 전 인민적 소유로 된 결과에 국영 경제 부문에서 로동력과 생산 수단의 새로운 결합 방식이 가능하게 되였다.

맑쓰—레닌주의 정치 경제학이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경제 제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로동력과 생산 수단의 결합이 없이는 생산은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러나 각이한 사회 구성에 따라 이 결합의 방식은 동일할 수 없다. 로동력과 생산 수단의 각이한 결합 방식에 의하여 각이한 생산 방식이 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로동자들은 생산 수단에서 분리되여 있기 때문에 아사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로동력을 상품으로 자본가에게 판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로동자는 자본의 인적 요소로서 자본의 물적 요소인 생산 수단과 결합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합은 리윤 보장을 위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에 종속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에 있어서 로동은 그것이 자본을 위하여 잉여 가치를 조성하는 한에 있어서만 생산적이다. 자본을 위하여 잉여 가치를 조성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로동은 무용한 것으로 되며 따라서 로동 과정은 정지된다.

우리 나라의 국영 경제 부문에서는, 생산 수단은 자본의 물적 요소로 되지 않으며 동시에 국영 경제 부문에서 로동하는 로동자, 사무원들은 자기의 로동력을 상품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하지 않는다. 국영 경제 부문에서 생산 수단과 로동력의 결합은 사회주의적 생산의 목적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 사회주의적 생산의 목적은 수요를 가진 인간, 즉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있다. 국영 경제 부문에서 로동자들의 생산은 착취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동지적 협조와 원조의 관계를 반영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관계는 국영 경제 부문에서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 법칙, 인민 경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 법칙, 사회주의의 분배 법칙 등 새로운 경제 법칙들이 작용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 놓았다.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 기타 인민 민주주의의 국가들의 방대한 기술 경제적 원조는 인민 경제에서 국영 경제 부문의 우세와 지배를 힘있게 보장하는 조건의 하나로 되고 있으며 또 따라서 사회주의적 생산에 고유한 경제 법칙들의 작용 분야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적 세계 경제 체계에 망라된 국가들 상호간의 경제적 관계가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 법칙, 인민 경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 법칙의 요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이다. 물론 우리의 인민 정권은 국내에서 예속 자본가들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래 독점 자본의 침입을 반대하여 백방으로 투쟁하고 있다. 우리의 대외 무역은 국가 자체에 의하여 또는 국가의 감독 하에서 수행되고 있다.

인민 정권의 주도적 계급인 로동 계급은 농민과 동맹하여 낡은 반동 세력의 반항을 분쇄하면서 국영 경제 부문의 장성과 또 사회주의 경제 법칙의 작용을 위한 광활한 활로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따라서 국영 경제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소상품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수공업자들의 로동의 성격도 변하게 되였다.

공화국 북반부에는 아직도 소상품 경리 특히 농촌 경리가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상품 생산과 소생산자들은 국영 경제 부문 및 도시 로동 계급의 지도 밑에서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소상품 생산은 본시 그의 분산성, 비조직성으로 말미암아 도시 공업, 신용 제도, 국가 주권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된다. 소생산자들은, 한편으로는 생산 수단의 소유자인 동시에 다른 편으로는 근로자이다. 소생산자들이 자체 내에 내포하고 있는 이 이중성은 그들로 하여금 자본주의 하에서와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판이하게 다른 로정을 걷게 한다.

자본주의 하에서 소농민 경리를 비롯한 소상품 경리는 그의 경제적 제약성으로 말미암아 자본의 가혹한 착취 대상으로 되지 않을 수 없으니, 도시와 농촌과의 대립의 경제적 기초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 하에서 소생산자들인 농민, 수공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기타 보잘 것 없는 생산 수단은 자본가들에게 대한 채무의 저당물로 되며 필경 자본가의 소유로 되고 만다. 따라서 소생산자들의 많은 부분이 자기의 로동력을 자본가에게 팔지 않고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의 농촌 경리를 비롯한 소상품 경리는 인민 정권의 옳바른 시책이 있고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에서의 사회주의적 관계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새로운 길로 발전하고 있다. 즉 우리의 소상품 경리는 자본주의의 길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 민주주의의 길로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주의로의 개조에로 향도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인민 주권이 수립되고 제반 민주 개혁이 실시된 결과에 농민들과 수공업자들은 외래 독점 자본가와 예속 자본가 및 지주의 착취에서 해방되였으며 도시와 농촌의 대립이 기본적으로 폐기되였다. 인민 정권은 인민 경제에서 국가적 부문의 우세와 지배를 보장하면서 국영 공업, 상업, 금융 등 경제 체계를 통하여서와 기타의 방법으로 농민, 수공업자들에게 그 경리 발전에 필요한 방조를 주고 있다. 즉 국가적 지출에 의한 관개 수리 공사의 진행, 각종 농구 및 화학 비료의 렴가 공급, 농기계 임경소 및 역마 임경소의 설치, 저리의 융자, 종자 및 식량의 대여, 소비 조합 망을 통한 생활 필수품의 공급 및 기타 로력상 방조 등 실로 헤아릴 수 없는 원조를 농민에게 주고 있다. 우리 당과 정부는 농민 문제를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경향과 투쟁하면서 특히 빈농민들의 영농 조건의 보장과 생활 개선 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배려를 돌려왔다. 전후기에만 해도 령세 농민들의 영농상 필요한 축력과 농기구 및 농량의 부족을 해결하여 줄 목적으로 一九五四년 상반년에 一三억 二천 八백 만원의 융자적 방조와 一, 五五五톤의 벼 종자를 비롯한 우량 종자의 교환, 一一, 二二一톤의 종자와 一一, 四八七톤의 식량과 二四, 五〇六톤의 화학 비료의 대여 등 많은 원조를 주었다.

당과 정부의 이 모든 시책은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인 국영 부문과 협동 단체 경제에서 날로 발전하는 사회주의적 요소가 농촌 경리 발전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조건으로 되였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활을 현저히 개선 향상시켰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령락과 빈궁의 운명에 처해 있던 소상품 생산을 단순히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협동 경리의 길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조직적 발전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농업 협동 경리에서는, 생산 수단의 일부는 사회화되지 않고 있으며 생산물의 분배에 있어서 일부 불로소득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경리에서 농민들의 동지적 원조와 호상 협조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요소가 조장 발전되면서 있다. 따라서 농업 협동 경리에서의 생산 수단과 로동력의 결합은 협동 로력에 기초한 농민들의 집단의 물질—문화적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때문에 이 협동 경리에서의 로동의 성격은 그의 기본에 있어서 착취에서 해방된 동지적 원조와 협조에 기초한 자유로운 집단적 협동 로동이다.

공화국 북반부에는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사자본주의적 경리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인민들의 복리 향상의 촉진을 위하여 중 소 자본가들의 활동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한에 있어서 그들의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

물론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자본주의적 경리는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에서 배제되여 있다. 그리고 또한 현존하는 사자본주의적 경리——즉 개인 기업, 개인 상업 경리——에서도 그들의 착취는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자본주의적 기업소에서 일하는 로동자, 사무원들은 자기의 로동력을 자본가에게 상품으로 팔고 있는 것만큼 그들의 로동은 고용 로동이다. 그렇지만 인민 정권은 개인 기업주 및 상인들의 활동 범위를 통제 축소하며 그들에 대하여 로동 법령의 정확한 집행과 근로자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개인 기업에 대하여 원료, 연료 및 자금상 방조를 주며 국가와 인민들이 요구하는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도록 그들을 지도하며 국가의 수매 망을 통하여 생산물을 수매하고 있다.

오늘 사자본주의적 기업에서 로동하는 로동자들은 인민 정권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인 자본가들은 그들을 자본주의 하에서와 같이 착취 천대하지 못한다. 때문에 사자본주의적 기업에서의 로자 간의 관계는 자본주의 하에서와는 현저히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되였다.

사자본주의적 기업소에서 로동하는 로동자, 사무원들은 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고용 로동의 처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왜냐 하면 그들 앞에는 인민 경제에서 계속 부단히 확대 재 생산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의 우세와 지배적 지위를 확대 강화하고 있는 국영 경제 부문과 협동 조합 부문이 있기 때문이다。

* *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경제 생활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에 대한 새로운 자각적 태도를 발생시키며 로동의 성격을 변혁할 수 있는 조건은 인민 경제에서 국영 경제 부문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민 정권의 지도적 력량인 로동 계급이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을 자기의 수중에 장악하고 농민, 수공업자, 중 소 자본가들을 새로운 경리 발전의 길로 인도하는데 있다。

三년 간에 걸친 가혹한 전쟁은 우리의 인민 경제를 혹심히 파괴하였으며 인민 생활을 령락시켰다。 전쟁에 의한 우리 인민 경제의 손실은 불완전한 자료에 의하여서라도 四,二〇〇여 억원에 달한다。 八,七〇〇여 개소의 공장을 비롯한 수 많은 주택, 병원, 학교, 문화 기관들이 파괴되였다。 전쟁의 피해의 결과에 국영 기업 및 협동 조합 기업들의 생산액은 一九五三년에 전쟁 전에 비하여 四〇% 이상이나 감소되였다。 특히 연료 공업, 금속 공업, 화학 공업, 발전소, 수산업 및 전재 공업 등 인민 경제의 중요 부문들이 극심히 파괴를 당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며 령락된 인민 생활을 안정 향상시킴으로써 평화적 통일 독립의 물질적·토대인 민주 기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에 전체 인민을 궐기시키고 있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의 기본 방향은 김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장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전쟁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공업의 부족점들과 공업에서의 식민지적 편파성의 잔재를 숙청하며 중공업의 복구 발전을 우선적으로 하되 인민 생활 안정을 위한 경공업을 동시적으로 복구 발전시키는 동시에 공업과 농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로동 계급의 적극성과 창발적 로력 투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의 로동의 새로운 성격을 전체 인민이 깊이 인식하고 이에 자각적으로 참가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인민 민주주의 제도 하 공화국에서의 로동의 새로운 성격은 로동 조직과 로동력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제기한다。

그것은 자본주의 하에서와는 달리 로동을 고귀한 것으로, 영예로운 것으로 생각하게 된 조건 하에서 로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직할 것인가, 로동 생산 능률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레닌이 교시한 바와 같이 새 사회 제도의 승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이다。 우리는 새로운 높은 로동 생산성을 조성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타승할 수 있다。

일찌기 맑쓰는 「로동 생산 능률은 여러 가지 사정, 그 중에도 로동자의 숙련의 평균 정도, 과학 발전의 수준 및 그의 기술 공예적 리용의 정도, 생산 과정의 사회적 결합, 생산 수단의 범위와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자본론」 제一권 四六페지)라고 교시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생산 과정을 기계화하며 로동자, 농민, 사무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며 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로동 규률을 백방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김일성 동지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과 관련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로동력 해결에 대한 방도를 제시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로동력의 류동성을 퇴치하며 전체 기업소들에서 기능 로동자들과 숙련 로동자들을 양성하며 그들을 기업소에 고착시키며 로임에 있어서 평균주의를 숙청하며 기술 수준 제고에 대하여 로동자들의 리해 관계를 발양시키며 생산 및 건설 공정의 기계화를 계통적으로 제고하며 로동자들의 물질 문화 생활 및 주택 조건들을 개선하며 로동 조건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계획에 예견된 로력 폰드가 있다고 하여 재로동력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겠다』(우리 당 三월 전원 회의에서의 김일성 동지의 보고)라고 교시하였다。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생산 과정의 기계화와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는 문제이다。

로동 도구의 발전은 인간이 자연과의 투쟁에서 얼마나 무장하였는가 하는 지표로 된다。 로동 과정에서 인간이 리용하는 로동 도구의 총체는 사회적 생산의 기술 수준을 표현한다。 력사적 유물론이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생산의 변화, 발전은 항상 생산력의 변화, 발전으로부터 시작되며 그 중에서도 먼저 로동 도구의 변화, 발전으로부터 시작된다。 생산 도구의 변화, 발전은 생산력의 중요한 요소인 사람도 변화, 발전시키며 그들의 생산 경험, 그들의 로동 관습, 생산 도구의 사용에 대한 그들의 기능도 변화, 발전시킨다。

근대 과학의 발전은 가장 세밀한 도구들과 가장 복잡한 기계를 창조하였으며 화학적 물질의 비밀에 침투하고 있으며 전기 및 원자 에네르기야를 발견하였으며 그것을 생산력 발전에 봉사하도록 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발전된 기계 기술을 생산에 도입함에 있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사회는 각각 서로

관이한 목적을 가진다。

자본주의 하에서 기계 및 기술 리용의 목적은 높은 리윤을 보장하는데 있다。 생산자들의 로동을 쉽게 하거나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생활 수준을 계통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자본주의적 기계 리용의 목적이 아니다。 맑쓰는, 「기계 그 자체는 로동 시간을 단축시키면서도 그의 자본주의적 적용은 로동일을 연장시킨다。 기계 그 자체는 로동을 헐하게 하지만 그의 자본주의적 적용은 로동의 강도를 제고시킨다。 기계 그 자체는 자연력에 대한 인간의 승리를 의미하지만 그의 자본주의적 적용은 인류를 자연력에 예속시킨다。 기계 그 자체는 생산자의 부를 증대시키나 그의 자본주의적 적용에 있어서는 생산자를 빈민으로 전환시킨다」(「자본론」 제一권 四四六—四四七페지)라고 지적하였다。 자본주의적 기계 리용은 로동자를 혹독하게 착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단조한 기계적 동작을 하는 자동 인형으로 전화시킨다。 때문에 자본주의 하에서 로동자는 온갖 생산에서의 자립성과 생산에 대한 창발성과 생산의욕을 잃어버린다。 또한 자본주의 하에서 기계가 생산에 도입됨에 따라 성년 남자의 로동은 녀성과 아동들의 로동으로써 교체되고 따라서 로동 계급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성별과 년령의 차이는 온갖 사회적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 이것은 새로운 젊은 세대의 지적, 육체적 발전을 파괴하며 근로자들의 가정을 파괴한다。 뿐만 아니라 생산에서 기계의 도입은 근로자들의 로동 조건을 악화시킨다。 자본가들은 리윤률을 높이기 위하여 불변 자본을 백방으로 「절약」하는바 이것은 로동 보호 안전 시설의 부족을 초래하며 따라서 근로자들을 기계의 희생물로 되게 한다。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매일 매시간 수 많은 로동자들이 기계의 희생이 되거나 직업 병으로 사망되고 있다。 미국에서 一九五一년부터 一九五二년까지의 기간에만도 三만 여명의 로동자들이 안전 시설의 부족으로 기계의 희생이 되였다。

이같이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의 생산 과정의 기계화, 자동화 또는 생산 과정의 『합리적 조직』, 로동의 『과학적 조직』 등등은 사실에 있어서 로동자들의 땀을 더욱 혹독하게 짜내는 조직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레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과학 및 기술의 발전은 고혈 착취술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기계는 사회의 장성하는 물질—문화적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기계는 우선 로동자들이 로동을 절약할 수 있게 하며 그들의 로동력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우리 생산 직장과 건설장들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기계들과 쏘련 인민들이 보내준 현대적 기계들이 수백 수천명의 로동자, 농민들을 대신하고 있다。 기계는 또한 근로자들의 기술—문화 수준을 제고시키며 그들의 다방면적인 지적 발전을 촉진시킨다。

그러므로 당과 정부는 일제가 남겨 놓은 우리 인민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의 잔재를 시급히 퇴치하고 우리의 인민 경제를 현대적 기술로 장비시키기 위하여 기계 공업의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앞으로 우리 나라 산업의 면모를 일신하고 로동 생산 능률을 일층 제고하려면 로동 공정의 기계화가 급선무이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은 一九四九년에 비하여 생산 범위를 기계 공업 및 금속 가공업에 있어서 二·五배, 광산 설비는 二四배, 농업 기계 및 농기구는 一六·五배로 증대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또한 석탄 공업, 광업, 금속 공업들에 있어서 로력이 많이 드는 공정을 기계화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농업에서도 기경 및 전야 작업에 기계를 도입할 것을 장려하고 있는바 오늘 우리 농촌에는 이미 많은 뜨락또르를 가진 一七개소의 농기계 임경소가 있다。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근로자들의 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적 수준을 제고하여야 하는바 이 방면에서도 우리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는 자본주의에 비할바 없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근로 대중을 무기능자로 전락시키며 무지와 문맹 속에서 헤매게 한다。 자본주의 하에서 근로자들은 교육과 기술 습득을 위한 시간과 조건을 가질 수 없다。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신 로동은 지배인, 기사, 기타 정신 로동의 대표자들이 독점하는바 이 정신 로동의 대표자들은 육체 로동자들을 착취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간의 대립의 경제적 기초를 이룬다。

일제 통치 하에서의 조선 로동자들은 근대 산업 로동자가 소유할 최소 한도의 기술과 지식도 소유할 수 없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이 일제의 『유산』을 급속한 시일 내에 퇴치하기에 백방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 우리의 인민 정권은 방대한 국가적 지출로써 대학, 기술 전문 학교, 직장 학교 등을 설치하여 많은 기술 간부들을 양성하였다。

쏘련 인민은 조선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적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백방의 원조를 주고 있다。 오늘 수 많은 청년들이 쏘련 학교에서 선진 과학과 기술을 습득한 후 우리의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의 일터에서 일하고 있으며 또한 쏘련 학자, 기술자, 생산 혁신자들이 조선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귀중한 기술적 원조를 주고 있다。 우리 생산 직장들에서 선진 생산 혁신자들은 자기의 후진들을 성의를 다하여 지도하여 주고 있다。

기술 부문에서의 이와 같은 성과는 근로자들의 기술

수준 제고가 그들 자신과 사회의 물질—문화적 생활의 향상과 직접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정신 로동의 대표자들에 의한 육체 로동자들의 착취는 기본적으로 청산되였으며 모든 근로자들 앞에는 자기의 기술—문화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리여지고 있다。

* * *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의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로동의 새로운 성격은 로동 조직、로동력 재 생산에서 새로운 방식을 제기한다。

매개 사회 구성은 각이한 로동 조직과 로동력의 재 생산 방식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자본가가 만족하게 리용할 수 있는 실업군이 상대적 팽잉 인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로동자를 착취하며 그들을 무지와 문맹 속에서 방황케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직업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다。 로동 실업자들은 일정한 물질적 부를 생산할 수 있는 로동 관습과 숙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들은 그들로부터 로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직업을 주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이 방면에서도 막대한 산 로동의 랑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이미 실업은 청산되였다。『산업 복구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전취한 성과는 북조선에서 무직업자를 완전히 퇴치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로동력의 부족을 느끼게 한다』(『김일성 선집』 제二권 二六七폐지)。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인민에게 단순히 로동에 대한 권리를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공황과 실업을 근절함으로써 로동의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계속 부단한 확대 재 생산을 보장하고 있는 공업은 많은 추가 로동력을 요구한다。 특히 많은 숙련 로동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이 청산되였고 농촌에서의 계급 분화 작용이 기본적으로 청산된 조건 하에서 발전되는 공업은 추가 로동력을 자연 발생적으로 얻을 수 없다。 여기서 공업은 로동력을 조직적으로 모집하여야 할 과업이 제기된다。『…지금 농촌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경되고 도시의 실업자가 없는 환경에서 공장、기업소로 로동력이 저절로 류입하여 올 것을 절대 기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저절로 류입되는 로동력이 없으니만큼 조직적으로 로동력을 보충하는 문제와 이미 있는 로동력을 고착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이다』(『김일성 선집』 제二권 五〇九폐지)。

오늘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의 방대한 계획의 실천은 더욱 많은 추가 로동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동지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六차 전원 회의에서의 결론에서 『우리 앞에 가장 날카롭게 나서고 있는 문제는 로력 확보、로력 원천에 관한 문제이다』라고 교시하였다。 로동력의 확보를 위하여서는 로력 후비군의 탐구、로력의 합리적 리용과 로력 랑비 현상의 근절、로동력 류동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제고、생산에서의 로동의 기계화 등이 요구된다。

우리 나라에 수립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은 근로자들의 로동력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우리 나라에서 로동력은 자본주의 하에서와는 달리 인민 경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 법칙의 요구에 의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에 계획적으로 분배된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로동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로력의 랑비 현상을 근절하며 비생산 로력을 축소하며 기관들의 기구를 간소화할 데 대한 구체적 대책들을 강구 실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수립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는 녀자에게도 남자와 동등한 로동에 대한 권리와 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 주고 있다。 로력을 옳게 조직하며 로력을 절약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는 로동력의 류동성을 퇴치하는 문제이다。 로동력의 류동성을 퇴치하기 위하여 우리 앞에 나서는 과업은 첫째로 임금 조직을 정확히 하는 그것이다。 로임에서의 평균주의적 편향은 무기능 로동자의 기능 제고에 대한 의욕을 상실케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진을 가로 막고 나아가서는 해당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방랑』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로동 임금 조직의 기본 원칙은 로동자、사무원들의 로동의 결과에 있어서의 물질적 리해관계에 대한 관심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 더욱 광범한 도급 임금제와 상금제를 실시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숙련된 핵심적 로동자 그루빠들을 고착시키는 것이다。 핵심적 로동자 그루빠들을 생산에 고착시키는 것은 로동자들의 구성 성분의 비률을 고착시키며 로동력의 류동성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핵심 로동자들의 고착은 그들을 등용하며 로동 임금 수준을 높이며 숙련에 대한 상당한 보수제를 실시하는 데서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로동의 새로운 성격은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로동 규률을 요구한다。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로동 규률은 모든 선행한 사회의 로동 규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자각적인 로동 규률이다。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생산 수단이 전 인민적 소유로 된 조건 하에서 로동자들의 로동의 결과는 사회와 그들 자신의 물질—문화적 복리의 향상과 혈연적으로 련결되고 있다。 여기에서 일군들의 로동과 로동의 결과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로동 규률은 다

만 근로자들의 자각성에만 방임할 수 없다。 그것은 자본주의 제도가 전복된 후에도 근로 대중들의 의식 속에는 자본주의적 사상 잔재가 오래 동안 계속 잔존할 뿐만 아니라 특히 사람들의 생활 관습과 함께 집요하게 틀어박힌 낡은 사상 잔재는 일조 일석에 근절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며 새로운 로동 규률을 창조 강화하는 투쟁은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의 해독과 침입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 투쟁이며 반인민적、반국가적 낡은 사상을 숙청하는 날카로운 사상 투쟁이다。 따라서 새로운 로동 규률의 강화는 로동자들 속에서의 사상 사업을 일층 강화함으로써 그들에게 로동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자각성을 제고시키는 데서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로동 규률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도의 하나로서 매개 기관 및 기업소의 지도자의 수중에 전 관리 체계를 집중시키며 그의 유일한 책임 하에 매개 성원들의 개별적 책임을 수행하는 유일 관리제를 강화하는 문제가 또한 중요하다。

로동에 대한 근로자들의 새로운 관계는 또한 증산 경쟁 운동의 광범한 전개에서 더욱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기업소들에서 광범히 전개되고 있는 증산 경쟁 운동은 로동자들의 자각적인 로동 규률의 강화、생산 과정의 기계화의 장성、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의 제고、생산 혁신자들의 선도적 역할에 의하여 더욱 높은 단계인 동일 산업 부문 내 기업소 간의 경쟁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이 로동에 대한 자각적인 태도와 창발적 열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한 결과 一九五四년 상반년 계획은 공업 총 생산에 있어서 一〇〇%、그중 二·四분기 계획은 一〇一%로 완수하였다。이 결과 총 생산고는 一九五三년 상반년에 비하여 전체로 四九%가 장성하였다。 이리하여 一九五四년 상반년에 九〇개소 이상의 중요 기업소들이 조업을 개시하여 생산의 불길을 높이고 있다。 농민들도 열성을 다하여 식량 증산과 공업 원료 생산을 보장하고 있다。 一九五四년도 파종 면적 계획을 一〇七%로 초과 수행하였는바 一九五三년 六월말 현재에 비하여 벼는 三%、면화는 六%、담배는 四一%로 초과하였다。

이리하여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와 인민 경제에서의 생산 장성은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 생활 수준의 계통적인 향상을 보장하고 있다。

* * *

사회주의、인민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로동은 처음으로 생산자들의 부단히 장성하는 물질—문화적 수요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되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의 로동은 직접 생산의 주인인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 수준의 향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되였으며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는 그들의 로동의 결과에 의하여 평가받게 되였다。

특히 우리 공화국 헌법에는、「로력은 조선 인민의 영예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있어서 로력은 인민 경제 및 문화 발전의 기초이다」라고 명시되여 있는바 우리 나라에서의 로동의 새로운 성격과 그의 결과에 대한 근로자들의 개인적、사회적 리익은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착취와 실업이 존재하며 근로자들을 천대하는 사회에서는 로동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 로동에 대한 진정한 자유는 착취가 청산되고 실업과 빈궁이 근절되고 인민들의 생활 수준이 제고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로동은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우리 인민 경제가 더욱 앙양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생활 수준이 더욱 향상됨에 따라 더욱 자유로운 것으로、생활을 위한 수단으로 될 뿐만 아니라 생활의 요구로 될 것이다。

경제 절약은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의 가장 중요한 공간

김 교 영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경제적 특징은 그의 객관적인 경제적 법칙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사회 재산을 애호 절약하며 사회의 물질적 부를 부단히 증대시킴으로써 생산의 주인으로 된 근로자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자기의 근본 목적으로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엄격한 경제 절약은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인민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으로 된다.

레닌과 쓰딸린은 사회의 물질적 부의 증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되는 엄격한 절약제의 실시―이것이 없이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수행을 보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나라의 경제적 및 정치적 자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가르쳤다.

레닌은, 랑비와 절취, 탐오, 태공은 소위 사유 재산의 신성 불가침을 떠버리는 전복된 부르죠아들이 승리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주권을 반대하는 교활한 방법이라고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회계를 정확하게 또 정밀하게 하라, 절약적으로 경리하라, 태만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로동에 있어서는 가장 엄격한 규률을 지키라」(전집 一九五〇년 로문판 제二七권 二一五페지)고 교시하였다.

탐오, 랑비, 태공을 반대하는, 엄격한 절약을 위한 투쟁은 우리 조국이 영웅적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반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 인민이 인민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새 생활을 창조하게 된 그 첫날부터 우리 당 경제 정책의 본질적 요구의 하나로 되였다.

당과 김일성 동지는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필요 불가결의 조건의 하나로서 엄격한 절약 정책을 실시하며 국가 사회 재산을 눈동자와 같이 애호할 것을 항상 가르쳤으며 절취, 랑비 현상들과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며 『그들에게 엄숙한 재 인민적 가혹한 형벌과 제재를 가할 것』(『김일성 선집』 제二권 七七페지)을 강조하였다. 만일 우리가 탐오, 랑비, 절취 등 범죄 행위를 반대하는 이와 같은 엄격한 대책과 이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적극적 참가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확고 부동한 경제 및 문화적 기초를 구축하는 사업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특히 가렬한 조국 해방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부과되였던 물질적, 정신적 시련을 능히 극복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오늘 조선 인민은 전쟁에 의하여 혹심하게 파괴된 우리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 건설함으로써 민주 기지를 가일층 공고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급속히 개선 향상시키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 궐기하고 있다.

이 투쟁은 우리의 경제 지도 일꾼들과 인민들에게 우리 사회 제도의 물질적 기초로 되는 국가―사회 재산을 애호 절약하며 그를 백방으로 증대시킬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정치 경제적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다.

김일성 동지는 정전 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전체 조선 인민에게 보내는 방송 연설에서 절약 운동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호소하면서 『우리는 전쟁에 의하여 페허로 된 우리 조국을 복구한다는 것을 깊이 각오하고 국가 재산을 애호 절약하며 한 푼의 돈도, 한 알의 곡식도, 한 개의 못도, 한 오리의 실도 랑비하지 말고 절약하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적 물적 력량을 공업과 기본 건설과 인민 경제 복구에 투자하여야 하겠다』라고 교시하였다. 실로 경제 절약을 위한 투쟁은 현 시기에 있어서 전 인민적 애국 운동으로 되고 있으며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 * *

맑쓰―레닌주의 창시자들이 예견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은 과거 력사상에 존재하였던 그 어떤 생산 방식보다도 가장 선진적이며 가장 훌륭한 생산 방식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생산 관계는 생산력의 장성을 저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광활한 길을 열어주며 그의 가일층의 발전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조건을 지어준다.

그런데 맑쓰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은 다른 어떤 생산 양식보다도 비할바 없이 인간에 대한, 산 로동에 대한 랑비자로 된다. 즉 육체와 피의 랑비자로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신경과 뇌수의 랑

비자로도 된다』。 랑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유한 습성으로 되여 있다。 자본가들은 최대한의 리윤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생산비를 최대한으로 절약할 것을 기도하는 바 자본주의적 절약은 무엇보다도 먼저 로동 강도를 발광적으로 높이며 로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계통적으로 저하시키는 방법으로써 로동자들의 피와 땀을 짜내는데 기초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자본가들의 리윤의 증대와 근로자들의 생활비의 계통적인 감소는 이 사실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미국의 축소된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국 독점 자본의 리윤은 一九三八년의 三三억 딸라로부터 一九五二년에는 四○八억 딸라로 즉 一二·六배의 장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一九五二년 근로자들의 생활비는 一九三九년에 비하여 겨우 三배 밖에 증가되지 못하였으며 一九五二—一九五三년도의 주민들의 직접세는 一九三七—一九三八 회계 년도에 비하여 一二배 이상으로 증가되였다。 자본주의적 기업소에서 불변 자본의 축소 즉 생산 수단의 절약은 수 많은 근로자들의 죽음을 동반하며 로동자들이 로동 상해로 말미암아 불구자로 되는 것을 강요한다。

이상과 같은 살인적 로동 조건 하에서 자본주의 국가 근로자들은 자기의 생활적 권리를 고수하기 위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바 자본주의 국가에서 날로 장성되는 로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수백 수천만의 로동 일수를 상실하게 하고 있다。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의 개인 기업주들의 협소한 탐욕적인 목적에만 국한된 절약은 전체 소비자 대중의 리해와는 반대로 진행된다。 자기 리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가들의 생산 수단을 절약하려는 기도는 원료와 완제품의 위조에서 직접적인 사기로써 표현된다。

자본주의적 경쟁과 생산의 무정부성의 법칙은 절약의 원칙을 사회적 생산 전반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 범위에서 방대한 랑비를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레닌은 『전체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질서와 혼란성에 의하여 현재 얼마나 방대한 로력이 헛되게 손실되고 있는가! 시장의 요구를 알지 못하는 조건 하에서 수다한 매점가와 전매자들의 손을 걸쳐 원료가 공장주에게까지 이르는 동안 얼마나 시간이 허비되고 있는가! 비단 시간 뿐만 아니라 생산물 자체도 허비되며 손실된다。 역시 구매자의 요구를 알지 못하며 소용없는 운동 뿐만 아니라 소용없는 구매와 려행 등을 하는 수다한 소중개자들의 손을 걸쳐 완제품이 수요자들에게까지 도달되는 동안에 시간과 로력이 랑비되고 있다!』(전집 제四판 二○권 一三五페지)라고 강조하였다。 자본주의 경제의 무정부성은 또한 수 많은 자본을 류통 령역에 투입케 하며 방대한 비생산적 류통 비용을 소비하게 한다。

자본주의적 랑비의 최고 표본은 만성적인 과잉 생산 공황에서 여실히 표현된다。 생산의 정체, 과잉 산품의 소각, 실업군의 장성, 전쟁을 위한 발광적인 군비 경쟁 등 이 모든 것은 경제 공황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반적 위기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경제 법칙의 제 요구는 절약에 대하여 전연 새로운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매개 근로자들의 로동과 그의 생산물은 자본가들의 리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전 사회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바 이것은 생산자들 자신에게 생산에서의 최소한의 지출로써 최대의 성과를 달성할 데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조성시키는 것이다。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적 생산 방식의 발생과 함께 사회의 물질적 및 로력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이 조성되였는바 이것은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인민 경제를 정확하게 계획화하며 전 사회적 생산 규모에 있어서나 또는 그의 개별적 부문 및 매개 기업소들에서 경제를 합리적으로 또 절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으로 전변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파괴적인 과잉 생산 공황, 공업에서의 생산 능력의 불완전 조업, 농업에서의 거대한 경지 면적의 방치, 자연 부원에 대한 절취, 대중적 실업 등 비극적인 현상들을 알지 못한다。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 법칙과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의 작용과 그의 구체적인 제 요구들을 더욱 충분히 고려하면서 사회적 생산의 매개 부문들과 전체 인민 경제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키는 가장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방법들을 탐색 발견함으로써 생산의 장성 발전을 계속 보장하고 있다。

* * *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는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력의 장성을 제한하는 일체 사회적 조건들을 배제하고 처음으로 사회 생산력을 완전히 또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가능성은 자동적으로, 자연 생장적으로 현실성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광범한 근로 대중들이 사회적 생산의 예비력을 계통적으로 동원 리용하는 적극성과 창조적 로력을 발양하는 기초 위에서 모든 생산 수단과 로력을 정확히 타산 리용하는 데서만 보다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생산은 전체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생활 수준의 개선 향상을 위하여 발전하고 있는바 이것은 전체 인민들 앞에 엄격한 절약제를 철저히 실시해야 할 일상적인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엄격한 절약제—이것은 우리 당의 경제 정책에서

흘려 나오는 일상적인 경제 과업의 하나로서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주인답게 아끼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국가의 근본적 리익과 매개 인민의 리익을 결합시킴으로써 사회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또한 계획적으로 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절약제의 기본적 요구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적극성과 생산의 관리 및 조직을 생산의 내부 원천 동원에 지향시키는 데 있으며 인민 경제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기 위하여 그것의 능숙한 리용을 보장하는데 있다。

절약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축적된 자원을 랑비할 가능성을 배제하며 기업소들의 내부 원천과 가능성을 충분히 타산한 기초 위에서 시설과 자재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온갖 비생산적 지출을 감소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절약제의 성과는 선진적 기술 기준에 립각한 정확한 계획화에 의하여 로동 조직의 계통적인 개선과 모든 생산 과정의 합리화 및 그의 부단한 완성, 독립 채산제의 강화 및 기업소의 일체 재정 경리 활동에 대한 화폐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공장, 기업소들에 장비된 모든 기계 설비들을 보다 훌륭히 리용하며 원료, 자재, 연료 및 전력 등의 소비 기준을 엄수하며 로동 자금의 회전률을 촉진하며 임금 폰드의 부정확한 지출과 관리 기관 내의 각종 초과 지출을 근절하며 인민의 재물과 국가 재산을 랑비, 횡령, 절취하는 범죄적 행동들과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러한 것이 절약제의 구체적 과업으로 된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 궐기하고 있는 조선 인민은 이 부면에서 벌써 고귀한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자재, 로력, 기술, 자금 등의 부족과 기타 모든 곤난한 조건들을 극복 타개하면서 로동 계급을 선두로한 애국적 근로 인민들은 적극성과 창발적 열의를 발휘함으로써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우고있다。

성진 제강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一九五四년도 생산 계획을 四〇일간 단축하여 실행할 것을 결의하고 고도의 애국적 헌신성과 창발성을 발휘함으로써 생산 능률을 부단히 제고하고 있다。 그들은 전기로 승강 장치를 랭각식으로 창의 개조하여 그의 수명을 三배로 연장시켰으며 석회석 대신에 파벽돌을 리용하여 용해재를 절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해 작업 능률을 현저히 제고시켰다。

황해 제철소 로동자들은 철골 작업에서 부족한 자재를 해결하기 위하여 四六九톤의 유휴 자재를 회수 리용하였으며 기계 설비의 조립 작업에서 八二〇여 개의 부속품들을 수집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으로써 외국 수입품에 의존하지 않고 이를 자체 해결하였다。

김재규 지배인이 지도하는 공장 로동자들은 금년 一·

四분기에 二九건에 달하는 창의 고안을 하여 국가에 四八〇여 만원의 리익을 주었으며 김유필 지배인이 사업하는 공장의 선반공 박창식 동무는 『엔도레스캇다』를 창안하여 생산 능률을 一〇배로 높였으며 이 부문에서 연 二,〇〇〇여 공수의 로력을 절약케 함으로써 一一만여 원의 리익을 국가에 주었다。 기타 광산, 교통 운수, 림산, 농촌 경리 등 모든 방면에서 복구와 건설의 우렁찬 진군이 진행되고 있는바 실로 우리 인민 경제는 날이 갈쑤록 새로운 투쟁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이것은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땀을 흘리는 것을 무쌍한 영예로 생각하며 국가와 사회의 리익이 자기 개인의 리익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간직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자재와 로력과 자금으로써 최대한의 성과를 쟁취하려는 고상한 외무감과 애국주의적 열성의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의 복구 건설 사업 행정에는 적지 않은 결함들과 비 경제적 현상들이 존속하고 있다。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많은 생산 부문들에서 잠재적 예비들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그를 주인답게 합리적으로 리용할 데 대한 노력과 대책이 부족한 사실이다。

일부 경제 지도 일꾼들은 국가 재산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그를 철저히 절약하기 위한 관심을 적게 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소들의 재정 경리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한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 적지 않은 경제 지도 일꾼들은 아직도 『적은 일』에 대하여 주의를 돌리려고 하지 않으며 또 자소한 축적과 저축이라도 그것이 수천 수백만원의 국가적 축적을 가져오며 우리 인민 경제를 거대한 규모로 발전시키는 데 거대한 역할을 논다는 것을 타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경제 일꾼들은 생산 행정의 기계화에 등한하며 생산의 질적 지표에 대하여 무관심한 데로부터 허다한 로력과 자재와 자금을 랑비하고 있다。 생산에서의 오작품의 존속과 건설에서의 불합격 시공의 속출은 가장 엄중한 랑비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경제 지도 일꾼들은 사업의 량적 면과 속도에만 치중하고 질적 면을 등한시함으로써 수 많은 자재와 로력과 자금을 들여 생산 또는 시공한 것이 무용 지물로 되여 버리거나 또는 재시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비 경제적 현상들을 발로하고 있다。

이러한 비 경제적 현상들을 시급히 퇴치하는 동시에 엄격한 절약제를 강화하는 투쟁은 매개 일꾼들과 전체 인민들의 고상한 국가적 임무로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제도의 본질로부터 흘러 나오는 고상한 도덕적 요구인 것이다。

그러므로 절약제를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인민 경제 내부의 축적을 증대시키며 로동 생산 능률을 백방으로 제고하며 생산 원가를 계통적으로 저하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우리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축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 * *

엄격한 절약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인민 경제의 계획화와 그의 철저한 수행이다。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의 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며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 법칙의 작용을 옳게 타산한 기초 위에서 수립되는 인민 경제의 계획화는 사회적 생산의 전체 부문과 개별적 부문의 발전을 위하여 현존하는 물질적, 로력적 및 화폐적 자원의 가장 합리적인 분배와 리용을 보장한다。

인민 경제 계획화는 현존하는 생산 설비와 로동력을 가장 경제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며 생산 기간을 단축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함에 있어서 기업의 전문화, 공장, 제조소들의 협동화 및 각이한 공업 부문 일꾼들의 상호 협조 등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계획적으로 창설하며 그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

인민 경제 특히 공업 분야에서의 기업의 분산성은 기계 설비의 불충분한 리용을 초래하며 관리 기관들에서의 비생산적 지출의 증가를 야기시키며 따라서 불가피적으로 생산물의 원가를 고등케 한다。 그러므로 절약제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계획 기관들이 이러한 불합리한 조건들을 제거하는 방향에서 기업 조직을 부단히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절약제를 강화함에 있어서 인민 경제 계획화의 본질적 조건의 하나는 생산 및 분배에서 불균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인민 경제에서 불균형성의 발생을 허용한다면 그는 불가피적으로 개별적 부문과 기업소들의 작업 중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생산 능력의 불완전 리용과 생산의 장성 템포의 지연을 초래한다。 례컨대 산림 채벌량과 제재 가공량과의 불균형은 채벌된 목재의 불필요한 체화를 동반할 것이며 그 부문의 생산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 인민 경제에서의 생산과 분배의 발란쓰를 현실적 가능성에 기초하여 최대한으로 정확하게 작성하고 이로부터의 일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직적 대책을 제때에 강구하는 것은 생산의 계속 진행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절약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된다。

절약제를 강화함에 있어서 기본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문제이다。

김일성 동지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서 우리 나라 공업의 발전 전망과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공업의 재배치 문제에 중대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생산을 원료 원천지와 소비지에 접근시키며 공업 중심지의 창설과 그의 발전을 보장하는 생산력의 합리적

인 배치는 무엇보다도 생산의 협동화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초원거리 수송, 반복 수송 등 화물 수송의 불합리를 제거하는 동시에 인민 경제의 모든 자원들을 합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리용할 가능성을 지어 준다。

그러므로 생산력을 우리 나라 공업 발전의 원대한 계획에 순응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수송 조건을 유리하게 해결하게 하며 이에 기초하여 수송 수단의 절약, 연료의 절약, 수송 비용의 절약, 상품 회전 속도의 촉진 그리고 생산에 투자된 자금의 회전 속도를 촉진함으로써 산 로동과 물체화된 로동을 절약케 한다。

다음으로 절약제 강화의 필수 조건의 하나는 매개 기업소들이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정상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기자재의 공급을 정확하게 보장하는 그것이다。 기자재 공급이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그러한 곳에서는 기업소들의 작업 중단이 불가피적으로 발생하며 또 그 결과 시설과 로동력의 정체와 생산 능률의 불완전 리용이 불가피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여기에서 특히 강조하여야 할 것은, 일부 기업소들에서 기자재 공급이 제때에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기자재의 절대량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일꾼들의 부정확한 계획과 비조직적인 사업 태도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바와 같이 일부 성 (관리국), 기업소들은 협소한 기관 본위주의에 사로잡혀 자기의 생산 활동에 당장에는 필요치 않은 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유 사장함으로써 다른 성과 기업소의 생산 활동에 인위적인 곤난을 조성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기자재 공급 사업을 일층 개선하며 계약에 예견된 상호 의무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기업소들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들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하는 동시에 일부 기업소들이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예비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을 강구 실시하는 것이 절약제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생산 과제를 수립함에 있어서 경제 기관 지도 일꾼들은 반드시 절약제의 제 원칙을 타산한 기초 위에서 시설 리용의 선진적 기준에 의거하여 생산 능률의 계산을 정확히 하며 선진적 기술과 보다 완성된 로력 조직에 의거하여 로력 기준량을 설정하여야 한다。 만일 원료, 자재, 전력 및 연료의 소비 기준을 터무니 없이 많이 설정하거나 로임 폰드를 과다하게 계획한다면 절약제는 파탄되며 사실상 랑비와 초과 지출을 허용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생산의 일체 내부 원천과 가능성들을 타산하지 않는, 추정에 의한 계획화는 동원적 의의를 상실하게 되며 기업소들과 건설 공사장들에서의 일꾼들을 가장 엄격한 절약제를 위한 투쟁에로 향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산 계획은 기업소의 로동자와 사

무원들을 비생산적인 지출과 비경제적 랑비와의 투쟁에로 궐기시키는 방향에서 수립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 매개 국영 기업소들과 경제 기관들은 고립된 경제적 단위가 아니라 유일한 국가 계획에 의하여 운영되는 인민 경제의 불가분리적인 부분이다。 이것은 모든 경제 일꾼들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협소한 기관주의적 리해에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전 인민적、전 국가적 리해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에서의 정확한 계획화와 경제 지도의 주요 기준——즉 엄격한 절약제 실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경제 기관들과 경제 지도 일꾼들은 언제나 인민들의 근본적 리익을 옹호하며 우리 나라 발전의 제 요구를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우리 당과 정부의 정책의 본질을 철저히 체득함으로써 자기 사업에서 항상 인민과 국가의 리익을 견지하며 국가 규률의 엄격한 준수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데서만 엄격한 절약제는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국가 계획——이것은 법령이다。 계획의 정확한 수립과 수립된 계획의 책임적 수행、이것은 우리 경제 일꾼들과 전체 인민의 숭고한 의무이다。

다음으로 절약제의 철저한 실시를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경영 관리의 기본 방법인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는 문제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독립 채산제는 우리의 국영 및 협동 단체 기업소들의 경리상 독자성에 기초하여 국가 계획을 완수하며 물질적 및 화폐적 자원의 합리적 지출에 대한 기업소의 완전한 책임성에 기초하여 기업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독립 채산제의 도입은 사회화된 기업소들에서 가치 법칙의 영향을 타산할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그것은 우리의 경제 일꾼들을 생산에 대한 합리적 운영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훈련하며 생산량을 정확히 계산하며 또 생산 내부에 숨어 있는 예비를 탐색 리용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데 있으며 생산 방법을 계통적으로 개선하며 그의 원가를 저하시키며 생산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데 있다。

독립 채산제란 다른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일정한 집단이 기업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그에게 부여된 고정 폰드와 류동 폰드를 합목적적으로 동원 리용하면서 자기 수입 중에서 일체의 출비를 충당하고 국가에 일정한 수익을 주는 것을 예견하는 경리 방법이다。 따라서 독립 채산제의 본질적 요구는 최소한의 출비로서 최대한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국가에 최대의 수익을 주는 데 있다。 그러므로 독립 채산제는 또한 가장 절약적 경리 형태이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에 관한 법령은 계획 년간에 공업 생산품의 원가를 약 二〇——二

二%、건설—조립 가격을 一一% 저하시킬 것을 예견하면서 이를 위하여 로력 조직과 작업 시간의 리용을 개선하며 원료、자재、연료 및 전력을 더욱 합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리용하며 비 생산적 지출을 저하시키며 수송 원가、수매비 및 류통비 등을 현저히 저하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생산 조직、로력 조직의 합리화 및 작업 조건의 원만한 보장에 의하여 기계 설비의 공회전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며 기계 설비의 수명을 연장시키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의 일상적 정비를 보장하며 기계 기대를 눈동자와 같이 애호하는 것 등을 예견한다。

그리고 이것을 원료、자재、연료 등 류동 폰드의 소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며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에 의하여 산 로동을 절약하며 오작품의 생산과 불완전 시공을 근절하며 제품의 질을 계통적으로 제고하며 류통비、행정 관리비의 축소 및 기타 비 생산적 지출을 최대 한도로 축소시키기 위한 투쟁을 일상적으로 강화함으로써만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생산물의 원가를 계통적으로 저하시키기 위한 이와 같은 방도들은 우리의 경제 지도 일꾼들의 능숙한 지도적 수완과 조직적 기능을 요구하며 직업 동맹、민청 단체 등 대중적 단체들의 적극적 방조를 요구한다。 인민의 물질—문화적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자기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제품의 원가를 계속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을 경제 지도의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다。

엄격한 절약제와 독립 채산제를 강화함에 있어서 재정 및 신용 기관 측으로부터의 원화폐에 의한 통제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은행 기관들은 자기의 대부 결제 업무를 통하여 경제 기관들의 생산 재정 계획의 수행을 방조 통제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내부적 예비를 최대한으로 적발 리용케 하며 시설의 불충분한 리용、자금 리용의 불합리 등 부정적 현상들을 폭로하고 계획 및 재정 규률의 위반을 근절하는 데로 지향시키고 있다。

매개 기업소들과 매개 건설 부문들에서 절약제와 독립 채산제를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경제 일꾼들이 기업 경영의 기본 방법을 연구하고 생산에 대한 가치 법칙의 작용과 수입과 지출의 발란쓰를 정확하게 타산할 줄 알아야 한다。 원가 구성을 구체적으로 리해하지 못하고 자금의 회전 속도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타산할 줄 모르는 경제 일꾼들에게서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한개의 모험이며 계산 체계를 확립함이 없이 기업을 관리한다는 것은 자진하여 암중모색의 경지에 들어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때문에 현 시기에 있어서 매개 경제 단위들에서 엄격한 절약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가장 긴급하게 제기되는 과업의 하나는 기업소의 재정 경리 체계를 정돈하며 경영 결과를

거울처럼 반영하는 부기 발란쓰의 적시적 계산을 보장하는 것이다.

* * *

절약제—이것은 우리 사회 제도 자체의 본질적 요구로부터 출발하는 우리 당 경제 정책의 기본적 과업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방대한 경제 건설을 담보하는 위력있는 경제적 공간이다. 절약제의 성과는 몇몇 지도 일군들의 선동적 호소나 일시적 깜빠니야식 방법으로써는 달성할 수는 없다. 인민 경제 분야에서의 엄격한 절약제의 실시, 이것은 우리 나라 근로 대중의 경제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목적 지향성이며 그들의 창조적 로력 투쟁인 것이다.

때문에 전체 인민이 이 투쟁의 의의를 더욱 심오하게 인식하고 생산 내부 원천을 적극적으로 탐색 리용하며 사회적 재산을 자기 것처럼 애호 절약하는 전 인민적 투쟁을 강화하는 데서만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을 승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우리 혁명의 근거지—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속도를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최근의 남조선 정세

전 동 혁

력사적인 八·一五 해방 후 이미 九년이 경과하였으나 우리 조국 남반부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아직도 남북으로 분렬된 채 남아 있으며 우리 인민의 절실한 념원인 민족적 통일과 국토의 완정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조선 인민은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계속하여 왔으며 또 하고 있다. 우리 인민의 이러한 투쟁은 쏘련,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았으며 또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반대하여 우리 나라와 인민에 대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미제와 그의 주구 리승만 역도들은 정전 이후에도 조선에서의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아세아에서의 새로운 군사적 모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조선 정전 협정을 란포하게 위반하며 리승만 괴뢰 군대를 확대, 강화하며 『북진 통일』을 고창하는 한편 남반부의 인민들과 자원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며 일본을 포함하는 침략적 아세아 쁠럭의 조작을 획책하는 등 모험적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

그러면 이하에서 미제 강점 하의 최근의 남조선 정세를 간단히 개관하기로 하자.

一, 정치 정세

영웅적 조선 인민과 그의 무장력에 의하여 조선 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정전 협정에 조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던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은 정전 후 조선 정전의 불안정성을 조성하며 조선에서의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한미 호상 방위 조약』을 조작하여 냄으로써 미군의 남조선 영구 주둔을 획책하고 있으며 리승만 괴뢰군을 대대적으로 증강시키는 군

사적 모험 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최근 미국 지배층들은 리승만 괴뢰 군대를 증강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밴 플리트를 남조선으로 파견하였다。 조선 전선에서 결정적 패배를 당하고 패전 장군의 설음을 안고 미국으로 도라갔던 악명 높은 전 미군 八군 사령관 밴 플리트는 워싱톤과 서울을 넘나 들면서 현재 二〇개 사단의 괴뢰군을 三五개 사단으로 확장하며 『거대한 공군 부대』를 건립하기 위한 책동을 발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리승만 괴뢰 정부 국방 장관 손원일은 지난 四월 一二일 기자단 회견 석상에서 앞으로 『국방군』은 一〇〇만의 예비병력을 편성하는데 착수할 것이라고 호언하면서 三五개 사단의 륙군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을 공공연히 떠버리고 있다。

한편 현재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八군 사령관 테일러는 지난 七월 一七일 미국은 리승만 군대 증강 사업의 첫 계단의 조치로서 제一 야전군을 조직하여 금년 三월부터 이미 활동을 개시하고 있으며 둘째 계단의 조치로서 훈련 사령부를 조직하여 八월부터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며 다음 세째 계단의 조치로서 후방 지역 사령부를 조직하여 활동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은 일선 병력의 확장을 위한 이와 같은 책동과 아울러 예비 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미 작년 八월에 『반공단』、지방 소방대』、의용 경찰대』、북진 통일 련대』 등 일체 테로 단체들과 반동적 청년 단체들을 규합하여 소위 『민병대』라는 것을 편성하였다。 그리하여 만 一七세로부터 四〇세까지의 남조선의 청 장년들을 끌어다가 강제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조선 인민들을 자기들의 대포밥으로 만들기 위하여 광분하고 있는 미제와 리승만 매국 역도들은 일방으로는 과거에 일본 군국주의에 가담하였던 민족 반역자、친일 분자들과 또는 친미 분자들로써 괴뢰군의 상층 지도부의 구성을 개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지휘 하에 남조선 전 지역에 걸쳐 군사 경찰 통치 제도를 일층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이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반대하며 조선에서의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모험적 책동이다。 그러나 이들의 어떠한 흉책도 강력한 평화 력량 앞에 반드시 분쇄되고야 말 것이다。

한편 미국 지배층은 아세아에서의 자기들의 침략적 군사 모험 정책을 추구하기 위하여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그와 리승만 괴뢰군을 중심으로 태평양 지역의 여러 괴뢰 고용군들을 규합하여 이 지역의 침략적 군사 쁠럭을 조작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이 지역 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하여 결음마다 파탄되고 있다。

지난 六월 미국의 주재 하에 남조선의『미국 군항』진해에서 개최되였던 『아세아 반공 민족 회의』의 실패는 이것을 실증하여 주는 것이다。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은 제네바 회의에서의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토의를 방해하는 한편 태평양 지역의 군사 쁠럭의 조작을 위한 기초 공작으로서 『아세아 반공 민족 대표 회의』를 제네바 회의가 열리는 날자와 동일한 四월 二六일에 개최함으로써 이 지역 인민들의 여론을 이에 집중시키고 세계 인민들을 기만하여 보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어리석은 시도는 완전히 실패되고 말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은 금년 二월부터 三월에 걸쳐 三회나 동남 아세아 각국에 사절단들을 파견하여 이 회의 소집을 위한 준비 공작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예견하였던 인도、인도네시아、비르마와 같은 나라들은 이 회의의 참가를 거부하였으며 비률빈、대만、타이、바오다이 괴뢰 월남、류큐 렬도、마까오、홍콩 등의 미국의 괴뢰 대표들만이 이에 참가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참가한 나라들도 자기 나라의 정식 대표를 파견하지 않고 소위 민족 대표라는 명목하에 이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그것도 二〇명 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당황한 서울 주재 미국 대사 대사관으로부터 一二명의 위원을 급거 파견하여 기세를 돋구려는 추태까지 연출하게 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의 첫 시도가 완전히 실패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연출한 진해 회담의 흑막을 여실히 폭로하여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五월 一四일 에이·에프·피 통신은 이 회의의 성과에 대하여 『그들이 추구하던 반공 련맹의 선거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으며 그 후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조소하는 론평을 게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지배층은 『반공 태평양 군사 쁠럭』 조작에 대한 자기들의 흉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 대통령 특사 밴 플리트가 남조선、일본、대만、비률빈 등 지역을 력방하면서 공적、사적 회담을 진행하는 사실과 리승만을 워싱톤으로 불러간 일련의 사실들은 이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더우기 밴 플리트는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일본을 핵심으로 하는 태평양 지역의 군사 쁠럭을 조작하기 위한 미국의 계획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것이며 미국은 새로 재생되는 일본 군국주의를 태평양 지역 군사 쁠럭에 인입하기 위하여 로력하여 왔으며 또 앞으로도 로력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미국 호전 분자들의 이와 같은 침략적 군사 쁠럭 조작 계획은 아세아 인민들의 강력한 반항에 부닥쳐 조금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힘의 정책』에 기초한 군사적 모험이 걸음

마다 파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배층들은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반대하고 극동에 있어서의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새 전쟁 도발을 위한 흉악한 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최근 아이젠하워와 리승만의 회담의 결과 발표된 공동 성명과 미국 상 하 량원 합동 회의에서의 리승만의 연설에서 명백히 알려진 바와 같이 그들은 이미 진부한 『유·엔의 원칙』과 『유·엔의 결의』를 방패로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반대하며 『공산주의에 대한 진공』, 『공산주의에 불리하게 세력 균형의 전복』 등을 위하여 공동 노력을 할 것을 소리 높이 웨치고 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미 붕괴하기 시작한 미제의 침략 정책을 수습하며 세계 인민들로부터 고립된 땅에 떨어진 자기들의 위신을 만회하기 위하여 조선에서의 전쟁 준비를 강화함으로써 아세아에서의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흉책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와는 반대로 그들의 공동 성명과 리승만의 도발적 연설은 전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맹렬한 규탄을 받았으며 미국과 영국 등의 부르죠아 출판물까지도 이에 대하여 신랄한 론평을 가하였던 것이다。

뉴욕 타임스 지는 『리승만의 주장은 세계 대전을 일으킬 주장으로서 그것은 스스로 패배할 것이다… 이것은 오직 파멸로써만 끝날 수 있는 전쟁에서 미국으로 하여금 고립되게 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 영국 신문 요크셔 포스트 지는 리승만의 연설에 언급하면서 『이 남자는 피묻은 마음을 가진 위험물이다』라는 표제 하에 리승만이가 제三차 세계 대전을 유발하여 우리의 머리 위에 수소탄을 퍼붓게 할 것을 기도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이와 같이 전쟁 히스테리를 고취하며 새 전쟁 도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은 리승만의 워싱톤 방문과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에서 로골적인 도발적 행동까지 감행하였다。

지난 七월 三○일 리승만의 충실한 졸도인 남조선의 소위 헌병 사령관 원용덕은 남조선에 주재하고 있는 중립국 감독 위원회의 파란, 체코슬로바키야 측 성원들의 즉시 철거를 강요하면서 만일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적당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적인 성명을 발표하였다。 리승만 도당은 이 도발적인 성명에 뒤이어 미국측 군사 통제 하의 남조선 지역의 인천, 부산, 군산, 서울, 강릉 등지에서 중립국 시찰 소조원들을 모욕하며 위협하는 계획적인 시위 행진을 감행하였다。 심지어 부산, 군산 등지에서는 중립국 시찰 소조에 대하여 총을 발사하고 폭탄을 던지는 등 수치스러운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러한 도발적인 행위가 워싱톤에서 리승만의 도발적인 연설과 때를 같이하여 감행되였다는 사실은 미제

와 리승만 역도들이 조선에서의 정전 협정을 파괴함으로써 아세아에서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려는 미제의 침략 정책의 표현이며 이와 유기적으로 관련되고 있는 리승만 괴뢰군을 증강하는데 필요한 군사 예산 및 군사 기자재를 미국으로부터 더 많이 받기 위한데 직접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발 사건이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의 미리 작성된 계획에 의하여 야기되였다는 것은 미 국무장관 덜레스와 헐이 중립국 감독 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최근 미국 지배층들은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일부 미군의 철퇴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조선에서의 평화의 공고화를 위하여 철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으로는 자기들의 침략적 계획에 의한 다른 지역에서의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과 타방으로는 리승만 괴뢰군을 증강하기 위한 음흉한 목적 밑에 진행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八월 一八일 남조선 괴뢰 국회는 긴급 전원 회의를 소집하고 남조선 지역으로부터의 미군의 철퇴를 반대하며 그의 영구 주둔을 애걸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소동까지 일으켰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 미제가 남조선에서 계속 추구하고 있는 음흉한 침략적 군사화 정책을 적라라하게 밝혀 주는 것이며 이에 맞장구를 치는 리승만 매국 역도들의 매국적 행동을 철저히 폭로하여 주는 것이다。

미제와 리승만 매국 역도들의 이러한 비렬한 술책과 음모는 정치적 방면에도 여실히 반영되고 있는바 최근의 남조선의 내부 정치 정세는 거기에서의 소위 『지배』층 내부의 모순과 투쟁의 격화, 반대파에 대한 테로적 탄압에 의한 리승만 독재의 『강화』, 인민 대중으로부터의 『지배』층의 가일층의 유리 등으로써 특징지어진다。

지난 五월 二○일에는 제三차 괴뢰 국회 (소위 민의원) 선거가 진행되였는바 이 선거를 통하여 리승만 도당과 반대파 정당 사이에서와 혹은 리승만 도당 내부에서의 정권 쟁탈을 위한 추악하고 거리낌 없는 당파 투쟁의 실태와 리승만 『정부』의 파쑈, 테로적 정체가 더욱 명백히 폭로되였다。

一九四七년 쏘 미 공위 사업 당시에 남조선에 존재한다고 한 소위 四六三개의 정당, 사회 단체들 중 리승만의 테로 폭압 하에 오늘까지 여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당으로서는 리승만의 『자유당』이외에는 김성수의 『민주 국민당』 하나 뿐이며 사회 단체로서는 리승만의 직접적 지휘 장악 하에 있는 『대한 로총』, 『대한 부인회』, 『대한 농민회』 三개 뿐이다。

리승만을 총재로 하는 『자유당』은 친미파, 친미 매관 자본가, 매국노, 테로 분자들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주로 농촌 반동 지주층에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명목상으로 전 괴뢰 국회 부의장 신익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나 실지에는 친일파의 괴수 김성수를 당수로 하고 있는 『민주 국민당』은 친일파, 민족 자본가들, 일부 반동 지주들이 망라되고 있으며 주로 도시의 반동 상인들과 소시민층에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一九五二년의 五·三〇 단독 선거에서 이미 파쑈화한 리승만 『정권』은 금번 선거에 있어서도 과거의 모든 『선거』에서와 같이 테로와 학살과 기만으로써 반대당의 립후보자들을 배제하며 선거자들을 협박하여 괴뢰 『민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현재 남조선에서 유일한 정권당으로 되였다.

리승만은 금번 선거 실시에 있어서 우선 반대파에 속하는 립후보자들의 등록과 선거 운동을 협박과 테로로써 방해하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몇가지 사실만 들어보자. 괴뢰 정부의 전 국무 총리 서리 (대리) 허정의 선거 운동자는 리승만 경찰에 피검되여 고문치사하였으며 이 사실을 보도한 『국제 신보』 기자 四〇명은 피검되였다 (五월 二三일 서울발 유·피 통신). 五월 一八일 뉴욕 타임스지 보도에 의하면 전 괴뢰 국회 의장이며 현 『민주 국민당』 위원장인 신익희는 그가 출마한 경기도 광주 『선거구』에서 一五명의 자기편 사람들이 투옥되였고 남조선 전역에서 五〇명 이상의 자기편 사람들이 투옥되였다고 언명하였다 한다. 五월 一八일 로이터 통신은 『경찰의 공갈 협박 및 실제적 폭행이 선거 운동에 추악한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추악한 파쟁은 리승만의 『자유당』 내부에서도 작년 九월 이래 계속되고 있다. 리승만은 작년 五월 소위 『제二차 전당 대회』 이후 이 당 내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리범석의 계렬에 속하는 『내무부 장관』 진헌식, 『상공부 장관』 리재형 등을 파면하고 작년 一二월에는 리범석을 비롯한 이들 당원 八명을 출당 처분하고 이번 선거에는 리승만 직계만이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소위 『공인 립후보제』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一)자유당 총재의 당 정책에 절대 복종하며 (二)당선된 후에는 『개헌안』을 절대 지지할 것을 서약하는 자만을 『공인 립후보자』로 하는 것이였다. 이 규정의 실시에 의하여 자유당 내에서 一六七명의 립후보자가 제명 처분되였다. 리승만은 또 四월 六일에 한 자기 성명에서 『금번 五·二〇 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추구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체 유권자들은 매개 립후보자들로부터 개헌안을 지지한다는 보장을 받고 선거하라』고 방언하였다.

리승만과 미군 당국은 선거에 제하여 남조선 전역을 삼엄한 테로의 분위기로 휩싸고 곤봉과 총검으로써 선거자들을 투표장에로 내여 몰았다. 五월 一七일 로이터 통신은 『모든 선거장 주위에는 중기와 경기가 배치되여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五월 一八일 유·피 통신은 『남조선은 곤봉과 총검으로 무장한 리승만 경찰

들이 선거 준비에 간섭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새로운 테로 통치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테로와 협박으로도 부족했던 그들은 투표를 날조하였다. 五월 二三일부 『동아 일보』에 의하면 부산 병(丙)구에서 립후보한 『자유당』 『공인 립후보자』 정기원에 대한 투표 중에는 一〇〇표를 풀로 붙인 뭉테기가 들어 있었다. 리승만과 미국측이 『유·엔 위원단의 감시 하에』 진행된 선거 결과라고 발표한 九一·六%라는 투표률은 바로 이러한 방법들로써 조작된 것이였다. 五월 二一일 동경 방송까지도 『이 투표률의 리면에는 경찰 테로의 강제 동원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총검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자들 중에 진정한 인민의 대표가 있을 수 없다. 그 중에는 七九명의 매판 자본가, 二一명의 지주, 六七명의 반동 관리배, 기타 악질 군인, 경찰, 테로 두목, 매국노들이 포함되여 있으며 로동자, 농민의 대표, 애국적 문화인, 인테리 등은 한사람도 없다. 전번에 비하여 많은 군인들과 경찰 출신이 훨씬 많은 것은 리승만 정권의 파쑈화의 강화를 말하여 준다.

리승만 도당은 이리하여 이번 『민의원』에서 반대당(『민주 국민당』)을 압도하고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자당 대의원 중에서도 자기 직계 분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리승만은 최근 괴뢰 국회의 의장, 부의장, 각 분과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자파의 대의원으로 체대하고 변영태를 수반으로 소위 장관, 차관에 이르기까지 자파 당원으로 되는 『신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자기의 파쑈 독재를 일층 『강화』하였다. 괴뢰 국회와 내각을 자기 직계로써 『공고화』한 리승만은 자기 당 내에서도 전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래의 『중앙 위원회』제를 폐지하고 몇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중앙 상임 위원회』 제로 바꾸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또는 이 모든 것 때문에 리승만 『정권』은, 『국회』에서는 물론 자기 당 내에서까지도 전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바 그것은 『신 내각』에 대한 신임 투표에서 (七월 二三일) 이미 명백히 되였다. 변영태를 『국무 총리』로 하는 괴뢰 정부 신 내각은 괴뢰 민의원 二〇三명 중 다만 九八명의 지지 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一회 투표에서 신임을 얻지 못했으며 국회 내부에서의 리승만 계렬과 이여의 그루빠 간의 대립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로흥 리승만은 자기의 파쑈 독재를 더욱 확고히 하며 영구화하기 위한 『개헌안』을 이미 금년 一월 전 『국회』에 제출하였다가 반대를 만나 三월에는 그를 철회하였던 것이다. 금번 선거에 그가 자기 직계 종복들만으로써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광분한 것도 『국회』를 개선하여 자기의 숙망인 『개헌안』을 속히 통과시키려는데 중요

한 목적의 하나가 있었다。 『국회』와 『정부』를 자기 직계들로써 재 편성한 다음 그는 곧 이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책동을 개시하였다。 그는 『정부』내의 졸개들로써 『헌법 개정 위원회』를 조작하여 『경제 조항 개헌안』, 『종신 대통령제 및 정부에 의한 민의원의 해산권 부여에 관한 개헌안』, 『국무 장관제』등 『개헌 초안』을 준비하고 七월 一九일부터 이를 토의하기 시작하였다。 이 『개헌안』들은 지난 八월 二六일 『자유당』내에서 통과되여 九월 六일 『민의원』의 심의에로 회부되였다。

『경제 조항 개헌안』이란 요컨대 남조선의 『국영』 또는 『공영』 기업에 미국 기타 외국의 독점 자본을 광범히 침입케 하자는 것이다。 이 안건은 이미 전 괴뢰 국회에서조차 『민족 국민당』을 비롯한 절대 다수 의원들의 반대에 봉착하여 철회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배족 매국적 안건인 것이다。 『종신 대통령』 및 『민의원 해산권』 안은 설명의 필요조차 없으며 『국무 장관제 개헌안』 이란 종래에 형식상 『국무 총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권을 미국 헌법을 모방하여 소위 대통령 리승만 자신이 직접 장악하고 국무 총리에 대한 인준권을 괴뢰 국회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다。

정권 쟁탈—인민에 대한 략탈과 폭압의 권력 쟁탈을 위하여 추악한 개싸움을 하고 있는 리승만 도당과 전체 반동 『지배』 층들은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더욱 더 결정적으로 유리되여 가고 있다。

二、경제 정세

미제와 리승만 역도가 남조선에서 계속 실시하고 있는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새 전쟁 준비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산업 경제는 더욱 혹심히 파괴되고 있다。

미국은 정전후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략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침략 기관인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와 『유·엔 한국 재건단』의 권한과 활동을 일층 확대 강화하고 있다。

정전 이후 미국은 소위 『원조』의 미명하에 리승만 『정부』로 하여금 一九五四 회계 년도(一九五三년 七월 一일부터 一九五四년 六월 三○일까지)의 소위 『대한 부흥 원조 계획』을 작성케 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유·엔의 『원조』에 의하여 작성된 이 계획은 아직까지도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남조선 잡지 『법률과 경제』(一九五四년 五월호)는 一九五四 회계 년도의 소위 『대한 부흥 원조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 화려했던 재건 계획도 하나의 환상에 지나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이 그림의 떡으로 되였다』。

미국이 남조선에 대하여 제공한다고 떠드는 『원조』의 정체가 이렇게 폭로되였기 때문에 지난 五월 一九일 유·피 통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주한 미 상업

회의소 회두 폭스 자신도 『미국은 한국 재건 사업에서 참패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침략적 목적과 경제적 예속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미제의 이와 같은 『원조』와 『부흥 계획』은 남조선의 산업을 계속 파탄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다。 『한국 은행 조사 월보』에 의하면 남조선 경제는 一九五三년도에 있어서 전략 물자의 채굴과 군수품 생산을 위한 광공업이 一九四九년도에 비하여 약간 증대되였을 뿐 일반 민수품 생산에 있어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잉여 소비 상품 반입과 사치품 수입을 주로 하는 밀무역으로 인하여 완전히 침체 상태에 빠지고 있으며 그의 생산량은 八·一五 이전에 비하여 二○% 밖에 되지 않으며 공업의 자급률은 一○%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것이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원조』의 결과인 것이다。 때문에 七월 二四일 리승만 정부의 소위 주미 대사 양유찬까지도 신문 기자 회견 석상에서 『북한에서는 산업 건설이 착착 진행 중에 있는데 남한에서는 아직도 건설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전반적으로 파괴된 남조선의 산업 중에서 약간 증진을 보이고 있는 광업조차 금년 三월로서 만기 종료된 『한 미 중석 협정』을 미국 측이 파기하였기 때문에 현재에는 거의 생산이 정지된 형편에 있다。 이 『한 미 중석 협정』의 파기는 우선 리승만 정부의 입초 무역에 치명적 타격을 주었다。

리승만 정부의 一九五三년 무역 수출액 四、五三五만 딸라 중에서 七○%에 해당하는 三、一二六만 딸라가 중석 수출에 의한 수입이였으며 또한 리승만 정부는 이 중석 수출에 의하여 一九五四년 『한국 재건 부흥 계획』중에서 그가 부담한 一二、○○○만 딸라의 반액인 六、○○○만 딸라를 념출할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때문에 『중석 협정』의 파기는 리승만 정부의 무역 뿐만 아니라 소위 一九五四년도 『부흥 계획』까지도 파탄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一九五三년 一월부터 九월까지의 남조선 무역 형편을 보면 수출액 二九一、八三四만환에 대하여 수입액은 근 六배나 되는 一、六七七、四四三만환으로서 실로 一、三八五、六○九만환의 수입 초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조선의 입초 무역은 주로 밀수입 무역에 의한 것이다。

一九五三년 九월 二七일 부『서울 신문』에 의하면 이미 남조선 괴뢰 국회는 작년 九월 二五일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바 이것은 미국의 잉여 상품을 무제한적으로 반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과 외국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과 항공기 및 一○○톤급 이상의 선박 수입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초 무역에 의하여 남조선에 주로 반입되고 있는 물자는 화장품, 『자치품이 그 절대액을 차

지하고 있으며 생산 시설품의 반입은 거의 없는 형편에 이르고 있다。

남조선의 산업의 파탄과 일방적인 입초 무역, 그리고 군사비 지출의 증대는 리승만『정부』의 재정 상태를 수습할 수 없는 혼란 상태에 빠지게 하고 있다。

리승만 정부는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위하여 해마다 방대한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그의 수입 원천은 인민들로부터의 약수적 수탈의 강화와 『원조』 물자 관매 대금에 의한 『대충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리승만『정부』의 一九五三년도 예산은 七조 三, 二七四억원에 달하였는바 그 중 세출 총액의 九〇% 이상이 각종 군사비에 할당되고 있다。

一九五四년도에 있어서도 리승만 정부는 일반회계, — 특별 회계 등을 합하여 一, 〇八八억 여환을 계상하고 있으며 그 세출 총액의 대부분을 각종 군사비 지출에 충당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리승만 정부는 이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위한 재정 적자를 조달하기 위하여 지난 二월 一六일 一六종에 달하는 『새로운 세제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후 세금을 일반적으로 三배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과중한 세법안에 대하여 소위 『대한 상공 회의소』까지도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금년 二월 一七일부 『서울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세금의 인상에 뒤이어 리승만 정부는 철도 운임은 二배, 석탄 값은 六〇%로 각각 인상하는 것을 비롯하여 기타 일반 소비 전매품 가격도 대폭 인상하였으며 한편 『귀속 재산』의 대폭적인 매각 사업에 착수하고 있다。

금년 三월 一二일 부 『서울 신문』에 의하면 리승만 『정부』는 각도 관재 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귀속 재산』 一〇만건을 불하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리하여 리승만 역도들은 八·一五 전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인민을 략탈하여 이루어 놓은 『귀속재산』의 五〇%를 완전히 외국 자본가, 매판 자본가, 모리 간상배들에게 방매하였다。

이렇게 세금과 물가를 인상하고 『귀속 재산』을 대량적으로 방매하여도 리승만 『정부』의 재정 적자는 수습할 수 없다。 一九五三 회계 년도에만 하여도 리승만 도당들은 四조 三천억원에 달하는 군사비 예산 부족과 재정 적자로 말미암아 작년 八월에 또 다시 一三조 八, 五三五억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괴뢰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군사비의 격증과 이에 따르는 재정 적자로 인하여 남조선의 통화 금융 체계는 파멸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악성 인플레가 더욱 장성되여 가고 있다。 리승만 『정부』의 신임 재무부 장관이 최근 괴뢰 국회에서 언명한 바에 의하면 七월 一〇일 현재 남조선의 통화 발행고는 三一九억환을 돌파하였다고 七월 一七일부 『동양 통신』은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통화의 팽창은 八·一五 당시에 비하여 실로 一, 二一五배의 장성으로 되며 미제가 조선에서 침략 전쟁을 도발한 一九五〇년 六월에 비하면 五七배의 장성으로 된다。 이 파국적인 인플레를 수습하기 위하여 一九五三년 二월 二四일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은 소위 『통화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구화폐 『원』을 『환』으로 개칭하고 一, 〇〇〇대 一로 화폐를 교환하였으나 하등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도 딸라의 교환률을 높이고 있는바 『통화 개혁』 이후에 실시하여 오던 딸라 교환률 一딸라 대 六〇환을 작년 一二월 一五일에는 一딸라 대 一八〇환으로 변경하였으며 지난 七월 三〇일부 유·피 통신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또 다시 이 교환률을 재 사정하여 一딸라 대 三五〇환으로 변경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오늘 남조선 시장에서는 一딸라 대 六二〇환으로 교환되고 있다。

미국과 리승만『정부』의 이러한 반동적 통화 금융 정책에 의하여 물가는 계속 등귀하고 있는바 지난 六월 一三일 현재로 서울시 내의 소매 물가는 한달 전에 비하여 쌀 소두 한말에 五〇환, 팥, 찹쌀 소두 한말에 一〇〇—二〇〇환, 광목은 一메터에 三〇환씩 각각 등귀하였다고 한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민지화 정책과 리승만 역도들의 매국 정책은 남조선의 농촌 경리에도 혹심한 파괴를 가져왔다。 일제 시기에만 하여도 남조선은 조선의 곡창 지대로서 여기서 산출된 미곡을 일제는 매년 평균 七〇〇만석 이상 략탈하여 갔다。

그러나 미제 강점 하의 오늘의 남조선 농촌 경리는 극도로 황폐화되였으며 매년 수백만석의 쌀은 보리와 밀가루 등 미국의 잉여 량곡을 수입하고 있는 형편에 처하고 있다。

리승만『정부』가 一九四九년에 실시한 기만적인 소위 『농지 개혁』은 남조선 농촌 경리를 일층 령세화시키고 있는바 一九五三년말 현재로 농민들의 매호당 경지 면적은 一九四六년도의 一·二五정보로부터 〇·九정보로 감소되고 있다。 금년 三월 一四일부 『동아일보』에 의하면 一九五三년도말 현재로 남조선 농가 호수 二二二만 여호 중 약 八〇%에 해당하는 一七七만 여호가 一정보 미만의 령세 농가라고 보도하고 있다。 파종 면적도 해마다 축소되고 있는바 一九五四년도만 하여도 一九五三년도에 비하여 四만 여 정보가 축소되였다。 남조선의 비료 사정은 아주 곤난하다。 금년 三월 二四일부 『부산 일보』에 의하면 전적으로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비료가 배급된다 하더라도 일반 령세 농가에는 거의 배급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반면에 부농들에게는 최고 二〇〇가마니까지 배급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농민들에게 고가로 방매하여 폭리를 획득하고 있다。

농촌 경리에 대한 리승만 『정부』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해마다 수확고는 축소되여 가고 있으며 인민들의 식량난은 우심한 형편에 처하여 있다。 一九五三년도의 벼의 총 수확고는 전전 수준에 비하여 五〇〇만석 이상이나 감소되였다。 一九五三년 一一월호 『고시와 전형』에 의하면 남조선에서는 매년 식량 절대량의 부족을 가져오고 있는바 一九五二년도에는 七〇〇만석, 一九五三년도에는 三四〇만석, 一九五四 미곡년도에는 四三四만석의 량곡이 부족된다고 한다。

남조선 농민들의 처지는 날이 갈쑤록 더욱 악화되여 가고 있다。 농민들은 반동적 『농지 개혁』에 의하여 매년 『상환곡』 이란 명목 하에 막대한 량의 량곡을 지주들에게 납부하고 있는바 이는 一년에 二、〇〇〇만석 (조곡)을 초과하는 방대한 수량이다。 뿐만 아니라 리승만 『정부』는 농민들에게 생산 가격의 二분의 一도 못되는 헐값으로 량곡 공출을 강제하고 있으며 『토지 수득세』、『비료 상환곡』、『수세』 등 실로 二八〇여종에 달하는 가렴 잡세를 부담시키고 있다。 금년 三월 五일부 『서울 신문』에 의하면 빈농민들이 리승만 『정부』로부터 부담한 세금 총액은 매국 역도들이 군사비 지출을 위하여 인민들로부터 수탈하는 세금 총액의 八〇%에 해당한다고 한다。 一九五三년 一월—八월까지의 기간에만 하여도 리승만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강제 징수한 세금 총액은 실로 二、二九〇여억환에 달하고 있다 (一九五三년 一〇월 二〇일부 『서울 신문』)。

이러한 형편에서 남조선 농민들은 기아와 빈궁 속에서 헤매고 있다。 지난 五월 二六일부 『조선 일보』에 의하면 금년 四월 현재로 남조선에서 절량 농민의 수는 二一五만에 달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수 많은 농민들이 파산 몰락하여 농촌을 떠나거나 채무 농노로 전락되고 있다。

一九五三년 一一월 二일부 유·피 통신은 『一九五三년 一一월 현재 남조선 농가의 채무 총액은 七五억환으로서 이것은 매 농가가 五、〇〇〇환의 부채를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쓰고 있으며 또한 금년 三월 七일부 『인천 일보』는 『남조선 농가의 채무 총액은 一九五四년초 현재 九〇억一천만환으로서 리승만 『정부』의 통화 발행고의 실로 七八%에 달한다』고 쓰고 있다。 이와 같이 파산 몰락 당한 농민의 수는 一九五三년 三월 현재만 하여도 三二만 一、三〇四명에 달하고 있다 (一九五三년 三월 九일부 『동아 일보』)。

三、인민 생활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의 반인민적 정책과 산업、농촌 경리에 대한 파괴 략탈의 결과는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기아와 빈궁、테로와 학살의 생지옥에 몰아 넣고 있다。

남조선에는 一九五三년 一二월 현재로 一〇〇만 이상의 완전 실업자가 있으며 一천만명 이상에 달하는 반실업자、류랑 농민、파산당한 도시 소시민、중소 기업자가 있다。 이들은 모두 생활 토대와 생활 수단을 박탈당하고 생활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받지 못하고 걸식 류랑하고 있다。 지난 五월 一二일부 『국제 신보』에 의하면 금년 三월 현재로 부산시 내의 인구 六〇만중에서 四〇%에 해당하는 二四만명이 『요구호』 대상자라고 한다。

남조선 인민들의 一개월간의 최소 한도의 생활비는 一五、〇〇〇환이라야 하는데 오늘 남조선 로동자들은 아무런 사회적 보장도 없이 기아 임금으로 매일 一二시간의 로동을 강요 당하고 있다。 그나마 임금의 二—三할은 『대한 로동 총련맹』을 위시한 테로 단체들에게 중간 착취를 받고 있다。 무보수、무기한의 강제 로동을 강요 당하고 있는 징용 로동자들의 생활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반적으로 남 조선에서 로동자들은 사소한 부주의에 대하여서도 미군에 의하여 구타 또는 총살 당하는 것이 보통 일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승만 『정부』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고려도 돌리지 않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 내에서는 음료수까지 결핍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五월 一八일부 『서울 신문』에 의하면 리승만 도당들은 서울시 내의 음료수 소요량이 하루에 三〇만톤인데 겨우 一〇만톤 밖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물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보건 위생 시설의 결핍과 인민 생활의 극도의 곤난으로 인하여 정전 후 남조선에서는 아동 사망률이 一、〇〇〇명에 二二〇명이라는 세계 최고 기록을 내고 있으며 기아와 학대에 시달린 남조선 인민들의 평균 수명은 三七세로 감소되고 있다。

남조선 사회의 부패상을 반영하는 범죄의 건수는 날로 늘어 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소년 범죄자가 증가되고 있다。『서울 신문』에 의하면 금년 첫 三개월간에 서울 소년 심리원에서 취급한 소년 범죄 건수만도 二四〇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것은 작년 동기간에 비하여 三배의 증가로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 범죄의 대부분은 절도、강도、공갈、사기이다。 이러한 범죄 사건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바 六월 一二일부 『민주 신보』는 부산시 내에서는 하루 동안의 절도 건수만도 三〇〇건에 달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정전 후 남조선을 방문하였던 인도 신문 기자가 『죽엄의 땅、죽어가는 땅—이것이 리승만 통치 하의 남조선이다』라고 쓰고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미제의 식민지 정책은 남조선의 교육 문화도 완전히 파괴하였다。 리승만 통치 하의 남조선에서는 우리 나라

의 고귀한 민족 문화가 말살되였으며 남조선의 문학 예술 분야에는 제국주의에 복무하는 자연주의가 범람하고 있다。

학교 교육은 표쓰모뽈리찌즘을 내용으로 하는 식민지 노예 교육으로 일관되고 있으며 그나마도 학교 교사의 대부분을 미군과 괴뢰군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학령 아동들이 취학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서울시 내에서만 하여도 유·엔군에 의하여 一、〇〇〇여개의 교실이 점거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발간되는 잡지 『희망』 (五월호)에 의하면 이러한 형편에서 현재 남조선에서는 중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입학 경쟁의 생지옥이 벌어지고 있는바 대학은 보통 一五 대 一、 중학교는 一三 대 一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들은 모리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二〇만원씩 받는 비공식 입학』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리승만 역도들은 학원의 군국화를 기도하고 있는바 지난 六월 一〇일부 『조선 일보』에 의하면 리승만 『정부』는 고등 학교와 대학 졸업생 전체를 一三기로 나누어 『광주 보병 학교』와 『신병 훈련소』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북진 통일』、『멸공 정신』 등 파쑈적 침략 사상을 배양하고 있으며 부패한 미국식 생활 양식과 살인、탐정、폭행、 색정 등 저속한 생활 관념과 『갱스쩨리즘』、『표쓰모뽈리찌즘』 등 반동적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범람하고 있는 자연주의 문학 예술은 민족적 허무주의와 자기 조국에 대한 무관심성의 해독적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북벌』에 대한 전쟁 히스테리를 선전하는 영화 『출격 명령』과 『북위 四一도』、 추악한 색정과 부패성과 비문화성을 찬미하는 소설 『자유 부인』、『과부 구락부 종횡기』、『봄 밤에 기습당한 미망인』 등 저급한 작품들과 미국의 세기말적 퇴폐적 『쟈즈』 음악이 류행하고 있다。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은 최근에 와서 우리 나라의 민족 문화를 말살하며 문화 유물을 파괴, 략탈하기 위하여 소위 『한글 간소화 방안』과 『문화재 해외 전시안』을 조작하여 이를 추진 중에 있다。 리승만 역도들은 작년 四월 二일 괴뢰 국무 총리 훈령 제八호로써 『한글 간소화안』의 시행을 발표하였으며 금년 三월 二七일에는 리승만의 특별 담화로서 『현행 철자법은 읽기 힘들고 쓰기 복잡하기 때문에 구철자법과 바꾸어 쓰라』고 지시까지 하였다。 이것은 조선말이 가지는 우수성과 과학성을 파괴하려는 것이며 그를 一〇〇년 전으로 후퇴시키려는 범죄적、 매국적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조선의 광범한 사회층들은 리승만 도당이 조작한 『한글 간소화안』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으며 이 방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경히

요구하고 있다。 『한글 학회』의 대표 최현배도 이 방안을 남조선 인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자기가 만든 구두가 맞지 않는다고 손님의 발을 자르려는 구두 장사의 만행과 같은 처사라고 하면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七월 一九일 리승만 도당들은 이미 一九五二년、一九五三년의 二차에 걸쳐 괴뢰 국회에 제출하였다가 철회한 소위 『문화재 해외 전시안』을 또 다시 괴뢰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안건은 조선 인민의 자랑인 신라 시대의 문화 유물을 비롯하여 남조선 각지에 산재하고 있는 국보적 유물들을 『전시』한다는 구실 밑에 미국으로 략탈하여 가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 매국적 『문화재 해외 전시안』은 괴뢰 국회 내부에서조차 대부분 의원들의 반대에 봉착하고 있다。

남조선 출판물들의 보도에 의하면 미제는 이미 경북에 있는 『국립 박물관』의 一、三〇〇점、 덕수궁 미술관의 六、〇〇〇여 점을 비롯하여 각지 박물관에서 七、八〇〇여 점의 문화 유물들을 파괴 략탈하여 갔다。 이 중에는 서울 대학 도서관에 보존되여 있던 『리조 실록』을 비롯한 八、〇〇〇여권의 도서와 일찌기 一四〇二년에 우리 선조들이 발명한 동활자 등 국보적 유물들도 포함되여 있다。

四、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

미제가 도발한 三년 간의 가혹한 전쟁은 남반부 인민들의 각성을 비상히 제고시켰거니와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의 재 전쟁 도발 정책과 더욱 발광적인 략탈 정책은 남반부 인민들의 분노를 격화시키고 그들을 더욱 치렬한 구국 투쟁에로 불러 일으키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국의 강점과 리승만 『통치』가 존속하는 한 전쟁의 위험과 실업과 아사와 학살、 테로의 생지옥을 면할 수 없으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기치 밑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길 이외에 평화와 행복한 생활에로의 길은 없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고 있다。

오늘 남반부의 로동자들은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을 반대하여 임금 인상、 식량 배급、 八시간 로동제 등 절실한 요구를 들고 파업、 보이꼬트 등 각종 형태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바 로동자、 농민、 청년、 부녀들의 모든 투쟁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을 반대하는 데로 돌려지고 있다。 작년 一월부터 一一월까지에만 하여도 로동자들의 중요 투쟁 건수는 二七건에 달하며 그 중 一천명 이상이 참가한 대 투쟁만 하여도 九건에 달하고 있다。 작년 一월 一천명의 부산 부두 로동자들의 미군 만행에 대한 항의 파업 투쟁、 동년 六월 一천 五백명의 마산 미군수 물자 운반 로동자들의 파업 시위 등은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지난 八월 一〇일 서울발 『동양 통신』에 의하면 미국 군대에서 종업하고 있는 부산의 一만 여명 로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로동 조건 개선 등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八월 九일 오전 六시부터 二四시간 파업을 단행하고 시가를 시위 행진하였다。 八월 一七일의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이들은 계속 一二〇%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하리라고 하였으며 이 투쟁은 부산 부근의 수영 비행장 로동자들에게까지 파급하여 더욱 대규모적으로 폭발 확대될 기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군과 영국 군대는 이를 총검으로써 진압하기에 광분하고 있다고 하였다。 로동자들의 투쟁은 적들의 군수 물자 수송을 위한 각 항만과 전략 물자 개발을 위한 광산들에 집중되고 있는바 이 사실은 침략 전쟁 재 도발에 광분하고 있는 적들에게 심각한 불안을 주고 있다。

리승만 『정부』의 강제 징병을 반대하는 남조선 청년들의 투쟁은 놈들의 징병 계획을 五〇% 밖에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성과를 쟁취하였으며 농민들도 강제 공출을 반대하여 놈들의 식량 략탈 계획을 파탄시키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 조성되고 있는 정세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 완성에 관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주장과 방안의 정당성을 더욱 확증하여 주고 있다。 전체 남북 조선 인민은 조국의 인공적 분렬의 청산과 미제 침략 군대의 철거를 견결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 략탈자들과 리승만 매국 역도들은 우리 인민들과 전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조국의 민주 기지에서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최대한으로 촉진하여 남반부의 생지옥에 비하여 북반부를 일대 락원으로 전변시키며 인민 정권과 국방력을 강화함으로써 평화적 조국 통일을 하루 속히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아세아와 구라파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김 형

현 국제 정세는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와 평화와 새 세계 전쟁 도발의 방지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쏘련、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평화 애호 민주 진영이 달성한 커다란 성과들로써 특징지어진다。

조선 전쟁 년간이 제二차 세계 대전 후 국제 관계에서 긴장성이 가장 첨예화된 시기였다면 조선에서의 정전 달성 이후 지난 一년 여의 기간은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와 평화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반면에 『힘의 립장에 선』 미국의 침략 정책이 커다란 타격을 받은 시기로 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쏘련 및 중화 인민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노력에 의하여 달성된 조선에서의 정전은 가장 첨예한 국제적 분쟁 문제들을 협의의 방법에 의하여 조정하는 단서를 이루어 놓았다。 쏘련의 이니샤티브에 의하여 소집되였던 베를린 四렬강 외상 회의는 일련의 국제적 문제들에 대한 렬강들의 립장을 명백히 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또 전후 처음으로 쏘련、중화 인민 공화국、불란서、영국 및 미국 등 五렬강 대표들이 다같이 참가한 제네바 회의 소집의 길을 열어 놓았던 것이다。

제네바 회의에서는 미국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가국들의 노력에 의하여 인도 지나에서의 평화를 회복함으로써 아세아에서 타오르고 있던 또 하나의 전쟁의 불길을 끄는 데 성공하였다。 제네바 회의의 성과는 평화 력량의 중요한 승리이며 국제 긴장 상태를 완화하며 평화를 공고화하는 도상에서의 커다란 일보 전진을 의미한다。

최근 년간 국제 관계에서 긴장성이 완화된 것은 결코 용이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는 전 세계 각국의 광범한 인민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쏘련을 선두로

한 평화, 민주 진영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오늘 자본주의 침략 세력에 대치하고 있는 평화, 민주 력량은 비할 바 없이 강대하다。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의 위력의 장성, 그들 호상 간의 긴밀한 협조, 그들의 국제적 위신의 부단한 제고는 세계 제패를 꿈꾸는 제국주의 침략 계층의 망상적 계획을 매 걸음마다 분쇄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조성하여 주고 있으며 그리함으로써 평화의 공고화와 인민들의 안전의 리익에 부합되도록 국제 관계의 전 발전 행정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에 국제 관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특히 조선 정전 이후 달성된 평화 력량의 중요한 승리들은 이에 대한 명백한 실증으로 된다。

세계의 모든 성실한 사람들은 협의의 방법에 의하여 해결못할 그러한 국제적 분쟁 문제는 없다는 신념을 더욱 더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과 신념에 기초하여 소집되였던 베를린 四렬강 외상 회의는 국제 관계에서의 긴장 상태의 완화를 촉진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베를린 회의의 총화는 국제 관계에서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며 평화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쏘련이 취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는 것을 뵈여 주었다。 베를린 회의는 제국주의 진영의 침략 계층의 온갖 책동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안전을 위한 구라파 인민들의 투쟁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았다。이 새로운 단계에 있어서의 투쟁의 특징은 구라파 각국의 광범한 계층의 인민들이 쏘련이 제기한 구라파 집단 안전 보장의 리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그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데 있다。 집단 안전 보장의 리념은 평화의 리익에 부합되며 구라파의 모든 인민들의 민족적 리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더욱 광범한 지지자들을 획득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제네바 회의의 성과들은 국제 긴장 상태를 가일층 완화시키며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를 이루어 놓았다。 여기에 있어서의 특징은 아세아 문제들의 해결에 있어서 아세아 인민 자신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제고되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중화 인민 공화국이 기타 렬강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국제적 문제들의 해결에 참가하여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사실은 아세아 및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사업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제네바 회의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 대표단이 표명한 바, 아세아의 평화 보장을 위하여 아세아 국가들의 노력을 단결하는 것이 요망된다는 사상은 아세아 인민들의 광범한 지지 찬동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평화에 대한 인민들의 확고 부동한 지향과 공동적 노력에 의하여 구라파에 있어서나 아세아에 있어서 평화와 안전은 유지 공고화될 수 있다는 인민들

의 신념이 더욱 확고하여 지고 있다。

※ ※ ※

지난 一년 여의 기간에 조선과 인도 지나에서 평화가 회복된 사실은 전쟁 세력에 대한 평화 력량의 거대한 승리이며 외래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대한 아세아 민주 력량의 력사적 승리인 것이다。 이 승리는 아세아와 전 세계 인민들 앞에 보다 고무적인 전망을 열어 놓았다。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은 어떠한 기초 위에서 보존될 수 있으며 또 공고화될 수 있는가?

아세아 문제를 론의함에 있어서 우선 최근 년간 아세아에서 일어난 위대한 력사적 변천들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 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한 아세아는 장구한 시일에 걸친 봉건적 통치로 말미암아 락후한 지대로 되였으며 또 아세아에 대한 서방 자본주의 렬강들의 침략은 절대 다수의 아세아 인민들을 식민지, 반식민지 및 예속 국가의 처지로 전락시켰다。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아세아에서의 현대 자본주의 공업의 출현 및 그의 점차적 발전, 그리고 이에 따르는 새로운 사회 력량으로서의 로동 계급의 출현은 아세아 인민들로 하여금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 해방 투쟁에로 궐기시켰다。

특히 로씨야에서의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의 승리는 아세아 인민들의 반제, 반 봉건적 투쟁을 강력히 고무 추동하였으며 아세아의 정세 변동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一〇월 혁명의 승리의 결과 탄생한 사회주의 국가는 짜리 로씨야에 의하여 아세아 국가들에게 강요되였던 일체 불평등 조약과 특권들을 폐지하였으며 다른 인민들의 민족적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는 원칙을 자기 대외 정책의 기초로 선포하였다。 쏘베트 국가의 탄생과 그의 위력의 장성에 고무된 아세아 인민들은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해방 투쟁을 더 한층 강화하였으며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아세아에서의 근본적인 변천들은 제二차 세계 대전에서의 쏘련의 세계사적 승리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이 변천은 우선 六억의 중국 인민들이 외래 제국주의 세력과 국내 반동 세력을 타승하고 새 인민 중국을 창건하는 력사적 위업에서 표현되였으며 또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및 월남 민주 공화국의 탄생과 발전에서 표시되고 있다。

전체 아세아 대륙 면적의 六〇% 이상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과 전체 아세아 인구의 절반을 훨씬 넘는 아세아 인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노예의 기반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였다。

뿐만 아니라 아세아의 기타 부분, 우선 동남 아세아

제국에서도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났다。 三억 이상의 인구를 가진 인도와 같은 아세아의 주요 국가가 제二차 세계 대전 후 국제 무대에 새로 진출하였다。 인도는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식민지적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인도는 자기의 민족적 독립을 고수하며 국제적 문제들에서 자립적 정책을 지향하는 그런 나라들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야, 비르마 및 기타 국가들의 의의도 더욱 제고되고 있다。 이 나라들은 자기의 민족적 독립을 고수하고 있으며 아세아의 평화를 옹호하는 사업에 해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아세아에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갖는 변화가 진행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아세아에서 발생한 이러한 새로운 사실들은 아세아 문제의 중요한 력사적 배경을 반영한 것이다。 아세아 문제는 이와 같은 엄연한 현실과 절대로 분리시켜서 고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세아의 변동된 현실을 보려하지 않으며 민족적 독립과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궐기한 오늘의 아세아 인민들의 결의를 무시하고 있는 미국 지배층은 아세아에 대한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발광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미국 지배층이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일방으로는 아세아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과 민주 력량을 탄압하며 타방으로는 영국, 불란서, 화란 등 낡은 식민지 소유 렬강들의 세력을 아세아에서 구축하며 아세아를 미국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식민지로 전변시키려는 데 있다。

미국 지배층의 『힘의 립장에 선』 이러한 정책은 현 국제 정세에 대한 외곡된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진영에 유리하게,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유리하게 변동된 국제 무대에서의 력량 관계의 변천들을 무시하는 데 기초하고 있다。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은 그 기초에 있어서 완전히 비현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제의 힘의 정책』은 결국 파탄의 운명을 면치 못하며 실지에 있어서 그는 평화 력량의 강력한 타격을 받아 붕괴되여 가고 있다。

아세아에서의 미국 지배층의 이러한 정책은 특히 중화 인민 공화국에 대한 관계에서 특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미국 지배층은 중화 인민 공화국에 대하여 침략적 정책을 공공연히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조선에서 야수적 침략 전쟁을 도발하면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령토를 강점한 후 중국에 침범하려고 시도하였다。 한편 미국 지배층들은 중국 령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인 대만을 자기의 무력으로써 강점하였으며 그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 기지로 전변시키고 있다。 이러한 범죄적 행동은 대만을 중국에 반환할 것이 규정되여 있는 一九四三년의 미, 영, 중 카이로 선언의 조항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

미국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외교 관계의 정상화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또한 중화 인민 공화국에 대한 경제적 『봉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중국 인민을 반대하여 원자 및 수소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심리 전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을 재 무장시킴으로써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아세아의 변동된 현실을 보려하지 않는 미국 지배층은 실제적으로 자기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화 인민 공화국에 대한 『불승인』 정책을 고집하며 중국에 대한 부당한 차별 대우 정책으로써 국제 관계에서 비정상적인 사태를 조성시키며 전 세계 인구의 四분의 一를 차지하고 있는 위대한 중국 인민이 유·엔 기구들과 기타 일련의 국제적 기구들에서 자기의 합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오늘 국제적 문제들의 해결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의 참가가 정당하며 긍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활 자체에 의하여 확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배층은 전혀 성립될 수 없는 부당한 구실로써 자기들의 정책을 변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계층에서는 중화 인민 공화국이 혁명적 방법에 의하여, 말하자면 『비법적으로』 정권을 잡았다는 리유로 중화 인민 공화국을 승인할 수 없다고 떠버리고 있다。 그러나 一七七六년에 채택된 『미국의 독립 선언서』를 읽어 본 사람은 미국 지배층들의 리유의 부당성을 더욱 똑똑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독립 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어떠한 통치 형태가 파멸적인 것으로 되였을 때에…인민은 그것을 변경하거나 또는 폐절하고 자기의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또 그러한 형태에서 자기 정권을 조직하면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갖고 있다』。

중국 인민은 부패한 국민당 제도를 분쇄하고 자기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가장 유익하다고 인정한 그러한 국가 관리를 조직하였다。

력사상 낡은 통치 제도를 반대하는 혁명이 진행된 것이 한두번만이 아니였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례를 들면 一七세기의 영국 부르죠아 혁명, 一八세기말의 불란서 혁명, 一九一七년의 로씨야의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 등등을 상기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미국 자신도 독립 전쟁에 의하여 영국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고 자주적 발전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력사의 경험이 뵈여 주는 바와 같이 대중의 혁명적 운동에 의하여 탄생한 새로운 제도를 무시하려는 온갖 시도는 불가피적으로 파탄되고 마는 것이다。

아세아에 도래한 새로운 시대를 표시하는 위대한 중

화 인민 공화국의 존재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며 또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다. 중화 인민 공화국은 탄생 첫날부터 그의 평화적 대외 정책에 확고 부동하게 립각하여 령토 및 주권의 호상 존중, 평등,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각국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경제, 문화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아세아와 전 세계의 평화 유지 사업에 거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은 약 一〇억의 인구를 가진 二五개국과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는바 그 중에는 쏘련 및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이 있으며 인도, 인도네시아, 비르마, 파키스탄 등의 아세아 국가들이 들어 있다. 중국과의 경제 통상 관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국은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을 처음에 승인한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미국 지배층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중화 인민 공화국의 위력과 국제적 위신은 부단히 제고되고 있으며 그는 아세아 평화의 튼튼한 담보로 되고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과 기타 아세아 제국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은 평화 애호 아세아 인민들의 완강한 반항에 봉착하고 있다. 장구한 시일에 걸쳐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비인간적 착취를 받아온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는 아세아 인민들은 자기들의 공동적인 노력으로써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침략을 격퇴하며 평화와 안전을 고수할 결의에 충만되고 있다. 아세아 인민들의 호상 관계는 오늘의 위대한 승리적 변천들을 반영하는 확고한 친선에 기초하고 있다.

금년 六월 말 중국과 인도, 중국과 비르마 수상들 간에 진행된 회담들은 아세아 국가들 간의 평화적 및 친선적 관계의 가일층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 나라들은 령토 완정 및 주권의 호상 존중, 호상 불가침, 호상 내정 불간섭, 평등 및 호혜, 평화적 공존의 五개 원칙을 자기들의 호상 관계의 기초로 선포하였다. 이 원칙들은 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이 평화와 안전의 공동 목적을 위하여 성과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로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들은 기타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에 있어서나 전반적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이 五개 원칙들이 더욱 더 많은 나라들의 지지를 받게 된다면 호상 적대적이였던 나라들 간의 관계도 안전과 호상 신뢰의 감정으로 바꾸어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아세아에는 더욱 많은, 더욱 광범한 평화 지역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며 아세아를 미국 침략층의 전쟁 도발과 적대적인 군사 쁠럭 조작을 위한 온상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의 일부 지도자들은 력사적 사실들의 확고한 론리의 영향 하에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평화적 공존의 리념을 점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

들은 이와 같은 협조가 자기들에게 확실히 리득을 가져다주며 그리고 현재의 국제 무대에서의 세력 관계가 자본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제도 간의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자본주의 세계에 대하여 파멸적 결과의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인도 수상 네루는 얼마전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만약 평화적 공존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다면 그때엔 우리는 패배를 인정하여야 될 것이다. 왜냐 하면 평화적 공존 이외의 다른 유일한 길은 전쟁 뿐이며 이는 해결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건대 인도에서나 기타 아세아의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자기의 정치적 및 경제적 이데올로기를 다른 나라에 강요하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리해하는 조건 하에서 평화적 공존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인도와 비르마 뿐만 아니라 기타 동남 아세아의 여러 나라들도 미국의 침략적 정책에 추종하는 것을 거부하며 더욱 더 자립적 립장을 고수하려고 지향하고 있다. 인도, 파키스탄, 비르마, 인도네시아 및 쎄일론이 참가하였던 콜롬보 회의는 그 참가자들 간의 어느 정도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세아에 대한 서부 렬강들의 식민주의를 규탄하였으며 원자 및 수소 무기의 금지, 유·엔에서의 중화 인민 공화국의 합법적 권리의 회복, 인도 지나에서의 무조건 정화, 조선 및 인도 지나 문제의 평화적 조정 등 일련의 중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 일치를 보았다.

평화, 안전, 그리고 식민지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공동적 지향에 기초하고 있는 아세아 인민들의 호상 긴밀한 협조는 『아세아인들끼리 싸우게 하라』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흉책에 대하여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다.

※ ※ ※

구라파 인민들의 평화와 안전 보장 문제는 의연히 세계 여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 구라파에서의 공고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가? 구라파 국가들을 황폐화하고 병사의 묻엄이 구라파 대륙을 뒤덮은 매개 전쟁 후마다 구라파의 평화와 안전 보장 문제는 구라파 사람들의 초미의 문제로 제기되여 왔다.

一九세기에 영국과 불란서의 지배층들은 악명 높은 『세력 균형』 정책이 구라파 안전의 기초로 된다고 사람들에게 확언하였다. 그들은 구라파 대륙에서 강대국들의 세력이 균등화하여야만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물론 구라파를 전쟁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하였다. 그와 반대로 『세력 균형』을 위하여 전쟁 준비가 진행되여 왔으며 『균형 복구』를 위하여 류혈적 전쟁이 도발되였던 것이다.

二〇세기에 와서 『세력 균형』 정책은 공공연한 약육 강식의 정책에 자리를 내주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정복하는 정책이 구라파 대륙에서 지배적으로 되였었다。 독일 군국주의의 이데올로그들은 가장 강한 구라파 강국의 힘에 의하여서만 구라파의 평화는 유지될 수 있다고 떠버리였다。

최근 미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그들은 몇개의 구라파 국가들이 군사 뿔럭을 조작하며 마치 그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구라파군』을 형성함으로써만 구라파의 평화는 유지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그들은 현재 구라파에 상이한 사회 제도—사회주의 제도와 자본주의 제도를 가진 국가들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들의 새 전쟁 준비를 위한 목적에 리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상이한 사회 제도의 평화적 공존은 불가능하며 존재하지도 않은 『동방으로부터의 위협』에 서방은 『통일 전선』으로 대치하여야 한다는 허위 선전을 류포시키면서 자기들의 침략적 군사 뿔럭 설치 계획과 독일 군국주의의 재생 정책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력사적 사실들은 미국 지배층이 실시하는 호상 적대되는 군사 뿔럭 조작 정책이 결국 전쟁을 초래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레닌은、제一차 세계 대전 시기에 제국주의적 동맹과 련합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체결되였든지간에 불가피적으로 전쟁 간의 『휴식』에 불과하며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동맹이 전쟁을 준비하며 그리고 또 그것은 호상 견제하면서 전쟁에서 자라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현재 구라파에서의 평화 유지의 길은 상이한 제도들 간의 평화적 공존의 불가능론으로부터 출발하여 호상 적대되는 군사 뿔럭 조작 정책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상이한 사회 제도의 평화적 공존의 가능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집단 안전 보장 체계의 수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두 제도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 문제는 레닌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기되였고 론증되였으며 그 사상은 쓰딸린에 의하여 더 한층 현실적 문제로 론증、발전되였다。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평화적 공존은 협조하려는 호상 희망이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 자기에게 부과된 의무를 집행할 용의가 있는 조건 하에서、평등과 타국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호상 존중하는 조건 하에서 완전히 가능하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평화적 공존의 정치적 기초는 모든 인민들의 민족적 자주권의 존중、국제 관계에서의 최고 원칙인 타국 내정 불간섭 원칙의 철저한 준수이다。

쏘련은 이상과 같은 고상한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현 정세 하에서 구라파 인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인 집단 안전 보장의 리념을 제기하였다。 쏘련이 제기한 구라파에서의 집단 안전 체계 수립에 관한 리념의 거대한 생활력은 그것이 모든 국가들의 민족적 자주권을 철저히 준수하며 타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용허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대소 모든 구라파 국가들의 노력을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하여 단결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는 데 있다。 이와 반대로 미국이 획책하고 있는 『구라파 방위 공동체』는 그 참가국들의 민족적 자주권을 거의 완전히 말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관계에서 특징적인 것은 영국이 그의 주권의 말살을 영 련방 제국과의 의무와 량립할 수 없다는 구실 밑에 『구라파 방위 공동체』 참가를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다。

쏘련이 제출한 집단 안전에 관한 전반적 구라파 조약 초안은 모든 구라파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찬동을 받고 있다。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은 공식 성명으로써 이 초안에 대한 자기들의 태도를 확인하였다。 서구라파 국가들에서도 구라파 집단 안전 체계의 수립을 지지하며 『구라파 방위 공동체』 설치와 독일 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는 운동이 장성하고 있다。

쏘련의 제안은 특히 독일 인민들의 가장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것은 집단 안전에 관한 전반적 구라파 조약이 독일 군국주의 침략의 재생의 가능성을 제거하며 독일의 어느 한 부분도 어떠한 군사 집단에 가담하지 않게 함으로써 독일의 중립화를 보장하여 독일의 통일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전후 구라파 안전의 기초는 이미 전쟁 기간에 체결되였던 一九四二년의 쏘 영 조약과 一九四四년의 쏘 불 조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조약들은 구라파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한 모든 현실적 전제 조건들을 조성하였던 것이다。 집단 안전에 관한 전반적 구라파 조약에 관한 쏘련 정부의 제안은 쏘 영 및 쏘 불 조약의 리념과 원칙들의 발전인 것이다。

국제 긴장 상태 완화의 길 위에 가로놓여 있는 모든 장애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쏘련 정부는 금년 三월 三一일부 미、영、불 정부들에 보낸 각서에서 구라파 안전 문제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인 명확한 태도를 표명하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베를린 四렬강 외상 회의에서는 서부 렬강 대표들에 의하여 미국이 구라파 집단 안전 조약에 참가할 데 관한 문제와 북대서양 동맹의 지위 및 역할에 관한 문제가 쏘련 제안을 거부하는 리유로서 제기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쏘련 정부는 금년 三월 三一일부 자기 각서에서 집단 안전에 관한 전반적 구라파 조약에 미국이 참가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데 장애가 없다는 것을 성명하였다。 쏘련 정부는 이에 있어서 미국이 히틀러 침략을 반대하는 공동 투쟁에 참가하였으며 쏘련、불란서 및 영국과 더불어 구라파에서의 전후 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과 베를린 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표명한 견해를 고려하였다.

북대서양 동맹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쏘련은 三월 三一일부 각서에서 만약 반히틀러 련합에 참가하였던 모든 강대국들이 그의 참가국으로 되는 경우, 해당한 조건 하에서 북대서양 동맹은 그의 침략적 성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성명하였다. 이에 적응하여 쏘련 정부는 자기의 평화 애호적 대외 정책의 불변한 원칙을 지침으로 또 국제 관계에서의 긴장성을 완화하려고 지향하면서 쏘련이 북대서양 조약에 참가할 데 관한 문제를 관계국 정부들과 심의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쏘련이 취한 립장은 국제 긴장 상태를 가일층 완화하며 모든 인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화하는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강대국들의 의견 차이를 제거하려는 쏘련의 진지한 노력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었다.

서부 렬강 지배층들은 쏘련의 이러한 제안들에 부정적으로 대답함으로써 그들이 『힘의 립장』에 서서 새 전쟁 준비를 위한 로선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자체 폭로하였다.

그러나 구라파의 광범한 계층이 쏘련의 제안을 열렬히 지지하여 나섰으며 많은 구라파 국가 정부들이 아직 쏘련 제안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쏘련 정부는 七월 二四일부 각서에서 구라파 국가들의 보다 광범한 참가 하에 구라파 집단 안전 체계 수립에 관한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새로운 이니샤티브를 취하였다. 이 회의에는 중화 인민 공화국도 옵써버로 참가할 것이 요망된다고 쏘련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회의가 국제 긴장 상태를 가일층 완화하며 국제적 협조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질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쏘련은 이러한 회의의 소집을 제의하면서 경제적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집단 안전에 관한 전반적 구라파 조약에 보충할 것을 제안하였다. 조약 참가국들의 호상 간의 경제 및 통상 관계의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취할 의무를 진다면 이는 인민들의 생활적 리익에 부합되며 평화와 국제적 협조를 공고화하는 목적에 일치하는 것이다.

각국 간의 경제 및 통상 관계는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의 평화적 공존의 경제적 기초이다. 사회주의 진영이나 자본주의 진영의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광범한 경제적 련계는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국가들 간의 경제 관계의 설정은 생산 발전의 요구에 의하여 제기되는 객관적, 경제적 필연성이다.

구라파 국가들 간의 경제 통상 관계의 발전이 국제 관계의 정상화를 적지 않게 촉진시킬 것임은 의심할 바

없다. 그것은 호상 신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쏘련은 말로써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타국과의 통상 관계를 발전시키며 국제 무역의 정상화에 커다란 배려를 돌리고 있는바 이는 쏘련의 평화 애호 정책의 명백한 표시이다.

쏘련 정부는 상술한 회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 회의의 소집에 관한 문제와 그리고 이 회의의 성공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들에 관한 문제를 쏘련, 불란서, 영국 및 미국 정부들에 의하여 예비적으로 토의할 목적으로 또 독일 문제의 토의를 계속할 것도 고려하면서 금년 八—九월에 쏘, 불, 영, 미 四개국 외상 회의를 진행할 것을 금년 八월 四일부 성명에서 제의하였다. 이에 있어서 쏘련 정부는 독일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들 즉 독일의 통일을 회복하는 문제와 대독 강화 조약을 체결하는 문제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건들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는 사정도 고려하였다.

七월 二四일부 각서와 八월 四일부 성명에서 쏘련 정부가 제기한 새로운 이니샤티브는 전 세계에서 더욱 광범한 반향을 일으켰으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구라파의 안전과 평화는 쏘련의 제안에 기초하여 유지 공고화될 수 있다. 지금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를 완강히 반대하는 계층들만이 아직 쏘련 제안에 대한 공식적 태도를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는 쏘련 제안에 대한 서부 렬강 정부들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

* * *

아세아나 구라파에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 공고화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열리여 지고 있다. 집단 안전 체계의 수립은 아세아에 있어서나 구라파에 있어서 평화 수립의 관건으로 된다.

이를 반대하는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은 배결음마다 파탄되고 있으며 엄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지난 八월 三〇일 불란서 국민 의회가 『구라파 방위 공동체』 조약을 거부한 결과 미제의 『구라파군』 설치 계획은 결국 파탄되고 말았다.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구라파 방위 공동체의 패배가 구라파에 대한 미국 정책에 대하여 중대한 타격으로 되였다』고 비명을 올리고 있는 것도 극히 당연한 일이다.

아세아에서 군사 쁠럭을 조작하며 아세아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려는 미제의 계획도 아세아 인민들의 반대에 봉착하여 그 첫 단계에서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중화 인민 공화국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며 인도 지나 문제에 관한 제네바 회의 결정을 파괴하기 위하여 미국 지배층이 마닐라 회의에서 조작하여 낸 동남 아세아 군사 쁠럭에는 동남 아세아 국가들로서 오직 타

이, 비률빈, 파키스탄만이 가담하였을 뿐 절대 다수의 아세아 국가들은 이 침략 쁠럭에 가담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이와 함께 아세아에 있어서 제국주의 렬강들의 모순되는 리해 관계의 충돌도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서부 렬강들, 특히 미국과 영국 간의 의견 차이의 첨예화는 친미적 경향으로 유명한 런던 『에코노미쓰트』지까지 미 영 간의 관계를 『위험에 처한 동맹』이라고 지적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서방 제국주의 렬강들 간의 의견 차이는 그들의 공모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첨예화되고 있다. 서부 렬강의 의견 차이의 첨예화는 침략적 목적을 토대로 하여서는 공고한 통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과 미국이 자기 동맹국들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강압 정책이 그들의 더욱 장성하는 반항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영국과 불란서는 구라파에서나 아세아에서 자기 자신의 리익을 고려하는 정책을 실시하려고 지향하고 있는바 이는 미국과의 모순을 더욱 더 첨예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

아세아와 구라파에는 아직 그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일련의 문제들이 일정에 오르고 있다. 독일 문제와 오지리 문제는 구라파 안전 보장의 리익에 부합되게 관계국들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되여야 할 것이다.

조선 문제는 조선 인민의 민족적 리익에 부합되게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여야 하는바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에 대한 조선 인민의 불타는 념원은 반드시 실현되여야 한다.

유·엔에서의 중화 인민 공화국의 합법적 권리는 회복되여야 하며 대만은 중국 인민에 의하여 해방되여야 한다.

미국이 제네바 회의 협정들을 파괴하기 위하여 발광적으로 날뛰고 있는 조건 하에서 관계 국가들은 인도지나에서의 평화 회복에 관한 제네바 협정들의 실현을 공동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성숙된 일련의 문제들의 해결은 기타 중요한 국제적 문제들의·조정과 더불어 국제 관계의 정상화와 국제 긴장 상태의 가일층의 완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평화와 안전을 위한 구라파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과 민족적 권리와 자유를 지향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위대한 재생 과정을 가로막을 그러한 힘은 없다.

화성에 있어서의 물리적 조건과 생의 가능성에 관하여

아까데미크 브·그·페쎈꼬브

서론, 문제의 력사.

다른 세계에 생이 존재한다는 데 관한 문제는 모든 사색하는 사람들이 항상 깊은 관심을 가졌던 문제에 속한다. 특히 태양계의 혹성, 그중에 있어서도 화성에 있어서의 생에 관한 문제는 적어도 一五〇년 동안이나 대단히 심중하게 론의되여 왔으며 지어 현재에 있어서도 항상 수많은 청강생들을 끌고 있는 대중 강연의 정상적인 제목으로 되고 있다. 다른 혹성에 생이 가능하다는 데 관한 사상은 자기 력사 발전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의 승리와 밀접하게 련관되여 있었으며 그 직접적인 결과이다.

문제의 력사를 상기하며 우주에 있어서의 생에 관한 사상의 주요 선전자들을 들어 보기로 하자. 그들 중에는 프톨레마이오스의 붕괴된 체계를 교회가 아직 옹호하고 있던 시기에 활동하였으며 一六〇〇년에 분형(焚刑) 당한 죠르다노 부루노, 코페르니쿠스의 체계를 최종적으로 확증한 케프레르, 뾰뜨르 一세 때에 로어로 번역된 저서 『우주론』을 출판한 홀·호이겐쓰, 一六八四년에 수성(水星)으로부터 토성(土星)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혹성의 사유하는 거주자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술한 저서인 『세계의 다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출판한 폰쩬넬리가 있다. 폰쩬넬리의 이 저서는 一七四〇년과 一七六一년에 로어로 두번 출판되였는데 나중의 것은 므·브·로모노쏘브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一八세기 로씨야에 있어서 태양 중심설과 다른 세계에 생이 존재한다는 데 관한 사상을 선전한 사람들은 저명한 문화 활동가들인 쏘이모노브, 드미뜨리예브—마모노브 및 기타였다.

一九세기 초에 수학자 가우쓰는 혹성에서의 사유하

는 생물 존재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수학의 가장 중요한 명제들이 우주 어데서든지 동일해야 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그들과의 련락 방법을 가르쳤다。

위에 렬거한 사상가들은 소여의 문제에 대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유물론적 립장에 서 있었다。 그러나 혹성에 생이 있을 수 있다는 데 관한 사상은 로골적인 관념론자들도 역시 가지고 있었으며 선전하였다。 이 사상은 관념론자이며 심령론자(心靈論者)인 크·프람마리온의 활동에 의하여 특히 인기(人氣)를 얻었다。 생물이 살 수 있는 세계가 많다는 데 관한 一八六〇년에 나온 그의 첫 저서는 이미 불란서 아까데미야의 상을 받았으며 또한 각국어로 번역되였었다。 일련의 학자들의 사상적 립장이 근본적으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우주에 있어서의 유기적 생의 분포에 대한 그들의 견해들이 가끔 일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있는 일이다。

례컨대 유물론자들은 그를 위한 적당한 조건이 있는 곳이라면 어데서나 무기 물질의 자연적 발전의 결과로 유기적 생이 불가피적으로 발생한다고 간주한다。 자연 과학의 견지에서 본다면 이러한 견해는 유일하게 정당한 견해이다。 관념론자들은 이와는 반대로 우주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였으며 매개 혹성의 사명은 즉 사유하는 생물의 부하자(負荷者)로 되는 것이라는 선입적, 반 과학적 견해에서 출발하고 있다。

프람마리온은 一八八四년에 출판된 자기의 저서『하늘의 땅』에서 목성에 생이 있을 수 있다는데 관한 문제에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의심할 바 없이 현재 이 훌륭한 혹성들에는 이를테면 공기 상태 속에서, 높은 대기층에서: 바로 공기의 류동체를 먹고 사는지도 모를, 우리와는 다른 생물이 살고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조금 위에서는『생은 지구 형성의 목적이였던 바와 마찬가지로 그(목성—페쎈끄브)의 형성의 목적이다。 여기에 주요한 것이 있다。 모멘트, 시간(혹성에 생이 발생한—페쎈끄브) 등은 하등 중요한 의미도 없는 것이다』(『하늘의 땅』 六二一페지)라고 썼다。

이러한 사상적 립장으로서는 상식과 어긋나게 매개 혹성에, 눈에 띄우는 우주의 천체마다에 사유하는 생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례로 달(月)을 들어 보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달에는 하등 이렇다할 대기(大氣)도, 물도 없으며 그 지면의 온도는 낮에는 섭씨 一〇〇도 이상 올라갈 수 있으며 밤에는 섭씨 령하 一四〇도까지 저하될 수 있다。 거기에 생이 있겠는가? 프람마리온에 의하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이 없다면 달은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달에 있는 사유하는 생물은 아무러한 대기층도 없이 살 수 있겠는가? 프람마리온은 매우 단순한 답변을 한다。 즉 그들은 순응하였다! 고。 그는 유기물질은 부적당한 자기 환경에 순응하는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달의 주민들은 자기의 생존 기간에 있어서 공기와 물이 전연 없이 지내며 순응하였다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프람마리온은 쓰기를『달에서의 생은 의심할바 없이 조락되고 있으나 그것은 분명히 아직 완전히는 소멸되지 않고 달에서의 인류의 마지막 가족은 깊은 계곡에서, 플라톤의 비로드(天鵞絨)의 평원에서 아직 살고있을 것이다』(상동서 五二八페지)。 이러한 황당 무계성은 어떤 일반적인 생리학적 법칙들과 유기 물질의 적응성의 인용으로써 음폐되고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문제는 물론 프람마리온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 모두가 공감으로써 그의 저서에 대하는 거기에 있다。

사실 달에 생이 존재한다는 데 관한 사상의 선전자들은 프람마리온 혼자만이 아니였다。

심지어 二〇세기 전반기에 있어서도 저명한 미국 월면학자(月面學者) 윌얌 피케링은 그가 관측한 달의 세부의·형태 및 색채의 변화는 유기적 생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간주하였다。 유기 물질을 혹성 표면에 있어서의 모든 종류의 리해되지 않는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단순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기본적으로 一九세기 초에 활동한 저명한 천문학자 브·겔쉐리는 관념론적인 문제 설정으로부터 태양에도 생물이 존재한다고 간주하였는바 그는 태양은 춥고 어두우며 다만 적열(赤熱)된 외각에 의해서 가리워지고 있는데 불과하다고 가정하였다。 태양의 물리적 성질에 관한 옳은 견해의 발전도 태양에 생물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관념론자들의 생각을 꺾지 못하였다。

례컨대 관념론적 철학자인 라포르트는 一八七七년에 출판된 자기의 저서『천문 지도』에서 전체 혹성과 달에뿐만 아니라 심지어 태양에도 생물이 산다고 쓰고 있다(라포르트『천문 지도』一八七七년, 부룻셀)。 라포르트는 태양 내부의 물질의 온도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잘알고 있었으나 그는, 생은 자기의 거대한 적응성에 의해서 태양에서 전연 특수한 형태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태양에 있는 사유하는 생물은 기체(氣体)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들에게 있는 결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빠른 번개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서 그 어떠한 방사(放射)로써 상호작용한다는 등등이다。 이러한 모든 관념론적 허구들이 서술되고 출판되여 공명하는 독자들을 얻고 있다。

이렇게 코페루니쿠스 체계의 완전한 승리 이후 혹성에 사유하는 생물에 이르기까지의 산 유기체 (有機体)가 존재한다는 데 관한 사상도 마치 자명한 것처럼 광범히 전파되였다。 이 공통한 기분은 이러한 문제에 부닥치고 있는 천문학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전연 일면적이며 검증되지 않은 관측 자료들이 종종 화성 혹은 기타의 혹성들에 다소간 고도로 조직된 생이 존재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생각케 하

는 동기로 되였다。

　례를 들면 一八七七년에 이태리 천문학자 쓰끼아빠렐리가 화성에서 소위 바다라고 불리우는 흑점을 련결하고 있는 가는 선 『운하』들을 발견하여 그 『운하』들이 일정한 구조를—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운하의 사명은 마치 수관(水管)의 역할을 노는데 있는 것같이 결론지였을 때 이 운하들은 사유하는 생물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견해가 급속히 전파되여 거의 보편적인 것으로 되였다。 쓰끼아빠렐리 자신도 이러한 가정에는 하등 불가능한 것을 보지 못한다고 강조하였다。

　一八九四년에 화성을 관측하기 위하여 특별 천문대를 설립한 로웰은 한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정확한 기하학적 그물 모양의 수많은 류사한 운하들을 발견하고 이 그물을 따라 극으로부터 적도에 이르고 적도를 지나서까지 뻗어 있는、극에서의 눈(雪)의 융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어둠 컴컴한 부분이 규칙적으로 배렬되여 있다고 인정하고 오직 이 현상에 기초하여 로웰은 화성에 고도로 조직된 기술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이 론박할 여지없이 확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그의 결론에 의하면 화성의 운하들은 북극의 눈이 녹은 물을 적도로 끌기 위하여 만든 인공적인 건설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 화성의 기사들이 만든 압력 장치의 능률까지 계산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그 능률이 나이야가라 폭포의 능률을 적어도 四천배나 릉가하는 것으로 되여 있다。 이 모든 생각들은 그의 저서 『생의 은거지(隱居地)로서의 화성』에서 서술되였다。 이 저서는 一九一一년에 로어로도 번역되여 발간되였다 (쁘·로웰 저 『화성과 그의 운하』 一九〇八년、뉴—요크도 보라)。

　거대한 원칙적 의의를 가지는 이 모든 구체적으로 작성된 판단들은 그 시기에 누구에게나 전연 알려져 있지 않았던 화성의 성질의 그 외의 특수성들을 고려함이 없이 오직 운하의 직선적、기하학적 형태에만 기초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흑선(黑線)의 순수한 기하학적 그물은 다른 혹성들을 관측할 때도 례컨대 수성、지어는 목성에서도 그의 적도 부근에서 로웰은 발견하였었다。 이 사실은 운하망(運河網)의 기하학적 성질이란 것은 지각(知覺)의 한계선에 있는 관측 대상들을 볼때 이를 일정한 틀에 집어 넣어 버리는 관측자들의 방법에 현저히 의존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확증한다。

　사실상 성능이 좋은 망원경으로 관측한 경험 많은 다른 관측자들은 로웰이 관측한 것을 전연 혹은 비록 부분적이나마 확인하지 못하였다。 례컨대 바르나르드는 세계에서 제一 큰 망원경을 사용했으나 가장 좋은 조건에서조차 운하들을 전연 보지 못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다른 저명한 화성 연구자 안또니아지는 언제나 화성에서 정확한 기하학적 그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E·M·안또니아지 『혹성인 화성』 一九三〇년、파리)。 그의 그림들과 그의 유명한 화성의 지도는 이 혹성이 완전히 자연적인 광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뵈여 주고 있다。 의심할바 없이 소위 『화성의 운하』들은 그 어떤 객관적인 실재를 말하여 주고 있는 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진판에、례컨대 뿔꼬브에서 그·아·찌호브가 처음으로 찍은 것과 그 후에 일부 다른 천문학자들이 찍은 사진판에 나타나 있다。

　브·브·솨로노브가 자기 저서 『화성』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운하들의 실재성은 오늘날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운하들은 련속적인 것이 아닐 것이며 개개의 반점(班点)과 무늬(縞)들이 여러개 결합하여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로웰의 관측은 대체로 얼마간 확인을 받았으나 그가 준 설명 즉 그 가는 선들이 화성의 기사들이 만든 건설물이라는 설명은 오늘에 있어서는 완전히 환상적인 것으로 되고 있다。 연구자들의 대다수는 이것이 산층 지질학적 균렬(龜裂)과 류사한 그 어떤 천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기사나 기타의 유기적 생의 대표자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여기로부터 소여의 혹성에 있어서의 물리적 조건의 총체를 고려함이 없이 다만 개별적 현상들에서 출발하여 아주 지나친 무근거한 결론을 짓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된다。

　一九세기와 二〇세기 초에 주로 프람마리온、쓰끼아빠렐리 및 로웰에 의하여 광범히 보급된 화성에 리지적 존재가 산다는데 관한 사상은 현재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에서의 유기적 생、례컨대 식물 존재의 가능성은 거의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식물 존재의 주요한 증거로서는 화성에서 관측되는 거무스레한 반점의 색채와 형태의 변화가 있는바 이 반점은 처음에는 바다라고 생각하였고 로웰 이후에는 오아시쓰라고 생각하게 되였다。 달의 『바다』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것을 먼저대로 『바다』라고 부르기로 하자。

　안또니아지는 화성에서 『태양호(湖)』의 큰 변화를 발견하고 一九二四—一九二六년에 『어떤 암록색같은 물건이 큰 령역을 차지하는 불그스레한 구역에 흘러들어갔다』(이·프·뽈라끄 『혹성인 화성과 그에 있어서의 생의 가능성』 一九四八년 모쓰크바 一九페지에서 인용함)고 썼다。 다년간 직업적 전문가로서 화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이 관측자의 증언은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는 화성에서 식물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본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수다한 다른 관측자들도 지지하였다。 우리 쏘련에 있어서도 그러한 견해들은 주로 그·아·찌호브의 로작들 (『혹성인 화성』 까자크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과학 아까데미야 출판 一九四八년도판、『화성에 있어서의 식물에 관하여』

잡지『쁘리로다』一九四七년 제二호를 보라)에 의하여 광범히 보급되였다.

그·아·찌호브는 벌써 一九〇九년에 뿔꼬브 천문대에 있는 큰 굴절 망원경으로써 각이한 스펙토르선으로 화성의 사진을 찍어서 화성 관측을 진행하였다(『뿔꼬브 중앙 천문대 통보』 제四권 一九一一년 六월 제四二호). 一九一八년과 一九二〇년에 찌호브는 뿔꼬브에서 一五인치 망원경으로써 직접 화성 연구를 계속하여 계절 변화에 따르는 화성의 색채의 정확한 교체를 발견하였다. 그는 화성에 유기적 생이 존재한다는데 관한 사상의 주요한 옹호자의 한 사람이다.

그·아·찌호브의 사상은 쏴로노브, 아리쓰또브, 뿔라끄, 와리갈드 및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수많은 강연, 소책자 및 대중 과학 서적에서 진술되였다.

외국에서도 화성에 생이 살 수 있다는 데 관한 사상이 독립적으로 광범히 보급되였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례컨대 스펜서—존스는 一九四六년에 로어로 출판된 자기의 저서『다른 세계에서의 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혹성인 화성에 있어서…우리는 거의 최종적으로 증명된, 식물로 덮인 부분의 존재에 사실상 부닥치게 된다』(七페지). 더 나아가서 쓰기를『나는 우리가 틀림없이 화성에서 사멸해가는 생이 있는 세계를 볼 것이라는 의견을 지지한다. 지금 화성에서 열마 남지 않은 여명(餘命)을 유지하고 있는 식물 형태가 아마 머지 않은 장래에 사멸할 운명에 처해 있다…』(一四九페지). 다소 비관적으로 들리는 이 마지막 어구에는 점차로 더욱 협하게 되여 가는 화성의 물리적 조건이 유기적 생의 존재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고 있다.

최근 三〇년 동안 화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완전히 객관적인 물리적 연구 방법—열전기적, 광력계적, 편광계적 방법—이 적용되였는바 이 경우에 있어서도 여전히 직접 망원경을 들여다 보고 연구하였으며 희유한 례외로 최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화성의 기본적인 세부 구조를 촬영한 다소 성공한 사진을 찍었다. 우리 쏘련에서는 브·브·쏴로노브(『주앙 천문 관측대의 통보』一九四一년 제三二호 六二—七三페지를 보라), 느·느·찌찐쓰까야(『쏘련 과학 아까데미야 보고집』 제四三권 一九四四년도 제四호 一四七페지)와 특히 느·쁘·바라바쉐브(『천문학 잡지』一九三四년 제一판 제八권 四四—五五페지, 『천문학 잡지』一九四〇년 제一七권 제五분책 및 一九四六년 제二三권 제六분책 또한 느·쁘·바라바쉐브의『달과 혹성들에 있어서의 물리적 조건의 연구』一九五二년, 하리꼬브)들의 계통적 연구가 주요한 의의를 갖는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화성에서의 물리적 조건에 관한 표상의 정확화는, 지구상에서와 같은 생의 부하자를 화

성에서도 보려는 소원이 광범히 보급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로 종래의 열중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있어서도 화성에 있어서의 생에 관한 사상은 그들의 사상적 경향과는 독립적으로 천문학자들 속에 광범히 보급되고 있다. 현재 관념론자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이전과 다름이 없다. 례컨대 영국 천문학자 스마—트는 一九五一년에 영국에서 출판된 자기의 저서『지구의 기원』에서『우주의 목적』및『창조신』에 관하여 선언하면서 화성에 관해서 쓰기를 이 혹성은 점차적으로 소멸되여 가는 생이 있는 것이 특색이다(스마—트『지구의 기원』七八페지 一九五一년, 켐브릿지)라고 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는 관념론자 스마—트와 유물론적 립장에서 있는 스펜서—존스 간에 하등의 차이가 없다. 스마—트나, 스펜서—존스나 화성에 어떠한 다소 시원적 형태의 생이 존재한다고 다 같이 인정하고 있다. 저명한 관념론자 즈·진스는 화성에 생이 존재한다는 사상에 회의적으로 대하고 있으나 엇쨌던 일반적으로 전 우주에 생의 광범한 전파가 가능하다고 간주하고 있다. 자기의 저서『세계의 운동』(로문 번역판은 一九三三년에 출판됨)에서 그는 쓰기를『다른 별(星)들도 생이 살고 있는 혹성을 자기 족(族) 내에 가질 수 있다』(五八페지)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다른 세계에 있어서의 유기적 생의 문제에 대한 태도 하나만으로는 학자들의 철학적 견해의 성격은 규정되지 않으며 그것은 어떠한 사상 투쟁의 동기로도 되지 않는다. 일부 연구자들의 의견과는 달리 화성에 있어서의 생에 관한 특수한 문제는 사상적으로는 보다 적은 의의 밖에 가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화성에 고급한 유기체가 생존한다는, 사실적 재료에 기초하지 않는 의견은 현재에 있어서도 전전치 않은 센세이슌을 일으키고 있다. 그 실례로 될 수 있는 것은 뚱구쓰 운석(隕石)에 관한 이야기인바 그것은 일부 문사들이 뚱구쓰 운석을 혹성들(화성의) 간을 항행하는 배가 땅으로 떨어질 때 파선된 것이라고 꾸며낸 이야기이다.

화성의 대기층, 그 표면의 성질.

현대 과학에 의해서 해명된 화성에 있어서의 물리적 조건에 관한 문제를 간단히 고찰하기로 하자. 최근에 드—보꿀레르는 一九五一년에 출판된 자기의 저서에서 수집된 모든 재료들을 총괄하였다(G·드—보꿀레르『혹성인 화성에 관한 물리학』一九五一년, 파리).

화성에는 상당히 희박한 대기층이 나마 그 낮은 부분에 스펙토르의 청색, 보라색 및 자외선(紫外線)부분을 강하게 흡수하는 보라색 층(높이 五—二五킬로메터)을 가진 대기층이 있는 것이 현저한 특징이다. 그 성질은 아직 알지 못하나 그 보라색 층이 탄산(炭酸)의 미

소한 결정체, 더 정확히 말하면 얼음 덩어리의 결정들로써 형성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층은 완전히 균일하지 않으며 때때로 일정한 밝은 부분을 형성한다。

화성의 대기층에는 두 종류의 구름이 떠돌고 있다。 즉 하층의 황색 구름은 분명히 혹성의 지면으로부터, 바람이 불어 올린 몬지가 나라다니는 것인데 많은 연구자들의 관측이 뵈여 주는 바와 같이 그것은 상당한 기간 표면의 세부를 가릴 수 있다。 상층의 구름(一八—二五킬로메터)은 보라색인바 스펙토르의 적선(赤線)에서는 투명하거나 또는 선명치 못하나, 청색과 특히 보라색에서는 대단히 잘 보인다。 따라서 화성은 보라색 선과 자외선에서는 보통 볼 때보다 특히 스펙토르의 적선에서 볼 때보다 전연 다른 모양을 가진다。 이 구름의 성질은 오늘날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이 되고 있다。 이 구름은 八〇킬로메터의 높이에서 즉 온도가 가장 낮은 곳에서 볼 수 있는 은색 구름(銀色雲)과 성질이 매우 류사하다。 은색 구름은 이•아•호보쓰찌끄브가 뵈여 준 바와 같이 (잡지 『쁘리로다』 一九五二년도 제五호를 보라) 미세한 얼음 덩어리 결정으로 구성되여 있으며 은색 구름의 높이는 이미 알고 있는 지구 대기층의 압력 및 온도의 분포를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구름은 지구의 조건 하에서도, 더우기 화성에 있어서는, 비나 눈을 내릴 수 없다。

화성에서의 기압과 따라서 전 대기 질량은 광력측정법적 관측에 의하여 각종의 광휠트로써 측정한다。 쓰련에서는 브•브•쇠로노브, 느•느•씌찐쓰까야(『중앙 천문 관측대의 통보』 一九四一년 제三二호를 보라), 브•그•페쎈꼬브(『천문 잡지』 一九四四년 제二一권 제六분책 二五七—二七五폐지를 보라)와 바라바쉐브, 쎄메이낀 및 찌모쉔꼬(상동서를 보라)들이 이러한 연구를 하였다。 그들은 공중의 몬지 및 순수한 기체 성분을 분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것들이 기압에서 노는 역할을 평가하고 있다。 혹성 면의 여러 지점에서의 편광 정도를 결정하는 법도 역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리오와 그의 제자 돌푸쓰가 연구하여 적용하였다 (아•돌푸쓰『과학 아까데미야 학보』 一九五一년 제二三二권 一〇六六—一〇六八폐지, 파리)。

끝으로 게쓰는 만일 중력을 결정한다면 구름이 응결되는 높이 (례컨대 안또니아지의 관측에 의해서 알고 있는)와 그 표면의 온도를 측정하는 (례컨대 코브렌쯔와 람프란드가 측정한 것에 의하여) 방법으로써 화성 표면에서의 대기의 압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뵈여 주었다。 각종 결정치 一〇개를 평균하여 65mm±0.6 (가능한 오차)의 수은주 혹은 八七미리바(지구에서의 조건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측정할 때 수은주를 화성이 아니라 지구의 중력 작용 하에 놓았다고 가정했다)의

화성 지면에서의 기압을 얻었다。 이 압력 하에서 의물의 비등점은 섭씨 四三도이다。 화성 표면에서의 온도가 항상 낮으니만큼 물은 화성에서 액체 상태로 있을 수 있다。

기지(旣知)의 중력으로부터 출발하여 화성 대기층의 압력은 四〇킬로메터씩 올라감에 따라 一〇배씩이나 감소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 지구와 화성의 기압은 고도 一八킬로메터에서 동일하게 된다。 더 높은 데서는 지구에서 보다 화성에서의 기압이 더 높다。

화성에서의 대기의 순환은 관측이 뵈여 주는 바와 같이 지구와 매우 흡사하다。 구름 질량의 변동으로써 정해지는 바람의 속도와 분포는 다만 부분적으로 불충분하게 알려져 있다。

화성 대기의 화학적 성분에 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다만 지구에서 보다 두배의 량을 가진 탄산 한 가지만을 직접 발견할 수 있다。 산소는 전연 발견할 수 없다。 성능이 좋은 현대의 분광 사진기는 화성에서 오는 산소선과 지구 대기 내의 산소선을 확연히 구별할 수 있다。 현재 달성된 과학 기술로써 화성의 산소의 함유량이 지구의 一,〇〇〇분의 一만 되더라도 이 산소선을 발견해 낼 수 있다。 그러나 화성에서는 산소의 미소한 흔적도 찾아 볼 수 없다。 화성에서는 산소가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산소처럼 대단히 적극적인 그러한 기체는 일반적으로 대기 속에 매우 적은 량으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쨋던 화성에서의 산소는 지구에서의 산소량의 〇•一% 이하로 되여야 한다。 이 최고 한계는 관측이 정확히 됨에 따라 계속 저하되고 있다。

화성 대기 내의 수증기는 분광학적 방법으로써도 전연 볼 수 없는 정도의 미소량이다。 다른 기체 성분도 발견할 수 없다。

화성 대기층은 주로 무엇으로 구성되여 있겠는가? 이것을 판단하려며는 첫째로 자연에 가장 대량으로 있는 각종 원소들로부터, 둘째로는 지구 대기층의 성분으로부터 응당 출발해야 한다。 우주 내에 매우 풍부하게 있는 가장 가벼운 기체 —수소와 헤륨— 는 화성에는 사실상 없어야 한다。 왜냐 하면 그것들은 지구에도 자유로운 상태로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속에 많이 분포되여 있는 네온도 역시 화성에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곤난하다。 왜냐 하면 이 불활성(不活性)기체는 틀림 없이 시원적(始源的)인 것이며 지구 대기에서조차 극히 적은 량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구 대기층에 있는 량의 약 一%나 되는 원자량이 四〇인 알곤은 방사성 붕괴의 산물인데 매개 혹성에 있어서의 이 과정의 적극성은 그의 질량에 비례한다。 단위 표면에 대한 이 기체의 량은 그 외의 조건들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체로 혹성의 반경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화성에 있는 알곤의 량은 역시 극히 적어야 한다。

화성 대기층의 기본적인 기체는 아마 질소일 것이다。 이 기체는 우주 내에 많이 분포되여 있으며 지구 대기층에도 많이 있다。 질소는 각종의 암상(岩床) 과정의 결과에 부분적으로는 다른 원소와 화합된 형태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질소 분자 형태로 지구상에 유리된다。 례를 들면 아·에·페르쓰만은 깜챠까 화산의 진흙 사화산(死火山) 및 랭각 분화구(冷却噴火口) 내에는 NH_4Cl이 많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지구 화학』 제四권 一九三九년 五九페지)。 고온(高溫)에서 질소는 순수한 형태로 유리되는바 례를 들면 유리된 기체의 五七%가 N_2로 구성된 니즈늬 따길의 두니뜨 괴상암(塊狀岩)의 굴에서 나오는 질소, 유리된 기체의 전 용적의 二四%가 질소로 되고 있는 깜챠까의 아바치 화산의 분화구에서 나오는 질소, 혹은 一주야에 분출되는 유리된 질소 량이 五〇기압 하에서 五〇만 립방 메터 (함유량 약 一·一%)를 초과하는 유타 주 (미국)의 굴에서 나오는 질소 등이다。 질소가 기체 흐름속에서 최고로 포함된 것은 엠바 뮤류쓰 (一〇〇%의 N_2와 희박한 혼합물), 알따이의 베로꾸리호 및 기타 지방에서 발견되였다。 그 외에 쏘련의 북부 및 남부에는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수 많은 생물이 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질소는 어떤 박테리아 즉 질소를 제거해 내버리는 박테리아에 의하여 토양에서 대기로 유리되여 나올 수 있다。 대기 내 질소는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는 아까데미크 브·이·베르나드쓰끼가 예상한 바와 같이 생물적 기원과 부분적으로는 실지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암상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비교적 분할성 있는 기체인 질소는 대기 속을 떠돌면서 대기 속에서 더우기 질소를 요구하는 미생유기체가 없을 때는 한정 없이 오래 동안 남아 있을 수 있다。 이 결과에 화성에 있는 기본적 기체는 량적으로 九八% 이상 되는 질소라고 볼 수 있다。 남아지 二%는 알곤, 탄산 및 많지 못한 부차적 혼합물이다。

보굴례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대기층은 자외선 복사를 강하게 흡수한다。 광화학적 분해의 결과로 질소는 〇·一七미크론 이하의 모든 파장을 흡수하며 탄산은 〇·二〇미크론의 파장을 가진 복사를 흡수한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무엇이 진행되는지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화성 대기층의 보라색 층은 분명히 〇·三五—〇·四〇미크론 간의 복사의 많은 부분을 흡수한다。

화성에서의 기후는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이 혹성들의 표면의 모든 온도는 지구보다 평균 섭씨 三〇—四〇도 낮다。 적도에서의 지면의 평균 온도는 섭씨 마이나쓰 一〇—마이나쓰 二〇도이며 극 지방은 섭씨 마이나쓰 六〇도이다。 온도의 일진동(日振動)의 진폭은 五〇—六〇도 이상이며 오후 한시경에 최고 온도에 달한다。 년진동(年振動)의 진폭은 남극에서는 대략 섭씨 一二〇도, 북극에서는 대략 섭씨 一〇〇도, 적도에서는 약 三〇도, 중간 지대에서는 약 五〇도이다。

강조할 것은 흑점의 온도는 낮에는 밝은 부분의 온도보다 대략 一〇—一五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낮에 적도 지방에서의 지면의 최고 온도는 황무지에서는 풀라쓰 一〇도, 소위 바다에서는 풀라쓰 二〇—二五도이다。 표면 공기의 온도는 지면의 온도보다 훨씬 낮으며 항상 령도 이하이다。 낮에는 이 차이가, 섭씨 三〇—四〇도 이상이며 밤에는 차이가 없어질 것이다。 그 결과에 화성에서는 고도의 증가에 따라 온도가 급격히 낮아짐과 함께 틀림 없이 센(強) 대류(對流)가 생길 것이다。 대략 평가하면 一五킬로메터 높이에서 벌써 온도가 섭씨 마이나쓰 一〇〇도까지 낮아진다。

첫째 형(황색)의 구름과 표면 복사를 흡수하는 극의 안개의 온도는 섭씨 마이나쓰 七〇도 혹은 마이나쓰 八〇도 이상이 되지 못하며 고도 一五—二〇킬로메터에서 화성 대기의 온도와 일치한다。 지구의 은색 구름과 류사한 둘째 형의 구름은 온도가 더 낮다。

화성의 극관(極冠)은 기본적으로 온도가 대단히 낮은 얼음 기둥으로 되여 있다。 이 극관의 두터이는 모르기는 하나 그리 크지 않을 것인바 그 융해 속도에 의해 결론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미리메터의 몇분의 一밖에 안될 것이다。 이 극관의 정상적인 중심부는 분명히 얼음으로 되여 있을 것이며 그 두터이는 수 센치메터를 넘지 못한다。

현대의 분광학적 규정에 의하면 화성 대기의 전 함수량은 지구에서 겨울에 고도 二천 메터의 산 위의 함수량의 〇·〇〇一배밖에 않된다。 대응하는 함수량을 계산하여 보자。 만일 온도 섭씨 마이나쓰 一〇도에서 상대적 습도가 五〇%이라면 이것은 대체로 산악 조건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의 절대적 습도는 一미리메터에 불과하다。 따라서 알려진 공식에 의하면 전체 대기 층의 물의 분량은 지구 표면상의 공기주에서 一평방 센치메터 당 불과 二—四미리메터의 두터이를 가진 물층이 된다 (평방메터에 대해서는 二—四키로 그람)。 화성 대기층의 함수량은 이 량의 一·〇〇〇분의 一 이하이다。 즉 물층의 두터이가 2.10^{-4}—4.10^{-4} 센치메터 이하이다。

화성의 공기의 이 비상한 건조 정도는 가장 건조한 지구의 사막을 훨씬 릉가한다。 그런데 포화시의 절대적 습도는 온도의 저하에 따라 급격히 감소된다 (그것은 섭씨 六五도 낮아지면 一·〇〇〇배 감소된다)。 따라서 화성에서의 겨울(冬)에 관측되는 섭씨 약 마이나쓰 七〇도의 온도에서는 이 미소량의 증기는 관측에 걸릴 수 있는 미세한 구름으로 응결된다。

수증기가 불균일하게 분포되여 있는 조건 하에서 이 응결 과정은 더 쉽게 진행된다。 대기의 대류는 규칙대로 일정한 반구에 국한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각 반구에서의 공기의 대류는 별개로, 진행된다。 주지하

는 바와 같이 화성에는 넓은 표면을 가진 못(湖)은 고사하고 매우 적은 물 흐름조차 없다。화성에 이와 같이 자유로운 물이 없는 것은 눈(雪)、더 정확히 말하면 서리(霜)가 녹을 때 수증기 전체는 직접 대기층에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응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이와 같이 그리 크지 않은 면적을 차지하고 거의 일정한 성질을 가진 극에 있는 눈을 도외시한다면 화성에 있는 물의 전체 량은 화성의 대기층에 있는 물의 전체 량보다 결코 몇배나 더 많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수증기의 함유량은 화성 대기층 전체에 있어서 $2,88.10^8$ 톤이다。

이것은 단지 지구의 생물 유기체들에 포함되여 있는 물의 량보다 대략 백만 내지 천만배나 더 적다。이런 조건 하에서는 화성에 매우 엷은 두터이로도 눈이 내려 덮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겨울에 희게 덮이는 것이 관측되는 것은 틀림 없이 혹성 표면에 내렸다가 조금만 더워져도 빨리 사라지는 서리에 불과할 것이다。

화성에서의 계절 변화는 다음과 같다。동기 말부터 초봄에 걸쳐 대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얼음 결정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단히 농후한 안개가 극관에 생긴다。그것은 고정성이 적으며 봄철이 흘러감에 따라 흩어진다。봄에 극관은 분명히 융해하기 시작한 결과로 생겼다고 볼 수 있는 폭이 약 수 킬로메터 되는 어두운 주변으로 둘러 싸인다。다음에 그 극관으로부터 一주야에 약 四五킬로메터되는 속도로 적도를 향하여 어두운 것이 전파하는 것이 관측된다。어두운 것의 파동은 적도를 지나 반대편 반구의 방향으로 계속 전파하여 여름 초에 대략 위도(緯度)四〇도에 도달한다。보쿨레르의 말에 의해서 (G・드ー보쿨레르 『혹성인 화성에 관한 물리학』一九五一년、파리) 이러한 정경이 충분히 만족하게 확정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언급하려 하지 않는다。이렇게 어두운 것이 북위(北緯)六〇도에서부터 남위(南緯)四〇도까지 즉 량반구에 걸쳐 一〇〇도 자이를 전파하는 전체 과정은 태양이 화성 천공을 적도에서 (초 봄) 회귀선(回歸線)까지 (초 여름) 운동하는 것과 관련된다。태양이 반대 쪽으로 돌아 오면서 다른 반구를 지나 적도를 횡단할 때 이 어두운 것의 파동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계속하여 이 현상은 대칭적인 질서로써 반복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매 반구에만 별개로 국한되는 대기 대류의 결과일 수 없으며 하물며 어떤 습기가 혹성 표면을 따라 전파하는、결과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보쿨레르는 이 현상을 대기의 확산(擴散)으로 설명하려고 애썼다。그는 같은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먼저 것의 절반 속도—하루에 대략 二〇킬로메터로 전파하는 어두운 부분에 류사한 또 다른 현상을 기록하고 있다。이 현상의 성질은 아직 리해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화성 연구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느・쁘・바

라바쉐브는 이런 류의 계절 변화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화성에서의 물리적 조건에 관한 우리의 현대의 지식에 비추어 볼 때 이 혹성에서의 기후는 고도 약 一八—二〇킬로메터되는 지구상에서의 가상적 고원(高原)과만 비교할 수 있다。만일 그 가상적 고원의 온도를 섭씨 三〇—四〇도 저하시키면、그 대기 층에서의 수증기의 함유량이 몹시 감소되며 산소는 완전히 제거된다。극히 낮은 기압을 가진 산소가 없는 극도로 건조한 고산 사막은 화성에서의 조건과 같다。거기에는 개방된 수면을 가진 못이나 흐름의 형태로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이 사실은 모든 전문가들이 례외 없이 접수할 수 있다。왜냐 하면 완전히 의심할 여지 없는 자료들에 의하여 명백하여지기 때문이다。식물이 자기의 모든 수요를 위하여 리용할 수 있는 一평방 센치메터의 표면에 대한 대기、내의 물의 량은 화성에서는 수백분의 一그람을 넘지 못한다。표면과 대기에는 물이 극히 부족하나 화성에는 지구 사막에서와 같이 막대한 량의 지하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가? 이런 결론을 지을 하등의 근거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왜냐 하면 지구에서의 지하수는 물이 더는 친입할 수 없는 일정한 수준의 깊이까지 침투한 데 불과한 동일한 표면의 물이기 때문이다。화성과 지구의 물의 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비률로 된다。전 지구 표면에 대양의 물이 균일하게 분포된다면 그 두터이가 수 킬로메터이고 화성에 축적된 전체 물이 화성 표면에 균일하게 펴진다면 그 층의 두터이는 킬로메터도、메터도、센치메터조차도 되지 않고 미리메터의 수십분의 一밖에 되지 않는다。

화성에 있어서의 생의 문제。

지금 우리 지구와 대비하여 화성에 있어서의 생의 존재와 발생에 관한 몇가지 일반적인 견해들을 말해보기로 하자。우리는 지구에서 생이 풍부히 있는 지역들로부터 종과 배(胚)가 부단히 출현하고 있으며 수백만년간 새로운 생형태가 적응되고 발전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은 명백히 존재 조건에 의존한다는 것을 본다。온도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습도가 지구의 어데서 보다도 큰 회귀선 아래에서는 생의 형태는 가장 다양하다。극에로 갈쑤록、또 지구 표면에서 높이 올라 갈쑤록 생은 적어지며 점점 더 초보적인 형태로 국한되여 간다。우리의 기후에서는 산 기슭에 정원、삼림、개간된 들이 있고、고도 二—二・五킬로메터까지에는 침엽수 뿐이다。그러나 습기가 낮은 곳에는 그것조차 없어진다(례컨대 자일리쓰끼 알라ー따이 산을 등지고 있는 지방의 더 건조한 남쪽 경사지에는 수식물「樹植物」이 전연 없으나 같은 높이나 혹은 더 습기있는 북쪽 경사지에는 수식물이 무성하고 있다)。더 높아지면 다만 초식물(草植物)로써만 덮여 있는 고산 초원이 시작되며

더욱 높은 데서는 풀이 드물게 있고 바위가 널려져 있는 지대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는 영구설(永久雪)이 시작되는데 그 영구설은 물론 뜨로뽀쓰페라 (지구 주위 一一킬로메터의 폭을 가진 대기층—역자 주)의 한계까지 계속된다。이 뜨로뽀쓰페라에서는 습기가 이동되며 구름이 생긴다。

지구의 산이 뜨로뽀쓰페라의 한계 즉 수증기가 많은 대기층의 한계를 벗어나면 대단히 높은 그 곳에는 영구설은 없고 낮이면 몹시 더워지고 밤이면·몹시 추워지는 건조한 암석 황무지만 남는다。 여기에서의 공기의 온도는 항상 극히 낮으며 낮에도 지면의 온도보다 훨씬 낮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도가 一八—二〇킬로메터에 달하고 온도가 지구의 온도보다 수십배나 낮고 산소가 전연 없는 이러한 가상적 황무지는 생각컨대 오늘날의 자료로써는 화성의 표면을 상당히 근사하게 련상시킨다。이러한 고원에 어떤 생이 있을 수 있겠는가? 과연 이런 조건 하에서 신진 대사를 할 수 있겠는가? 영구설이 있는 지대를 지나 이 건조하고 동결된 황무지에서, 훨씬 낮은 높이에서 이미 없어져 버린 초목, 일반적으로 식물의 고등 형태를 우리가 또 다시 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생이 수백만 년간 존재하였고 주위 환경에 적응하여 변종되여 온 지구에서조차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요구성이 적은 생의 형태만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생물학자들만이 해결할 수 있다。

화성에서의 생의 존재에 관한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도 취급할 수 있다。 생이 존재하려면 그가 우선 주어진 혹성에서 발생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물리—생물학적 자료에 기초하면 빤쓰뻬르미야에 관한 가정—한 혹성에서 다른 혹성에로의 유기적 배아(胚芽)의 이동—은 완전히 낡아 빠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에 관하여 브·브·끄마로브는 다음과 같이 썼다··「…이러한 가정들은 정확한 지식에도, 변증법적 리론에도 모순된다」(「식물의 기원」 제七판 二三페지 一九四三년, 모쓰크바)。 느·그·홀로드늬는 빤쓰뻬르미야 리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혹성으로부터 옮겨 온 미생 유기체로부터 다양한 유기적 생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뵈여 주었다 (「자연과 실험실 속에서」 제一분책 一九四九년, 모쓰크바를 보라)。

따라서 만일 생이 그 어떠한 방법으로 현재의 화성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 혹성에서 발생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화성이 가지고 있는 조건 하에서는 생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사실상 네개의 주요 원소들 H, C, O, N과 린, 연 및 일정한 비률로 들어 있는 기타 원소들로 구성된 담백질적 분자가 생의 기초로 되고 있다。 이러한 원소들이

화합하여 담백질적 분자를 구성하려면는 주어진 천체와 주어진 장소에 그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한 련결과 화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쉽게 이동하며 쉽게 맞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건조한 황무지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용액의 형태로 여러 가지 무기적 화합물들을 포함한 물의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못이 있어야 한다。 이 못의 크기는 아무래도 좋으나 례컨대 넓은 표면을 가진 강에 의해서 물질의 활발한 교류가 보장되여야 한다。

지구에서는 생이 바로 못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구 존재의 초기에는 수백만년 간이나 생이 없이 남아 있었다。 끄·이·마이에르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식물은 물에서 발생하였다。 세계의 대양(大洋)은 그의 요람이였다」(「지구 식물의 기원」 一九四六년 제四판 五페지, 모쓰크바)。 계속하여 그는 이 명제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를 들었다。 즉 『전형적인 지구 식물의 발전 력사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그 하급 대표자들인 이끼(蘚), 곰팽이들은 어떤 발전 단계에서는 물과 불가분적으로 련관된다는 것·· 씨를 맺는 과정에서 많은 물이 요구된다는 사실에 부닥치게 된다』(상동서)。 또 계속하여 그는 썼다··『다만 고등한 형태에 있어서만, 침엽수, 관목들에 있어서만 이 결실 과정이 물의 존재와 무관계하다。

다음에 물에 있는 생물을 볼 때 우리는 바로 여기서 식물들의 가장 단순하게 조직된…원시적인 대표 즉 넓은 의미의 수조류(水藻類)와 가까운 편모류(鞭毛類)를 만난다。 이 모든 것은 현재의 지구 식물들의 선조는 높은 단계에서도 역시 물이 있는 환경과 관련되여 있으며 그 아주 먼 친척은 현재의 수생 식물이였다고 가정할 수 있게 한다』(상동서)。

『식물 화석학(化石學)의 자료도 역시 식물적 생 (따라서 온갖 생—폐젠끄브)의 원천이 대양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발굴된 최고대의 식물은 수조류에 속한다』(상동서 七페지)。

『전체 식물적 생이 물에 집중되여 륙지에는 전연 없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어떤 요인들의 영향에 의해서 어떤 식물들은 자기를 낳은 자연 현상들을 버리고 륙지에 이주하여 여기서 오래동안 다양한 진화를 거쳐 오늘날 지구에 있는 식물의 형태로 우리 시대에 이른, 풍부한 새로운 생의 시초로 되였다」(상동서 九페지)。 아까데미크 브·르·끄마로브는, 지구에 있는 생은 화산에 의해서 생긴 온천(溫泉)에서 발생했다고 간주하고 있다(「식물의 기원」 二九—三〇페지)。 이 온천은 여러 가지 광물성 화합물을 풍부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이 처음 발생한 최초의 대양의 물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지구에서의 생의 기원에 관한 문제는 아까데미크 아·이·오빠린의 로작에서 충분히 상세하게 해명되였다 (「생의 기원」 一九四五년판과 론문집

『현대 생물학에 있어서의 철학 제 문제』 二六七——二八七페지를 보라)。 생은 이미 신진 대사와 번식의 성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직 일정한 구조를 가지지 못하는 무세포 산 물질 형태로 발생하였을 것이다。 오·브·레뻬쉰쓰까야도 역시 자기의 로작에서 이 학설을 기초지었다 (『유생 물질에서의 세포의 발생』 一九五○년 제二판, 모쓰크바)。

상술한 것을 요약하면서 아까데미크 브·르·끄마로브는 쓰기를 『최초에 바다를 포함한, 물이 고인 곳에서 가장 간단한 생물이 나타나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 후 오랜 세월을 거쳐서 생은 특히 바다에서 화려하게 발전하였다。 그런데 한편 륙지는 비교적 황무지로 남아 있었다。 이것은 박테리아와 수조류의 시기였다。 그 후 생이 륙지에서도 가능하게 되였다』 (『식물의 기원』 一七五페지)。

이렇게 지구에서의 생의 발생은 개방된 표면을 가진 못과 지어 바다와도 긴밀히 련관되였다。 비가 내리고 틀림 없이 습기가 풍부했을 최초의 대륙에서는, 상술한 지구의 식물 발전의 정경을 승인한다면, 지구 존재의 첫 시기에는 생이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물며 현재의 화성 표면과 같은 건조하고 추운 황무지에서 생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화성에서 생이 과거로부터 보존되여 오면서 존재할 수 있었다면 이 혹성에 있어서의 과거의 조건은 현재와 근본적으로 달랐어야 했는바 거기에는 밀도가 큰 대기층, 개방된 못, 현재보다 더 높은 온도를 가졌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

단순히 습도와 전체 물의 량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는 표면이 개방된 못이 생기기 위해서는 매우 불충분하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온도가 지구보다 평균 三○——四○도 낮은 화성에서는 이러한 못은 단순히 얼음판으로 되고 지구의 높은 산의 영구설과 얼음처럼 어느 때도 녹는 일이 없다。 지구 표면의 대부분이 두텁게 얼어 붙을 수 있는 제一빙하기가 오려며는 八——一○도만 평균 온도가 낮아지면 충분하다。 화성에는 물이 없고 아무 것도 얼 것이 없다는 단한가지 리유만으로도 그 표면에는 얼음이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없다。 이 혹성의 수증기의 미소량만이 얼음 고치가 되여 서리의 형태로 내린다。 대기에서의 수증기의 포화점이 극히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곧 다시 중화된다。

그러므로 화성에서 생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기에 비할 바 없이 많은 물의 축적과 높은 온도의 존재를 가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혹성이 급격한 건조와 랭각의 방향으로 진화되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듯 화성에서의 생에 관한 문제는 현저한 정도로 태양계 발생론의 문제의 하나에 속한다。 과거에 혹성 주위에 더 밀도가 큰 대기층, 더 많은 습기, 더 높은 온도가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우주 발생론적 가설은

화성에 있어서의 그 어떠한 생의 가능성도 전연 거부해 버린다。

이 우주 발생론적 가설에는 우주 몬지의 개개의 굳고 랭각된 립자들로써 혹성이 형성되였다고 가정하는 모든 가설에 속할 것이다。 이러한 운석설적 가설의 지지자들은, 모든 혹성은 굳은 립자 상호간의 력학적 상호 작용의 방법으로 형성되였고 처음부터 랭각되여 있었다고 간주한다 (오·유·슈미뜨 『지구의 발생에 관한 네개의 강의』 一九五○년도, 모쓰크바——레닌그라드를 보라)。

혹성의 질량은 서서히 점차적으로 방사능 붕괴에 의해서 가열되였으며 시초에는 대기가 전연 없었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 방사능에 의한 가열 과정은 그 질량이 적기 때문에 화성같은 크지 않는 혹성에서는 틀림없이 훨씬 더 현저하지 못할 것이다。

화성에 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상의 지지자들은 분명히 다른 관점에 서 있어야 한다。 혹성은 초기에 태양을 둘러싼 기체——몬지 매질(媒質)로써 급격한 과정으로 형성되였고 내부 열의 축적과 그 후에 점차로 공중에 분산된 충분히 밀도가 큰 대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관점에 서야 한다。 지질학적 자료에 의하면 최근 수억년 간에는 지구의 물의 축적은 조금도 감소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은 태고에는 있을 수 있었다。 어쨋든 화성에서의 생의 존재에 관한 문제는 혹성으로서의 그의 진화 과정과 긴밀히 련결되여 있으며 그에 대하여 우리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화성에 생물권이 존재하는가?

다음은 화성에 있어서의 유기적 생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고찰하기로 하자。

혹성에 있어서의 유기적 생은 무엇보다 먼저 혹성에 생물권이 있어야만 나타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브·이·베르나드쓰끼는 우리 지구상에 있어서의 생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깊이 三킬로메터, 높이 약 一○킬로메터에 달하는 두터운 각(殼)을 차지하면서 세계적 규모로 나타난다는 것에 처음으로 주의를 돌렸다。 생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이 각을 그는 생물권이라고 명명하였다 (『생물권』 제一권 一九二六년, 레닌그라드를 보라)。 브·이·베르나드쓰끼의 연구에 의하면 지구의 지각의 전체 표층(表層)은 그 중량의 九九%가 생물에 의해서 개조되였다고 한다 (『생지리 화학』 제二권 一九三九년판을 보라)。

현재의 지구 대기층은 역시 대부분 C, O, N, Ca, K, Si, P, S, Fe, Mg, Mn, Cu, Va, Zn, Na, J 및 기타 많은 원소들의 전환과 축적 작용에 적극 참가하고 있는 생유기체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유기체들은 대기층의 여러 가지 기체 례컨대 O_2, CO_2, N_2, H_2O, NH_3, CH_4, H_2 및 기타를 유리시킨다 (르·쓰·베르그 『로씨야의 지리학적 발견들의 력사에 관한

개관』一九四九년판 三四九——三六八페지)。 특히 박테리아는 H_2O, CO_2, N_2, H_2S, NH_3, H_2, CH_4기타를 유리시키면서 유기 물질을 분해한다。 생유 기체의 생화학적 에네르기의 작용은 대단히 크다。

르·쓰·베르그는 다음과 같은 례를 들고 있다。 즉 실험실에서 도토(陶土)를, 반토(礬土)와 규토(硅土)를 유리시키면서, 그 구성 부분으로 분해하는 것은 섭씨 一,○○○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생유기체——지아또메이(硅藻)——는 보통 온도에서 그것을 구성 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 무기(無機) 지각에 있어서는 물과 탄산은 결코 구성 부분으로 분해되지 않는다。 이것은 대단히 높은 온도에서 암장(岩漿)에 있어서만 가능하다。 생유기체는 보통 온도에서 대 규모로 이와 같은 분해를 일으킨다。

박테리아의 역할이 극히 특출하다。 그·이·골진은 자기 론문『규산염(硅酸鹽)적 미생물』에서, 비상히 견고한 화합물이며, 베르나드쓰끼에 의하면 지각의 과반의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류산의 작용에 잘 견디는 알류모씨리까뜨는 특수한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된다 (잡지『과학과 생활』一九五二년, 제一호를 보라)라고 썼다。 규산염적 박테리아는 화강암까지 파괴하여 대체로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준비한다。

생유기체는 이러한 화학적 에네르기와 함께 적당한 조건만 보장되면 급속히 번식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례컨대 코레라 균은 단 一주야 사이에 六一——六二 세대에 해당하는 $6,4 \cdot 10^{18}$ 개씩 번식할 수 있다。가장 간단한 조류——지아또메이(硅藻)——조차 一주야에 五세대 번식할 수 있다。 브·이·베르나드쓰끼에 의하면 생유기체는 번식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는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지구 전체를 덮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코레라 균은 一·二五 주야에, 규조는 一六·八주야에, 록색 부유(浮遊)식물은 평균 一六八——一八三주야에, 파리는 三六六주야에, 닭은 一五——一八년이면 된다。 브·이·베르나드쓰끼의 계산에 의하면 지구 생물권에 있어서의 유생물질의 전체 중량은 대략 10^{14}—10^{15} 톤이 되는데 그것은 지각의 중량의 10^{-4} 배이다。 대기층과 수권에 있어서의 자유 산소의 량은 유생물질의 중량과 대등한 데 대략 $1,5 \cdot 10^{15}$ 톤이다。

자유 산소는 세계에 있는 록색 식물들의 산물이다。 이 명제는 주지된 사실이며 론증을 요하지 않는다。 강조할 것은 지구 대기층 내의 자유 산소는 다른 기체들과는 달리 력학적 평형 상태에 있다는 사실, 즉 산화 과정에서 부단히 소비되며 록색 식물의 활동에 의해서 부단히 생성된다는 사실이다。 만일 록색 식물에 의해서 생성되지 않는다면 산소는 몇해 사이에 대기에서 이미 완전히 소멸되였을 것이다。

르·쓰·베르그는 유생물질을 통하여 매년 공기 내에 포함된 전체 산소의 량에 대등한 즉 대략 10^{15} 톤의 자

유 산소가 생성된다고 지적하고 있다(상동서 三五九—三六○페지)。 록색 식물에 의하는 외에도, 산소는 태양의 자외선 복사에 의한 물의 분해와 방사능 물질의 분해의 결과로서도 얻어진다。 그러나 아·쁘·위노그라도브와 루·브·째이쓰에 의하면 후자의 과정들은 아주 현저하지 못하다 (『쏘련 과학 아까데미야 보고집』 一九四一년판 제三三권 제九호를 보라)。 산소가 분리되는 과정이 주로 고등 엽록 식물에 의해서 조천지어 진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있어서 평균 一○○메터의 두터이에 백만 평방 킬로메터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대양의 부유 생물이 거대한 역할을 한다。 록색 식물이 풍부한 이 곳에서 대기 산소의 일부가 생성된다。

생물권을 형성하는 유생물질의 거대한 전지구적인 역할은 주위 환경과의 신진 대사 과정에 의하여 조천지어지는데 이것은 가장 위력있는 화학적 반응과 급속한 번식 즉 유생 물질의 량의 증가와 끝으로 적어도 一○억년으로 계산되는 생물권 존재의 장구성을 동반한다。

이 때에 유생 물질은 지구 지반과 광석 및 분비물의 국부적 집적을 창조하며 또한 새 파생적인 대기층 특히 질소—산소 성분의 대기층을 창조하면서 지구 표층을 개조한다。 강조해야 할 것은 자유 산소는 생에 의하여 창조되였을 뿐만 아니라 생에 의하여 유지되기 때문에 생이 없이는 산소는 비상히 큰 화학적 활발성을 가지고 보존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 산소의 존재는 관측되는 혹성에 주어진 모멘트에 생물권이 있다는 표징으로 된다。

대기 질소에 관한 문제는 더 복잡하다。 이 기체는 비교적 활발치 못하다。 따라서 대기층에서 대단히 장기간 보존될 수 있다。 그와 함께 대기층의 질소는 다만 파생적이며 틀림없이 지구가 최종적으로 형성된 이후에 그 어떠한 방법으로 생성되였을 것이다。 이것은 질소가 자연에 매우 광범히 분포된 원소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지구 대기층 내의 기체들 중에서 즉 각이한 원자량을 가진 불활발한 기체들 중에서 매우 미소한 흔적만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서도 명백하다。 아까데미크 브·이·베르나드쓰끼는 전체 대기 질소는 비오게네즈(生原說)적 성질을 가진다고 간주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정당하다면 대기층 내의 질소의 존재는 대기층의 질소를 생성하는 박테리아의 형태와 무기 화합물——초산염, 아초산염에서 질소를 방출시킬 수 있는 박테리아의 형태로라도, 적어도 과거에 주어진 혹성에 유기적 생이 존재했다는 표징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구 화학의 현재의 자료에 의하면 분자 질소의 유리는 산소와는 달리 생유기체가 참가함이 없이 질소 화합물이 분해할 수 있으리만큼 충분히 온도가 높은 매우 깊은 곳에서 암상적 과정의 결과로 직접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한편 질소 생성에 있어서 생유기체가 역할을 한다는

결해는 특히 질(質)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대기층의 형성에 있어서의 생유기체들의 실제적 의의의 평가를 대단히 곤난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술한 모든 것에 기초한다면 주어진 혹성에 있어서의 생물권의 존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론박할 여지 없는 기준으로 되는 것은 대기층 내의 자유 산소의 존재라는 결론이 나온다. 분자 질소의 존재는 이러한 기준으로 될 수 없다. 화성에서는 자유 산소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화성에 생물권이 만약 존재한다 할찌라도 그것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혹성에 있어서의 유기적 생은 그가 지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화성적 규모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화성에 있어서의 생에 관한 관측 자료.

만일 화성에 생물권이 없다고 간주한다면 그래도 유기적 생은 비록 매우 미미한 것이라 할찌라도 개개의 근원지에서 나타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그의 반사능력과 색채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화성의 『바다』는 식물로써 덮여있는 구역이라는 견해가 가장 광범히 보급되여 있다. 그·아·찌호브는, 심지어 이 식물은 이 혹성의 험한 조건에 적응할 수 있으며 특히 스펙토르의 가장 가까운 적외선 부분에서 태양 복사에 대한 강한 반사 능력을 상실한 활엽 형태 혹은 침엽 형태에 속할 수 있다고까지 가정하고 있다 (『혹성인 화성』 一九四八년, 알마―아따). 이 의견은 사실에 있어서 각이한 지구의 조건에서 록색(綠色) 식물에 대해서만 실시한 까자크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과학 아까데미야 천문 식물학 분과 위원회의 관측 결과에 의해서 공고화되였다.

상기의 저서에서 그·아·찌호브는 그가 가정한 식물에 관하여 쓰고 있다. 즉 『화성에서의 식물은 어떤 것이겠는가? 우선 그것은 땅에 부착된 키가 낮은 식물이여야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풀과 록색 및 연한 청색인 고슬 고슬한 숲이여야 한다…지구의 고산(高山)과 북극의 향나무, 오쓰뜨로로드까, 들쭉나무, 월귤나무, 이끼, 지의류 및 기타 북극 고산 식물들과 화성의 식물이 약간 근사한 데가 있다』(二二一폐지).

위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 쏘련과 외국의 연구자들의 대부분이 화성에서의 식물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거나 거의 확실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어떤 사실적 증거들을 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자. 화성에 대해서 광범히 적용되고 있는 가장 잘 쓰는 방법은 광휠트 혹은 드문 경우에는 분광 사진기로써 각종 스펙토르 선에 있어서의 각 세부분들의 반사능력 분포에 대한 연구이다.

록색 식물은 五六〇미리 미크론 근처의 스펙토르 부분에 광 반사의 그리 크지 않는 극대(極大)·(엽록소 극대)와 명확하게 나타난 적외선 여분이 있다는 것으

로써 분별된다는 것은 주지된 사실이다. 다만 적외선만 통과시키는 광휠트로 촬영된 록엽은 눈이 덮인 것처럼 보이며 매우 어두운 하늘 배경상에 명확하게 나타난다. 예·르·끄리노브가 아주 각이한 조건에서 얻은 스펙토르 광도계에 나타나는 선에서 잘 보이는 바와 같이 이 특성은 봄의 신선한 록색 식물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며 가을에는 약간 희미해 진다.

화성에 있어서의 흑점 즉 식물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이 혹성의 유일한 부분인 『바다』 혹은 『오아시쓰』의 분광학적 특성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화성의 『바다』는 스펙토르 광도계에 나타나는 것이 지구의 식물과 전연 비슷하지도 않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록색 극대는, 거기에서는 본질상 정할 수가 없다. 록색 극대가 존재하기만 한다면 화성에 있어서의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사이에 록색 광선의 조그마한 콘트라스트가 생겨야 하겠는데 그것은 관측되지 않는다.

적외선 여분도 역시 거기에는 없다. 그러므로 이 선속(線束)에서의 화성의 『바다』는 황무지에 비하여 가장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까자크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과학 아까데미야(알마―아따)의 천문 식물학 분과 위원회의 다년간의 연구는, 상술한 스펙토르 광도계에 나타나는 특징이 록색 식물에 대해서조차도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뵈여 주었다. 성장이 중지되는, 년중(年中) 기후가 험악한 시기에는 분광학적 반사능은 몹시 변하여 광물에 근사하게 된다. 하급 식물, 례컨대 지의는 아주 작은 정도로만 위에서 말한 성질을 가진다. 한편 적외선 여분은 약간의 무기 물질들도 가지고 있다 (례컨대 예·르·끄리노브가 연구한 붉은 기와의 스펙토르 반사능의 선을 보라, 그의 로작 『자연 구조의 스펙토르 반사능』 모쓰크바―레닌그라드를 보라).

여기로부터 스펙토르 광도계를 사용하는 방법은 효과적 방법이 못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방법을 적용해서 『화성의 바다』가 과연 식물이 있는 구역인가 하는 문제를 천명할 수 없다.

본질상 화성에 있어서의 식물의 존재 여부를 밝히는 가장 위력한 확증은 『바다』의 색채의 계절 변화와 그 대부분이 푸르스레하거나 약간 하늘 색채를 띠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경험 있는 관측자들이 동일한 망원경으로써 전연 다른 결과들을 내였을 때 우리는 대단히 믿음성이 적은 순전한 주관적 관정의 령역에 빠지게 되며 곤난한 형편에 부닥치게 된다.

느·쁘·바라바쉐브는 화성의 흑점의 외모와 형태의 변화에 관한 자기의 마지막 종합 론문에서 화성의 『바다』의 외형 변화의 많은 놀라운 경우들을 서술하면서 다음과 같은 최종적 결론에 도달했다.

(一)、대부분 경우에 『바다』의 색은 태양이 지평선에 접근하는 정도에 따라 청색쪽으로 변이한다。

(二)、『바다』의 압도적 다수는 흰 차광판에 비하여 불그스레한 색채를 띠고 있다。 관측되는 하늘 색의 음영은 『바다』의 색채와 황무지의 보다 더 붉은 색채의 콘트라스트의 결과에 발생하는 순수한 주관적 감각의 결과이다。

(三)、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어두운 부분은 습한 황무지의 일부이다。

(四)、색채가 비교적 검은 것과 그의 변화는 혹성의 그 부분에 있어서의 식물에 관한 가설에 모순되지 않는다(『천문학 잡지』 一九五二년 제二九권 제五분 책 五三八—五五五폐지)。

분명하게 그 변화를 일으키는 미지의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화성에 색채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에만 의거하여 화성에서의 식물의 존재에 관해서 어떤 결정적인 것을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느·쁘·바르바쉐브는 같은 론문에서 단지 그를 습하게만 하면 현저하게 청색을 띠게 되는 광물인 찌호윈쓰끼 철반(鐵礬)의 례를 들고 있다。

주의할 것은 정량(定量) 스펙토르 광도계의 관측은 적어도 화성의 대기층의 외곡화의 영향을 고려하며 갈라낼 수 있게 하나 색채의 순천한 정성적(定性的) 과정으로써는 물론 전연 이렇게 할 수 없다。

화성의 『바다』가 도대체 무엇이며 그의 관측되는 성질들을 규정하는 식물이 그 속에 있는가 하는데 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보다 믿을 수 있는 표준을 적용하여 보자。 화성 『바다』의 지면의 온도는 황무지의 온도보다 一〇—一五도 높다는 것이 확정되였다。 『바다』가 검게 보이는 것은 보다 많이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보다 검은 무기체는 그가 받는 태양 복사를 최대한으로 흡수하며 따라서 더욱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이 때에 모든 과정은 오직 흡수와 가열에 귀착된다。 화성의 『바다』에서의 가열 과정은 황무지의 가열 과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측시로 반사 현상을 동반하는 태양 복사의 단순한 흡수에 귀착되는 것이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간다한 계산을 인용하여 보자。 황무지와 『바다』의 반사능 A_1과 A_2를 각각 0,30 및 0,15라고 하자。 이 경우에 있어서 볼쯔만의 법칙에 의하면 『바다』의 온도 T_2는 황무지의 온도 T_1에서 식 (방) $T_1 = T_2\left(\frac{1-A_1}{1-A_2}\right)^{1/4}$ 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바 그것은 관측의 결과와 같이 一五도 높다。 그런데 『바다』의 성질이 식물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였을 것이다。 어떠한 식물이라도 단순한 광물보다 전연 다르게 나타난다。 식물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는 광화학적 성격을 가진 복잡한 과정에서

소비되며 이 과정은 매우 큰 에네르기로써 특징지어진다。 식물이 차지하고 있는 지반의 표면은 동일한 조명(照明) 조건에서는 광물질의 보다 밝은 표면보다도 더 강하게 반사할 수 없다。 적열된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쓰와 태양에 의하여 가열된 몬지 많은 길가에 자라나는 풀은 항상 보다 온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산 물질 특히 식물의 주요한 성질은 그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네르기를 여러 생활 과정에 소모하고 단순한 가열에는 전연 소모하지 않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의심할바 없이 화성의 흑점들은 현저한 도태성이 없는 무기체에 관한 물리학적으로 설정된 가열과 복사의 보통 법칙에 종속된다、따라서 흑점의 성질들은 식물에 의하여 조건지어질 수 없다 (주一)。

화성의 황무지와 『바다』의 스펙토르 광도계적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이 명제를 엄밀히 증명하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일 것이다。 각이한 스펙토르 광선에서의 무기체의 반사능은 그 온도를 일률적으로 규정한다。 현재 화성에 대한 스펙토르 광도계에 의한 자료가 불충분한 조건 하에서도 화성의 『바다』의 열 발산이 식물이 차지한 표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모순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화성의 『바다』의 성질에 관한 판단의 다른 기준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그 표면으로부터의 광선의 반사 법칙이다。 화성 표면에서의 광선의 반사는 람벨뜨의 법칙에 매우 정확히 맞는다는 것이 확정되였다。 다시 말하면 화성은 광택 없는 평탄한 표면처럼 광선을 반사한다는 것이다。

브·브·솨로노브의 가정에 의하면 화성의 활성(滑性)은 一에 가깝다는 것으로써 이 사실이 표현되고 있다。 태양이 완전히 비치고 있는 충분히 평활(平滑)한 구(球)는 극히 먼곳에 있는 관찰자에게는 그의 중심이 검은 주변보다 더 밝게 보이는 것이다。 이 법칙은 화성에도 적용되며 다만 황무지 뿐만 아니라 그 『바다』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화성을 일견하면 충분하다。 황무지와 『바다』가 화성의 주변에 접근함에 따라 (화성의 일[日]회전에 인하여) 그의 광도는 점차 약하여 진다。

이와 같이 화성의 황무지도 『바다』와 같은 법칙에 의하여 광선을 반사한다。 화성 『바다』의 원활률(圓滑率)도 一에 매우 가깝다。 광택없는 불투명체(不透明体)에 의한 광선 반사는 광과장 정도의 두터이의 표면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은 주지된 바이다。 표면에서의 가장 미세한 세부、례하면 미세한 균렬등의 존재도 광선 반사외 성격을 완전히 변경시킬 수 있다。

반대로 느·쓰·오루로바의 측정에 의하면 모든 종류의 식물은 지극히 적은、심지어는 마이나쓰의 원활률로써 특징지어지며 이점에서 광택없는 보통 표면과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까자크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과학 아까데미야 통보』 一九五〇년도 제九〇호 一四一—一五一폐지를 보라)。 이것은 보전대 영향 물질을 주위의 공기층에서 취하며 따라서 그 층과의 보다

큰 접촉면을 획득하려는 경향이 있는 식물의 특성에도 관련된다. 수목 혹은 수풀의 탄산 까스 흡수 과정이 진행되는 전 표면은 그 수목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의 평활한 표면보다 몇천배 크다. 자기 주위 환경을 가장 충분히 리용하자는 식물체의 이 지향은 그 원활률이 무기체로써 구성되여 있는 광택없는 표면의 원활률과 현저하게 달라지는 원인으로 된다. 쏘련에서의 최근의 연구로써 확인된 화성의 『바다』의 반사성은 그것이 식물로 덮여진 구역이라는 단정과는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것이다.

화성의 흑점 —— 화성의 『바다』 —— 의 본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또 하나의 기준은 편광도로써 황무지와 대비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측정은 메돈에서 리오가 실시하였으며 (리오, 『메돈 관측소 년보』, 제八권 제一호 一九三九년) 최근에는 그의 제자 돌퓨쓰가 실시하였다. (돌퓨쓰 『…보고』 一九四八년 二二七권 三三一—三三三페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편광은 반사면의 상태와 밀접히 관련되여 있다. 보건데 론박할 여지 없는 관찰은 『바다』의 편광은 밝은 부분 즉 황무지의 편광과 같다는 것을 뵈여 주고 있다. 다만 극에서 녹고 있는 눈을 둘러 싸고 있는 좁은 주변에서만 심한 림시적 성질을 가지는 편광의 변화가 보인다. 흑점이 차지하고 있는 남아지 공간은 一년 내 생이 없는 황무지와 하등 구별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돌퓨쓰는 지구의 식물계는 화성의 흑점과는 그 편광에 있어서 전연 상이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충분히 믿을만한 모든 객관적 기준은 화성의 『바다』의 반사성이 어떤 식물 혹은 어떤 유기 물질에 기인한다는 가설에 모순된다.

그래서 화성에서의 생의 존재를 말하여 주는 하등의 객관적 자료는 현재 없다. 이 혹성의 흑점들은 초기에 가정한 바와 같은 『바다』도 아니며 또 현재 가정하고 있는 식물질로 차 있는 오아시쓰도 아니다.

상술한 바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一, 화성에는 생물권이 확실히 없다.

二, 현재의 화성에 생이 발생한다는 것은 보건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과거에 혹시 이 혹성에 보다 더 적당한 조건들이 있었겠는가에 대하여는 결정적으로 단언할 수 없다.

三, 우리 지구상에서 一八——二〇킬로메터 높이의 높고 건조한 고원 지대의 조건에서 (이것은 화성에 어느 정도까지 일치된다) 만일 그 곳에 또 온도를 三〇——四〇도 저하시키고 그리고 산소를 없애 버린다면 고도로 조직된 여하한 식물도 기대할 수 없다.

四, 화성의 『바다』에서 관측되는 성질들(온도, 반사성, 편극하는 성격)은 그 어떠한 식물에 의해서도 제약되지 않는다.

五, 화성에서의 식물 존재에 관한 스펙토르 광도계의 기준에 대하여서는 결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六, 화성에서의 유기적 생의 존재를 확증하는 아무

런 객관적 자료도 없다.

그러나 이 결론들은 유기적 생이 무기 물질의 자연적 발전의 결과이며 유기적 생은 그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발생한다는 유물론적 과학의 명제를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우주에 특히, 많은 혹성계를 가지고 있는 은하계에 생이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고찰하는 어느 일정한 천체에 반드시 유기적 생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단언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일이다. 이와 같은 요구는 엄격한 과학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있는 관념론자들에게 특유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에서의 생의 존재에 관한 일반적 문제를 화성에서의 식물에 관한 부분적 문제로써 슬적 바꿔 놓아서는 안된다. 화성에 식물, 심지어는 사유하는 생물까지 존재한다는 사상은 우리들에게 대해서 극히 매혹적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사실들은 이와 모순된다.

이 혹성의 표면과 대기층의 관측되는 성질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그런 어떠한 원시적 형태의 생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에 관해서는 오직 생물학자들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주一) 여기서 Q는 화성의 표면에 입사하는 태양 에네르기량을 표시한다. 만약에 이 표면에 무기물질로 되여 있는 반사능 A_1가 회색 물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입사한 에네르기의 부분 $Q(1-A_1)$는 흡수되여 가열에 소비된다. 정오경에 시작되는 온도평형(平衡) 조건 하에서는 열의 흐름이 복사의 결과 반대로 내보내는 량과 같을 때 $Q(1-A_1)=aT_1^4$가 된다. 여기서 T_1은 표면의 절대 온도이다. 식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태양 에네르기의 현저한 부분 x가 식물의 생에 관계하는 광화학적 반응에 소비된다. 그러므로 이미 감소된 량 즉 $Q(1-A_2)-Qx$는 직접 가열로 된다. 이것은 류사한 방정식 $Q(1-A_2)-Qx=aT_2^4$에 의하여 복사 온도를 결정한다. 밝은 표면 (반사능 $-A_1$, 온도 $-T_1$) 과 어두운 표면 (반사능 $-A_2$, 온도 $-T_2$) 을 비교하면 간단한 방정식 $T_1^4(1-A_2-x)=(1-A_1)T_2^4$가 나온다. 이 방정식에서 x 이외는 다 알려져 있다. 만약 $x=0$ 라고 가정한다면 관측은 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화성 『바다』의 성질이 어떠한 식물의 존재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잡지 『철학 제 문제』 一九五四년 제三호에서)

전후 경제 건설에 관한 김일성 동지의 교시들에 비추어 본 가능성의 현실성에로의 전환에 있어서의 실천의 주관적 요인들의 역할

황 장 엽

맑쓰—레닌주의 철학은 인류 사회에서 가장 선진적 계급인 로동 계급의 근본적 리익을 리론적으로 표현하는 로동 계급의 세계관인 동시에 그들의 혁명 투쟁과 세계 개조를 위한 실천적 리론이다. 맑쓰—레닌주의 철학의 이 프로레다리아적 혁명성과 실천성은 그가 다른 모든 철학들과 구별되는 가장 본질적 특징이다.

로동 계급의 혁명성은 그 실천적 성격과 통일되여 있으며 또한 실천적 성격은 리론의 과학성과 창조적 성격을 규정한다.

객관적 세계 발전의 합법칙성을 정당하게 반영한 리론만이 객관적 세계를 개조할 수 있는 실천적 리론으로 될 수 있으며 부단히 발전하는 실천을 정당하게 반영하는 부단히 발전하는 리론만이 실천의 창조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리론으로 된다.

맑쓰와 엥겔쓰에 의하여 창조된 맑쓰주의 철학——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은 레닌과 쓰딸린에 의하여 새로운 력사적 환경에서 창조적으로 적용되였으며 발전되였다. 맑쓰주의 철학 발전의 력사는 그의 새로운 력사적 조건에서의 창조적 적용의 력사이다. 창조적 적용을 떠나서는 맑쓰주의 철학의 발전은 생각할 수 없다.

맑쓰—레닌주의당의 세계관으로서 발생한 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은 오직 맑쓰—레닌주의당의 혁명적 실천과 결부됨으로써만 창조적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

맑쓰—레닌주의 철학사 상에서 유명한, 위대한 저작들은 모두 로동 계급의 위대한 수령들에 의하여 당의 현실적 실천적 투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작된 것이다.

맑쓰는 인간의 인식은 생생한 관조로부터 분석과 추상을 거쳐 과학적이며 구체적인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교시하였다. 진리는 항상 구체적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우에도 맑쓰—레닌주의 철학 리론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맑쓰—레닌주의를 조선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 문헌들과 수령의 모든 로작들을 심오하게 연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김일성 동지의 모든 로작들에는 맑쓰—레닌주의 철학이 창조적으로 적용되여 있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三월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김일성 동지의 보고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제반 방법을 교시한 당, 국가 및 경제 기관 일군들의 실천적 강령으로 되는 중요한 문헌인 동시에 사회 생활에서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객관적 조건들과 주관적 요인들과의 호상 관계를 천명한 중요한 로작이다. 사회 생활에서의 가능성의 현실성에로의 전화 과정에 있어서의 객관적 조건들과 주관적 요인들의 호상 관계에 관한 이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철학 론문들이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김일성 동지의 로작은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과학적 지침으로 된다.

김일성 동지는 우선 방대한 三개년 인민·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객관적 조건들과 가능성들이 존재하여야 되며, 둘째로는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 조건들과 가능성들을 현실성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인간 실천의 주관적 요인들 즉 비상한 열성과 노력 및 조직성과 지도 기능이 필요하며 객관적 조건들과 가능성들이 충분할 때에는 우리의 실천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주관적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교시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三월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김일성 동지의 보고를 중심으로 인간 실천의 객관적 조건들과 주관적 요인들의 구조와 호상 관계를 고찰하며 여기에 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의 기본 명제들이 어떻게 창조적으로 적용되였는가를 간단히 보기로 한다.

一、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 완수를 위한 객관적 조건들과 가능성들。

변증법적 유물론은, 우리에게 객관적 세계는 부단히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거기에서는 항상 새로운 것이 발생하며 낡은 것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새로운 것은 항상 장성하는 새싹을 대표하며 그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승리는 불가극복적이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 제도인 인민 민주주의 제도는

낡은 자본주의 제도에 비하여 무궁 무진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다。

인민 민주주의 제도가 낡은 자본주의 제도에 비하여 거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국 내의 중요한 생산 수단이 인민의 소유로 되였으며 정권이 선진적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근로 인민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인민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수백만 근로 대중의 무진장한 창조적 로력을 조직 동원할 수 있는 데 있다。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와 같은 가능성들에 기초하여 그를 현실성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작성한다。

가능성을 현실성에로 전환시키는 것은 단순하고 용이한 일이 아니다。자연과 사회에서 가능성과 현실성은 항상 통일적으로 존재한다。 즉 가능성은 현실성으로 전환되며 현실성은 또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으로서 존재하게 된다。그러나 통일된 것은 동일한 것을 의미함은 아니다。따라서 가능성과 현실성도 동일한 것이 아니다。가능성은 다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현실성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사회에서 모든 가능성은 반드시 인간의 적극적 활동을 통하여서만 현실성으로 전환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우선 실천에 착수하기 전에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어떤 객관적 조건들과 가능성들이 존재하며 이 가능성들을 현실성에로 전환시키기 위하여서는 어떤 주관적 노력이 필요한가를 연구하여야 된다。왜냐 하면 우리들은 자기 활동에서 항상 객관적 합법칙성에 엄격히 립각하면서 주관주의와 주의설(主意說)적 태도를 엄격하게 배격하여야 되며 또한 객관적 모든 조건들이 구비되였을 때에는 그의 발전 행정에서 주관적인 요인들이 결정적 역할을 놀기 때문이다。

인간 실천에서의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사이의 호상 관계를 해명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객관적 세계의 일반적 구조와 객관적 세계를 개조하는 인간의 실천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 세계는 무한히 다양한 서로 상이한 요소들의 통일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세계는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련속적인 것과 불련속적인 것、일반적인 것과 특수적인 것、질적 다양성과 량적 동일성 등의 모순의 통일로서 존재하고 있다。

세계에서 어떤 사물이든지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그러나 또 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연 공통성이 없는 사물도 없다。 세계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 물질성에 있어서는 다 공통적이며 이 물질성 때문에 세계는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객관적 사물들의 통일성은 절대적이 아니다。

이 통일성은 각각 상이한 모순된 요소들의 **일정한** 조건 하에서의 호상 작용에 불과한 것만큼 **다른**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서로 분리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통일은 항상 자기 내부에 모순 대립을 포함하고 있는 상대적 통일인 것이다。따라서 객관적 대상을 우리들은 무한히 단순한 그 구성 요소들로 분리할 수도 있고 동시에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일정한 공통적 원리 밑에 이들을 또 다시 재 통일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바로 여기에 인간 실천의 역할의 의의 즉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인간 실천의 역할의 의의가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이 실천에서 객관 세계를 개조한다는 것은 결국 객관 세계 즉 실천의 대상을 그 다양한 구성 요소로 일단 분리시키고 이들을 자기의 주관적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에로 재 통일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사회에서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전환되기 위하여서는 실천의 제반 객관적 조건들(실천의 대상과 환경)과 인간의 실천이 요구된다。 인간이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인간의 실천의 모든 객관적인 조건들과 인간의 객관적 및 주관적 능력의 존재를 의미한다。

우리가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와 같은 모든 가능성들을 다 반영하여야 된다。그런데 이와 같은 가능성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것이 저절로 현실성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실천의 객관적 조건들을 옳게 리용하여야 되며 인간의 객관적 및 주관적 능력을 옳게 조직 동원하여야만 된다。

물론 인간의 실천은 객관적이며 인간은 실천에 의하여 객관적 세계를 변경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의 실천의 객관적 조건들과 가능성 자체를 창설할 수 있다。그러나 항상 실천의 계획은 반드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객관적 조건들과 가능성에 기초하여 작성되여야 한다。이런 의미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객관적 조건들과 가능성들은 새로운 실천의 계획(주관적인 것)에 대하여 반영의 대상으로 되며 객관적인 것으로 된다。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의 관계는 철학의 기본 문제에 속한다。 객관적인 것은 인간의 의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물、과정들이며 주관적인 것은 이 객관적인 것의 인간 두뇌에의 반영이다。 즉 이것은 인식론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에 관한 문제는 오직 이 범위 내에서만 절대적 의의를 가지며 이 한계 밖에서는 항상 상대적 의의를 가질 뿐이다。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이 한계를 넘어서 절대화한다면 완전한 혼란에 빠진다。 때문에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은 반드시 실천의 립장에서 보아야 한다。실천에서 주관과

객관은 항상 통일된다。 인간이 실천에서 이미 존재하는 모든 사실들을 의식(주관)에 반영하여 자기 활동의 방향을 결정할 때 이 반영의 대상 즉 인간 실천의 외적 조건들은 모두 객관적 의의를 가진다。실천의 주관적 요인으로 되는 것은 인간의 지향과 지식(객관적 조건들의 반영)으로부터 출발하는 자기 활동에 대한 계획, 전략과 전술, 모든 투쟁 방법 형식 등등이다。우리는 사회적인 현상을 단순히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매개의 사회적 현상에서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을 실천적 립장에서 구별하여야 된다。

이점에 있어서 레닌의 혁명 승리의 객관적 조건에 관한 리론은 중요한 교시로 된다。 레닌은 혁명이 승리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들과 주관적 조건들을 구별하였다。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은 혁명의 경제적, 물질적 기초로 된다。 그러나 이외에 레닌은 혁명 승리의 객관적 조건으로서 혁명적 씨뚜아찌야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것은 첫째로 지배 계급이 종래의 형태로써는 그의 지배를 유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지배 계급의 정치적 위기와 함께 피지배 계급이 종래의 형태로써는 더는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로는 피압박 계급들의 빈궁이 고도로 심각화되는 것이며, 세째로는 대중들의 적극적, 혁명적 활동의 앙양이다(『레닌 전집』 二一권 一八九—一九〇페지 참조)。

이와 같은 객관적 조건들의 총체가 존재할 때에라야만 혁명이 승리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구비된다。 그러나 이 혁명 승리의 객관적 조건들과 가능성들은 결코 무조건적으로 현실성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가능성들이 현실성에로 전환되기 위하여서는 낡은 통치 제도를 전복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혁명적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대중적 혁명 력량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혁명 승리의 주관적 조건이라고 레닌은 지적하였다(전집 二一권 一九〇페지 참조)。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은 통일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제약하는 상대적 범주이다。 실천에 유리한 객관적 조건들이 많을 때에는 행동의 성공의 가능성이 더 풍부하며 또한 우리의 주관적 능력의 발전은 실천의 더 많은 객관적 조건들과 가능성들을 창조한다。

의식은 인간 실천의 주관적 요소로서 반드시 실천에 참가한다。 그러나 의식은 직접 객관적 세계를 개조할 수 없으며 오직 인간의 물질적 활동을 통하여서만 객관적 세계의 개조에 참가하게 된다。 물질적 력량은 반드시 물질적 력량에 의하여서만 분쇄할 수 있다。 그러나 리론은 목적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의 의식에 작용하여 그 의식을 변경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리론이 대중을 포착하면 물질적 력량으로 변하게 된다。 맑쓰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비판의 무기(언어에 의한 비판—역자)로써 무기에 의

한 비판(총검에 의한 혁명적 실천—역자)을 대신할 수는 없다。 물질적 력량은 물질적 력량으로써 전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리론이 대중을 포착하자마자 물질적 력량으로 된다』。

이와 같이 실천에서 주관적 요인들과 객관적 조건들은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각이한 역할을 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요소들의 호상 작용에 의하여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들은 자기 행동의 주관적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우선 객관적 조건들과 가능성들이 존재하는가를 연구하고 다음은 이 가능성을 현실성에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어떤 주관적 요인들이 필요한가를 연구하여야 될 것이다。

김일성 동지는 三월 전원 회의에서의 자기의 보고에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구성하고 있는 객관적 조건들로서 『우리에게는 위대한 쏘련을 위시한 중화 인민 공화국,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 인민들의 막대한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들이 있으며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 부원과 내부 원천들이 있으며 五년 동안의 평화적 복구 건설에서와 三년 동안의 가혹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단련되고 시련된 풍부한 경험들과 인민 정권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또 『우리 나라에는 오랫동안 혁명 투쟁을 계속하였으며 투쟁에서 단련된 혁명적 간부들과 근로 대중의 자각적인 선진분자들로써 조직된 조선 로동당이 있다』고 말하였다。

쏘련 인민들이 보내 준 一〇억 루블리와 중국 인민들이 보내 준 八만억원의 원조를 비롯하여 형제적 인민 민주주의 국가 인민들의 방대한 물질적 및 기술적 원조는 우리의 전후 복구 건설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는 풍부하고 다양한 자연 부원들 특히 많은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 자연 부원들과 기타 내부 원천들은 모두 三개년 인민、경제 계획 수행의 객관적 조건들로 된다。

우리 공화국의 사회 경제 제도와 국가 제도 즉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활력이 집중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곧 인민 정권의 기능이다。 이리하여 인민 정권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적 투쟁의 객관적 조건의 하나로 된다。

로동 계급이 혁명에서 승리하기 전과 승리한 후와의 사이에는 그의 실천의 조건에서 본질적 차이를 가진다。 로동 계급이 혁명에서 승리한 후에는 모든 산업 경제 기관들과 함께 정권은 로동 계급의 수중에서 인민 대중의 새로운 건설을 보장하여 주는 객관적 조건들과 가능성의 하나로 된다。

동시에 근로 대중의 자각적인 선진 분자들로 구성되고 맑쓰-레닌주의 선진 과학과 선진 혁명당들의 투쟁 경험으로 무장되였으며 우리의 오랜 혁명 투쟁에서 단련된 우리 당의 존재는 우리 인민 앞에 정복하지 못할 요새는 없게 하여 주는 객관적 조건으로 된다。

다음으로 김일성 동지는 실천의 객관적 조건의 하나로서 해방후 五년 간의 평화적 복구 건설과 三년 동안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우리 인민들이 얻은 고귀한 경험을 들고 있다。 경험은 객관적인 실천을 통하여서 수행된다。 경험을 통하여 우리들은 많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실천적 활동의 객관적 조건의 하나로 된다는 것은 경험을 통하여 얻은 교훈과 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인민들과 우수한 간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력사는 인민 대중이 창조하는만큼 실천의 주체가 어떤 경험을 가진 인간들인가 하는 문제가 그 가능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객관적 조건으로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이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의 완수를 위한 객관적 조건들과 가능성들을 아주 풍부히 가지고 있다。

이미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객관적 조건들이 충분히 존재할 때에는 실천의 성공 여하는 전적으로 그의 주관적 요인들의 기능 여하에 달린다。

二、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의 완수를 위하여 요구되는 주관적 조건으로서의 근로 대중의 열성과 노력

객관적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열성과 노력이 요구되는바 사회주의、인민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가능성의 현실성에로의 전환은 특히 이 주관적 측면의 우월성 즉 인민 대중의 자각적 로력과 맑쓰—레닌주의 당의 지도적 역할로써 특징지어진다。

우리 나라에서도 인민 민주주의 사회 제도의 물질적 토대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 발전의 추동력들이 장성하고 있다。 이 새로운 추동력들은 또한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가능성의 주관적 측면을 형성하는 것이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지도 하에서의 조선 인민의 정치—정신적 통일과 단결、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에 대한 그들의 무한한 애국주의는 다른 객관적 조건들과 함께 三개년 계획 완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 조선 인민의 정치—정신적 통일과 애국주의적 정신은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 수행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열성과 노력과 조직성으로 표현되며 창발성으로 발현된다。

김일성 동지는 방대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비상한 열성과 노력과 기능과 조직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면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고 시련된 우리의 영웅적 로동 계급과 애국적 농민들의 열

성과 노력은 비상하다。 그들은 전시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완화함이 없이 전후 복구 건설 투쟁에 총궐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로동 계급은 그 력사적 청소성과 특히 전쟁 기간을 통해서의 질적 구성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특히 프로레타리아적 조직성과 현대적 기능에 있어서 미약성을 발로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열성과 조직성——특히 프로레타리아적 규률——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사상 의식 수준과 결부된다。 때문에 오늘 로동 계급 속에서 사상 사업을 강화할 문제는 각별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김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의 지도적 계급인 로동 계급 속에서의 사상 사업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하여 명철하게 교시하였다。

조선 로동 계급에 대한 김일성 동지의 과학적 분석은 우리가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의 특성을 리해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계급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나아가서는 인간의 물질적 생활 조건이 어떻게 그들의 사상 의식을 결정하는가를 리해함에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 동지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六차 전원 회의 보고에서 조선 로동 계급에 대한 빛나는 과학적 분석을 주었다。

김일성 동지는 해방전 조선 로동 계급의 의식 수준이 어린 기본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것은 우선 조선 로동 계급이 력사적으로 보아 청소하다는 것이다。 조선 로동 계급은 소상품 생산자의 처지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기간이 오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의 의식 속에 소부르죠아적 잔재 의식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로동자가 된 이후에도 그의 가족과 친척의 대부분이 소상품 생산자로 남아있는 만큼 그들과 밀접한 리해 관계를 가지고 련결되여 있으며 그의 사상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략탈자들은 조선 로동자들에게 기술과 기능을 소유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술 수준과 지식 수준이 미약하며 또한 일제의 가혹한 착취 하에서 조선 로동자들은 자체의 문화 수준을 제고시킬만한 여유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인간의 의식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및 인간과 인간 상호 간의 관계의 자각이다。 인간은 자연에 대할 때에 반드시 일정한 인간 관계에서만 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자각 즉 계급 의식의 각성은 또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의 자각、객관적 물체、기계、공장、광산、상품 등에 관한 지식과 이 사물들과 인간들과의 관계의 자각과 밀접히 련결되고 있는 것이다。 로동 계급이 다른 피착취 근로 계급들보다 가장 선진적 계급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의 하나는 그들의 로동이 가장 선진적 산업 즉 많은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는 현대 공업과 결부되여 있다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 문화 수준은 그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

에 종속된다。해방 후 조선 로동 계급은 나라의 주인으로 되였고 로동자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은 급격히 제고되였다。이와 상응하여 그들의 계급적 의식과 정치적 의식도 급속히 장성하였다。

그러나 전후 우리 로동 계급 대렬 내에는 계급적 의식이 미약하며 비규률적이며 비조직적인 부분이 적지 않게 있다。김일성 동지는 그 원인으로서 다음 세가지를 지적하였다。

그것은 첫째로 조국 해방 전쟁시기에 많은 로동자들이 전선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 나라 로동 계급 대렬에는 다년 간의 로동 경력을 가진 로동자들의 수가 매우 적으며, 둘째로 공화국 북반부 인민 경제 생활에서 아직도 소상품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따라서 소부르죠아적 사상이 우리 로동자들의 의식 속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세째로 우리 근로 인민들의 머리 속에 아직도 일제 사상 잔재가 남아 있으며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이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을 전파시키고 있는 데 있다。

이와 같이 김일성 동지는 조선 로동 계급이 가지고 있는 결함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로동자들의 계급적 각성을 제고시키며 단결성과 규률성을 높이며 그들을 프로레타리아적 사상 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제반 대책을 교시하였다。

그 첫째는 로동자들의 핵심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어떤 집단의 질을 강화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핵심을 양성하고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된다。막연한 전체로서의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매개 집단은 그 능력과 의식 수준에 있어서 각각 차이 있는 구체적인 인간으로 형성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과 의식 수준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성원들을 핵심으로 육성 단련함으로써만 전체 집단을 현실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김일성 동지는 三월 전원 회의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숙련된 핵심적 그루빠들은 생산의 기본적 고리를 이루고 있으며 그들을 기업소에 고착시킨다는 것은 로동자들의 구성 성분 전체를 고착시키며 로동력의 류동성을 근본적으로 없애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는 로동 계급의 정치적, 문화적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로동자들 속에서 군중 정치 사업과 문화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다。오늘 우리 나라의 로동자들은 해방 전과는 달리 국가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공장과 기업소들의 주인으로 되였다。그러므로 로동 계급의 정치적, 문화적 수준의 제고는 그들의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관습, 낡은 의식을 씻어 버리며 그들의 계급적 의식을 제고시키며 애국주의 정신을 강화하며 그들의 생활을 문화적으로 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로동 계급 속에서의 군중 정치 사업과 문화 사업의 강화는 그의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이와 관련하여 생산 문화 수립에 관한 문제가 또한 중요하게 제기된다。

맑쓰—레닌주의는, 인간은 환경의 산물인 동시에 환경은 또한 인간에 의하여 변경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즉 인간은 다만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능동적으로 작용하며 그를 목적 의식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것이다。이리하여 인간은 자기의 환경을 개조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도 변경된다。

공장과 기업소들은 로동자들의 생활 무대이다。직장 내에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수립하고 로동자들의 기분을 명랑하게 하며 그들의 정신을 맑게 하여 생산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서는 우선 기업소 내부를 청결히 하며 기계와 기대를 과학적으로 배치 정돈하며 환경을 문화적으로 장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일성 동지는 특히 직장 내부에서의 로동자들의 문화적 생활이 그의 생산 능률에 직접 관계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로동자들이 자기의 몸과 얼굴의 청결에 대하여 무관심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서 직장 내부를 청결하고 기대를 닦고 내부 질서와 규률을 지킬 것을 기대할 수 없다。기업소가 깨끗이 청결되지 못하고 어지러운 곳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하는 일은 반드시 어지러운 것이며 기계 설비를 잘 관리하지 않고 깨끗이 질서있게 정돈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기계 설비들이 종종 사고와 고장을 일으키여 운전을 멈추게 하며 오작품을 많이 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김일성 동지의 이 교시는 인간의 의식 개조를 위한 교양과 교육 사업에도 큰 의의를 가진다。

관념론자들의 오류는 그들이 사전의 원인을 항상 사상과 의식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있다。그러나 맑쓰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의식은 자각된 존재 즉 현실의·반영에 불과하다。따라서 모든 왜곡된 의식과 관념의 청산은 우선 그 사상의 물질적 토대를 청산하는 데서만 가능하다。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을 개변하기 위하여, 즉 새로운 인간을 교양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물질적 환경의 조성과 이 새 환경에서의 적극적 활동 즉 실천이다。

맑쓰—레닌주의 철학은, 과거의 선행 유물론자들이 다만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면서 환경이 인간에 의하여 개조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관조적 성격을 극복하고 환경과 인간의 통일과 그의 통일적 개조를 혁명적 실천에서 발견하였다。

의식은 객관적 존재보다 뒤떨어진다。김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벌써 관료주의의 근원으로 되는 낡은 국가 제도가 청산되였으며 그의 물질적 토대가 제거되였지만 아직도 관료주의가 계속 잔존하고 있다。관료주의, 개인 리기주의적 사상은 부르죠아 사회의 유산이며 소상품 생산 경리에 아직도 그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사상들은 로동

계급의 본성과 배치되며 로동 계급의 사회주의 사상과 적대된다。 로동 계급은 자기에게 고유한 사회주의적 사상과 맑쓰—레닌주의적 혁명적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착취 계급과 그들의 사상 잔재를 극복할 수 있다。 여기에 맑쓰—레닌주의적 사상 정치 교양 사업의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의식은 객관적 존재의 단순한 수동적 반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실천과 결부되여 객관적 세계를 개조하고 따라서 인간 자신을 개조할 수 있는 적극적 힘으로 되고 있다。 즉 의식은 인간의 실천과 결부되며 반영과 의식의 원천인 객관 세계 자체를 변경시킬 수 있는 적극적 력량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 문화 수립에 관한 리론은 오직 의식과 존재, 인간과 환경의 이와 같은 변증법적 상호 관계의 리해에 기초하여서만 리해할 수 있는 것이다。

로동 계급 속에서의 사상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로동 계급의 변경된 객관적 사회 조건들과 그리고 이 변경된 조건과 함께 변경된 사회의 지도적 계급이며 나라의 주인공으로서의 자기 처지를 자각시키는 데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강제와 위협에 의하여 로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사회에서의 로동 계급의 자각은 그들을 현존하는 착취 제도를 반대하는 혁명 운동에로 인도한다。 따라서 착취 계급은 항상 로동 계급을 기만하며 그들을 무지와 몽매 속에 얽매여 둠으로써 그들의 계급적 각성을 백방으로 방해하려고 노력한다。 모든 종교와 관념론 철학과 미신은 이런 수단으로써 착취 계급에 의하여 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자각성을 제고시키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에게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긍지감과 책임감을 가지게 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김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당은 매개 근로 대중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투쟁하며 그들의 노력과 투쟁의 결과가 무엇을 가져 오는가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의 목표 및 전망에 대한 것을 철저히 침투시키는 당 정치 사업과 선전 사업들을 보장함으로써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 한 조각의 금속, 한 조각의 폐물, 한 조각의 원료도 버리지 않고 수집 리용하는 전당적, 전 국가적, 전 인민적 운동을 전개하여야 하겠다』。

가능성의 현실성에로의 전환, 객관적 세계의 개조는 근로자들의 실천을 통하여서만 가능한만큼 로동자들의 이와 같은 자각성과 애국적 열성과 그들의 기술 기능의 부단한 장성은 三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이상과 같이 우리에게 三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객관적 조건들과 가능성들이 풍부히 있으며 또 이

가능성을 현실성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주관적 요인의 일면으로서 근로자들의 자각적 열성과 노력이 보장되여 있다면 다음의 문제는 주관적 요인의 다른 일면 즉 이 객관적 조건들을 어떻게 리용하며 로동자들을 어떻게 조직 지도하는가의 문제이다。 때문에 김일성 동지는 『우리의 기업소들과 경제 기관들을 지도할 줄 아는 조직성과 기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三、지도상의 기능과 조직성、열성과 노력。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三월 전원 회의에서 현하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앞에 제기되고 있는 전후 복구 건설의 위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함에 있어서 풍부한 객관적 조건들과 가능성들을 옳바로 리용하여 준비된 근로 대중의 열성과 적극성을 성과적인 실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함에 있어서 당, 국가 및 경제 기관들과 그 일꾼들의 지도상의 결함을 퇴치하고 그 사업 수준, 지도 수준을 결정적으로 제고할 데 대한 문제를 현 시기의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김일성 동지는 우리의 국가 기관들과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결함의 하나는 하부에 대한 지도가 다수 경우에 형식적이고 관료주의적으로 되고 있는 그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로동 계급은 가장 철저한 민주주의적 계급이다。 로동 계급은 그가 계급으로 형성되는 첫날부터 자기 자신의 해방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착취와 외곡된 인간 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또 투쟁하고 있다。 계급 사회에서는 오직 쇠사슬과 몽둥이와 기아에 의하여서만 로동 조직이 가능하며 이 부자연하고 외곡된 인간 관계는 모든 다른 인간 관계를 지배와 복종, 경쟁과 알력의 관계로 만들게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하에서의 로동 조직은 이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하에서는 로동자들은 착취자들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일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의 로동 조직도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자각적인 협력의 방법에 의하여,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의 형식에 의하여 유지된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의 원칙은 바로 로동 계급의 사회적 본성을 반영한 조직 원칙이다。 그러므로 사회에서의 모든 억압과 착취, 강제와 관료주의는 로동 계급의 지향과 적대되며 그의 전진을 저해한다。

우리 나라에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관료주의가 적지 않게 남아 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는 사회의 모든 성원, 집단의 모든 성원들이 그 사회와 집단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하에서의 집단의 성원들은 집단의 주인답게 자각적으로, 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민주주의와 인민 대중의 의식적인 활동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가장 민주주의적 사회인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인민 대중의 활동은 그들의 높은 의식성으로써 특징지어진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건설은 수백만 근로 대중들의 의식적, 창조적 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사회 발전의 높은 속도는 근로자들의 통일적인 의식적 활동으로써 설명된다.

조선 로동당에 의하여 령도되는 우리 공화국 인민들의 활동도 또한 그의 높은 자각성과 의식성으로써 특징지어진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무궁 무진한 힘의 원천이 있다.

관료주의는 인민들의 이 자각적, 의식적 활동과 창의 창발성을 말살한다. 김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관료주의는 우리 공화국의 기초로 되여 있는 인민 민주 제도의 무궁 무진한 생활력과 고상한 정치 도덕적 품성과 인민들의 강인성을 말살하며 우리의 무진장한 지하 자원을 개발 동원하는 것을 저해하며 집행에 대한 검열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 검열을 공허한 형식적인 것으로 되게 하며 비판과 자기 비판을 말살한다』.

관료주의는 비판과 자기 비판의 적이다.

비판과 자기 비판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모순을 극복하며 인민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강력한 무기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근로 인민들의 근본적 리익이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협력과 친선과 단결의 원칙에 립각하고 있으며 모순의 극복은 비판과 자기 비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비판과 자기 비판은 오직 운명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집단 내부에서, 동지적 관계에서 적용되는 무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는 오직 단결과 협조와 통일을 원칙으로 하는 로동 계급 이외의 어떤 다른 계급도 창조하지 못하였다. 계급 사회에서도 비판은 존재한다. 또 반성과 자죄와 참회의 형식으로서의 자기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비판과 자기 비판이 발전의 위력한 무기로서 통일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로동 계급과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사회에서만 볼 수 있다.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동지를 비판하며 자기 비판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통일적 과정이다. 이것은 오직 집단의 모든 성원들이 운명과 리해를 같이하며 집단의 매개 성원들이 그 주인으로 되고 있는 곳에서만 존재한다. 즉, 집단의 리익과 매개 성원의 리익이 완전히 일치되는 데서는 매개 성원들이 서로 동지적으로 비판하지 않고서는 모순을 극복하며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판과 자기 비판을 억압하는 관료주의는 대중의 창발성과 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

로동 계급은 민주주의적인 동시에 조직적이다. 로동 계급은 그가 탄생한 첫날부터 자기의 계급적 원쑤와 투쟁하기 위하여서는 단결할 것이 요구된다. 단결은 로동 계급의 위력한 무기이다.

그러나 선진적인 로동 계급의 위력한 무기로서의 단결에는 일정한 원칙이 필요하며 조직이 필요하다. 조직 규률은 로동 계급과 그의 전위대인 공산당과 로동당의 생명이다. 오직 조직만이 수백만 대중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속시키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로동 계급과 그의 당의 위력은 강력하고 통일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있다.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는 로동 계급과 그의 조직체의 조직적 원칙이다. 이 원칙은 우리 나라 국가 기업소의 운영에서는 유일 관리제의 형태로서 표현되고 있다. 김일성 동지는 三월 전원 회의 보고에서 유일 관리제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유일 관리제—이것은 무엇보다도 지도자의 수중에의 전 관리 계통의 집중을 의미하며 위임된 사업에 대한 개별적 책임성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 관리제의 본질은 사업을 관리, 조직, 통제하며 옳은 지시를 주며 결산 및 보고를 요구하며 사업에 있어서의 무책임성과 비조직성과 비규률성을 제거함에 있다』.

유일 관리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결코 지배인이 되는 대로 명령과 지시를 하부 일꾼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가 지도의 전권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고 책임성 있게 기업소 사업을 지도하는 데 있는 것이다. 기업소 지배인들은 생산과 경리의 지식을 소유하며 기업소의 모든 정형에 정통할 때에라야만 기업소·사업을 성과있게 지도할 수 있으며 생산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소 지배인들은 유일 관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상 당 단체들과 적극 분자들에 의거할 줄 알아야 한다.

단순한 중앙 집권제는 어떤 사회에서나 존재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는 오직 로동 계급만이 가질 수 있었으며 사회주의, 인민 민주주의 사회에서만 존재한다. 민주주의와 중앙 집권제는 불가분리적으로 통일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중앙 집권적 조직에 의하여 확보되며 또한 중앙 집권제는 민주주의를 전제로 한다. 바로 여기에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 원칙의 조직적 우월성과 위력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유일 관리제의 강화는 생산과 건설에서의 성과의 중요한 담보의 하나로 된다.

김일성 동지는 또한 상술한바 보고에서 간부의 선발 배치에 대하여 특히 강조하였다. 각자가 그의 기능에 따라 일한다는 원칙은 사회적 로동에서 일꾼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전제 조건으로 된다. 김일성 동지는 간부의 선발 배치에 있어서 반드시 그의 정치성과 실무적 능력에 엄격히 립각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간부 선발의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만 우리는 방대한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은, 각자는 자기의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하여 정당하게 분배될 것을 요구한다。이 원칙은 로동 임금 지불에 있어서 자기 로동의 결과에 대한 로동자와 사무원들의 물질적 관심을 제고시키는 기본 수단으로 된다。그러므로 로동 임금에 대한 평균주의를 엄격히 배격하며 도급제를 광범히 실시하여 생산과 로동자들의 물질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켜야 한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의 도급제는 자본주의 하에서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도급제는 로동자들의 빈궁을 리용하여 그들의 로동력을 더 혹심하게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시되고 있지만 사회주의、인민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도급제는 개인의 리익과 사회의 리익과의 정당한 결합의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국가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인민 민주주의 국가 로동자들은 고용 로동자가 아니다。그들의 로동 임금은 로동력의 댓가가 아니라 로동의 결과에 대한 분배이다。따라서 로동의 결과가 크면 더 많은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객관적 조건들과 가능성들을 현실성에로 전환시키는데 있어서 당、국가 및 경제 기관들과 그 일꾼들의 사업 수준、지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문제들 중에서 김일성 동지는 계획 작성과 그의 실천 보장에 관한 문제、기업 경리의 가장 합리적、선진적 방법으로서의 독립 채산제의 문제、건설 사업에서의 설계 및 예산에 관한 문제、일꾼들의 경제 지식 소유에 관한 문제들을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이 문제들에 있어서 김일성 동지는 우선 계획의 법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계급 사회에서의 지배 계급의 의지는 국가의 의지로서 법률로써 표현된다。착취 계급들은 자기들의 착취 제도를 영구화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근로 대중을 억압한다。

계급 사회에서는 국가와 법은 오직 지배 계급의 독재의 도구로서 그 착취 제도의 옹호를 자기의 임무로 한다。그러나 정권이 전 인민의 수중에 있는 사회주의、인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가는 주요 경제 조직자적 및 문화 교양자적 역할을 수행한다。그러므로 이 나라들에서의 인민 경제 계획의 수행은 전 인민적 사업이며 법적 의무로 되는 것이다。따라서 국가 계획에 제시된 대책들에 대한 사소한 위반이라 할찌라도 그것은 국가 규률의 위반으로 간주되며 계획 과제를 자의로 축소시키는 것은 반 국가적 행위로 된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민 경제 계획이 엄격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만큼 인민 경제 계획은 객관적 조건들과 가능성들에 엄밀히 립각하여 작성되여야 한다。김일성 동지는 특히 계획 작성을 제二차적인 사업으로 간주하는 옳지 못한 경향들을 엄격히 지적하면서 계획 작성의 질을 제고하며 모든 계획 기관들의 책임성을

제고할 것을 교시하였다。

인민 경제 계획은 국가의 법률이다。그러므로 아무도 이것을 자의로 변경시킬 수는 없다。그렇다고 해서 계획은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아무리 계획을 엄밀히 수립하였다 할찌라도 모든 복잡한 객관적 사정을 다 예견할 수는 없는 것이다。그러므로 그 계획을 실행하는 행정에서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다만 이 변경은 제정된 질서에 의하여 또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진 기관들에 의해서만 실시될 수 있는 것이다。

계획 실천에 관한 김일성 동지의 교시에서 우리들은 리론과 실천의 통일에 관한 맑쓰—레닌주의 철학적 명제의 창조적 적용을 볼 수 있다。

계획이 없는 실천은 맹목적이다。그러나 계획의 작성은 다만 계획의 시초이며 이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하여서는 실천과 지도가 필요한 것이다。여기에서 구체적인 지도 검열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정서만 채택하고 그 집행 여부를 지도 검열하지 않으며 계획서만 내려보내고 그의 실천을 위한 지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형식주의적、관료주의적、사무실적 사업 작풍이다。三개년 계획 실천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축성있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산 지도이다。

하부에 대한 구체적인 산 지도를 하기 위하여서는 경제 건설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김일성 동지가 여러번 이것을 강조한 리유는 우리가 경제 건설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지도에서 창발성을 발휘할 수 없으며 계획 수행에 있어서 객관적 조건들과 가능성들을 충분히 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매개 당、국가 및 경제 기관 지도 일꾼들은 산업에 대한 지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드시 경제 지식을 소유하며 하부 실정에 정통하여야 한다。

❇ ❇ ❇

우리는 이상에서 가능성을 현실성에로 전화시키는 과정에서의 주관적 요인들에 대한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개관하였다。우리에게는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들과 가능성들이 아주 풍부하다。김일성 동지의 교시에 립각하여 주관적 요인의 측면에서 나타난 모든 오류와 결함들을 시급히 청산한다면 우리의 승리는 의심할바 없다。

一九五四년 상반년 국가 계획 실행 총화에 관한 국가 계획 위원회 중앙 통계국의 보도는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 실행에 있어서 가능성을 현실성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주관적 요인들의 역할에 관한 김일성 동지의 교시의 과학성을 실제적으로 확증하여 주었으며 전체 인민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곤난이라도 극복하고 이를 승리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더욱 확고한 자신심을 주었다。

一九五四년 九월 二〇일 인쇄
一九五四년 九월 二五일 발행

『근로자』 제九호
(값 六〇원)

책임주필 리 문 일
인 쇄 인 전 만 실

평양특별시
발 행 소 로 동 신 문 사
인 쇄 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ㄱ—20127